

농업·농촌경제동향

2005 봄

KREI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관측정보/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이용선, yslee@krei.re.kr/장재봉, jbchang@krei.re.kr)

연락처: 3299-4293 / 팩스: 964-5631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환율 및 원유가격	4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	6
2. 세계 곡물 전망	9

III.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23
2. 소비 및 투자	26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29
4. 고용	30
5. 물가	31
6. 금융 및 외환	35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38
2. 농가교역조건	41
3. 농업인력	42
4. 농산물 수출입	43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49
2. 채소류	52
3. 과일	66
4. 과채류	80
5. 축산	91

VI. 특별주제

1. 농업인의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인식	104
2. 품목별 집중분석: 양파, 당근, 토마토	122
3. 미국과 호주의 2005년 농업전망	145

부 록

2004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	164
2004년 농업 기본통계조사 결과	165

KREI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및 위안화 등 환율변동요인 등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2004년 3/4분기부터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4년 4/4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는 둔화되어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정부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달러화가치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에서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과는 달리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UR과 DDA를 통해서 각국 공통의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개도국과 관련하여 WTO에서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와 한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을 단순 개도국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한국과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이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함.
- 한편,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는 2004년 2월에 FTA 체결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억 2,86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7,412만 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98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7,84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9억 8,7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억 9,099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억 2,8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1% 증가한 4억 174만 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4/05년에는 톤당 415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7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2,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소맥을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국내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억 586만 톤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23만 톤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브라질 남부 대두 생산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 전체의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억 3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7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3,725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억 3,6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III. 국내 경제 동향

-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다 설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4분기중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보임. 1~2월중 소비재판매는 1.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소비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년 들어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작년 30%대의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두 자리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1/4분기중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2005년 3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3,483천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전월대비 490천명이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20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함.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2004년 4/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3월 생산자물가는 환율절상과 작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적 영향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IV. 농촌경제 동향

- 2005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전월대비 0.3% 상승한 122.4를 기록함.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6.4, 구입가격지수가 122.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95.1로 나타나 전월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13.9% 악화됨.
- 2005년 1/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5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함.
- 2005년 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3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함.
- 2005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여 17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금년 들어 2월까지 중국으로 난초,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등)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3,360만 달러를 기록함. 한편, 대일 수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채소류, 과일류 등 신성 농림축산물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및 위안화 등 환율변동요인이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2004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확정치)은 전기대비 연율로 3.8% 증가하여 3/4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소비지출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지출 및 자본지출도 확대세를 지속하고 있는, 소비관련 심리지표는 고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둔화함.
 - 내수 확대세를 반영하여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의 선행지표는 하락하고 고용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4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1%(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하여 2분기 연속의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금년 2월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임.
 -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회복을 주도하던 수출이 둔화되면서 생산 및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어 성장세가 다소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장재봉 연구원(jbcha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일본은행의 3월중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 기업경기는 지난 12월보다 소폭 악화되었으며, 향후 6월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로경제는 2004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2% 증가하여 전기와 같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1~2월중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3월 들어서는 심리 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하락하였음.
 - 2004년 유로지역 정부채정적가 규모는 GDP대비 2.7%로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공공부채 규모는 GDP대비 71.3%로 전년(70.8%)보다 소폭 확대되었음.
- 중국경제는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비 및 투자의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월들어 산업생산과 수출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춘절효과를 감안하면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2005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경제운영방식을 과거의 성장위주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 과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중시정책에서 지역간 및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함.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¹

단위: %

	2002	2003	2004	2005
전 세 계 ²	1.8(3.0)	2.6(3.9)	4.0(5.0)	3.3(4.3)
선 진 국	1.6	2.1	(3.6)	(2.9)
미 국	1.9	3.0	4.4	3.7(3.5)[3.3]
일 본	△0.3	1.4	2.7	0.9(2.3)[2.1]
영 국	1.8	2.2	3.1	2.6(2.5)[2.6]
유로지역	0.9	0.6	1.8	1.6(2.2)[1.9]
독 일	0.1	△0.1	1.0	1.1(1.8)[1.4]
프 랑 스	1.1	0.5	2.3	1.8(2.3)[2.0]
개 도 국	4.8	6.1	(6.6)	(5.9)
아 시 아 ³	5.9(6.6)	6.5(7.7)	7.2(7.6)	6.2(6.9)
중 국	8.3	9.3	9.5	8.3(7.5)[8.0]
중 남 미	△0.9	1.9	5.7	4.3(3.6)
중 동	1.8	3.6	7.0	6.7(4.8)
아프리카	3.5	4.5	4.7	4.9(5.4)
중앙·동유럽	4.4	4.6	6.1	5.0(4.8)
러 시 아	4.7	7.3	7.1	5.7(6.6)[5.5]

주: 1.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05 1/4, 2005.

2. ()안의 수치는 IMF자료로 PPP방식의 추정치임이며, []안의 수치는 OECD자료임.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류에서 Global Insight는 일본만을 제외하지만,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선진국에 포함)함.

원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1Q 2005;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4; OECD, *Economic Outlook No. 76*, November 2004.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미국 달러화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 지난해 지속적인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금년 들어 미 달러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정책과 주요국 외환정책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3월 중순이후로는 강세를 보임.
 -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 달러화가가 2005년중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하여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엔/달러환율은 3월부터 6개월 후에 95엔대, 유로/달러화는 0.735 유로 내외 수준으로 예상됨.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2	2003	2004	2005			
				1월	2월	3월	4월18일
엔/달러	118.79	107.22	102.63	103.7	104.6	107.2	107.5
유로/달러	0.953	0.794	0.738	0.767	0.756	0.771	0.768

자료: 한국은행

2.2. 원유가격

-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원유공급은 이라크 정정불안, 이란 핵문제 등 공급차질과 심리

적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비 OPEC국들의 원유공급 증산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원유수요는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수요급증, 미국 경기호조 및 2~3월에 발생한 동북부 지역의 동절기 한파 등으로 증대함.
- 특히 두바이유(Dubai, 중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높아 두바이유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생산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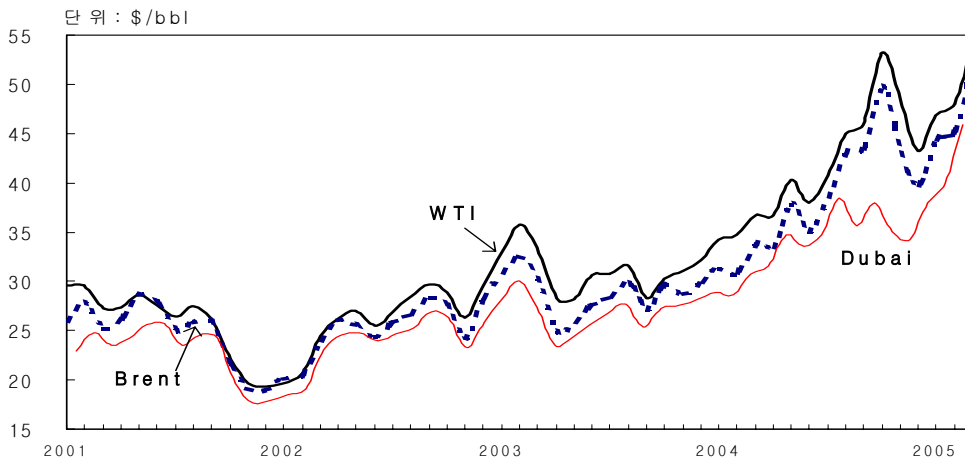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배럴

	2003	2004	2005			
			1월	2월	3월	4월중순
WTI (텍사스 중질류)	31.12 (19.2)	41.44 (33.2)	46.84 (26.9)	47.96 (27.6)	54.27 (32.3)	50.47
Brent (북해산)	28.82 (14.6)	38.32 (33.0)	44.44 (29.5)	45.37 (31.9)	52.96 (36.2)	47.95
Dubai (중동산)	26.82 (12.5)	33.67 (25.6)	37.97 (24.0)	39.91 (28.3)	45.85 (32.9)	44.03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유 가격 동향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²⁾

1.1. 세계 농축산업 협상동향

가. DDA, 농업협상 평가와 전망

- 지난 1월 24일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를 가졌음.
- 세미나에서 팀 그로서 의장은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과는 달리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UR과 DDA를 통해서 각국 공통의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무역협상에는 정책개혁과 자유화라는 목표가 존재하는데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타협이 필요하며, UR은 그러한 타협의 실례로서 자유화보다는 정책의 개혁에 그 초점이 맞춰졌음을 언급함. 한국이 부속서 5B를 적용하여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였듯이 각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므로, 시장 자유화에는 다소 미진하다고 밝힘.

2)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53호~제55호(농정연구센터 김태곤 연구위원(taegon@krei.re.kr)등 작성)에서 발췌하였음.

-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개도국과 관련하여 WTO에서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와 한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을 단순 개도국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WTO의 국가 분류

분 류	포함 대상국	국가수
선진국	미국, 프랑스, 그리스, 영국 등 유럽국가	35
일반개도국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 등 아시아 및 남미 국가	57
NFIDC	아프리카 및 일부 동남아 국가	23
LDC	아프리카 및 일부 동남아 국가	32
비회원국 LDC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	18

주: 1. NFIDC: Net 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y
2. LDC: Least Developing Country

- 한국과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이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함.
- 올해 상반기까지 모델리티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의 기본 골격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의견들을 모으고 핵심 쟁점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협상은 200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이 2년 연장되는 경우 미국 행정부는 2007년 6월까지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2005년 상반기 농업위원회 회의 일정

기 간	일 정	비 고
2. 7~11	특별회의	16일 정례회의
3. 14~18	특별회의	
4. 13~15, 4. 18~19	특별회의	
5. 30 ~ 6. 3	특별회의	6. 2 정례회의
7. 11~15	특별회의	

나. 미국 · 호주, FTA 발효

-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는 국제 농산물 무역협상에서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농산물 수출대국임. 이들 두 국가는 2004년 2월에 FTA 체결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 됨.
- 양국의 협상당시부터 미국 농업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 국제경쟁력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는 호주는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면서 호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가 국내 농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함.

- 그러나 2004년 2월에 타결된 FTA에서는 호주측이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한편, 미국측의 즉시 철폐품목은 농산물 전체 품목수의 약 66%에 그쳤으며 최대 초침이 되었던 설망은 제외됨. 땅콩, 면화 등의 관세할당품목에서는 최대 18년, 쇠고기는 최대 21년에 걸쳐 쿼터를 극소량 확대하거나 자유화한다는 양보를 하는데 지나지 않았음. 국제통화기금(IMF)은 양국의 FTA 체결로 호주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이 29.7억 호주달러에 그치는 반면, 미국산 농산물의 대 호주 수출은 52.5억 호주달러에 달하여 호주 경제는 연 0.03%씩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함.
- 양국간의 FTA는 미국측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한편 호주측에게는 전체 농산물 관세철폐에 의한 접근 확대를 유도한다는 일방적 내용임.
-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FTA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자유무역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호주처럼 자국 농업보다 경쟁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는 협상전략을 보임.

2. 세계 곡물 전망³⁾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억 2,86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7,412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3)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세계농업정보”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혜영 연구원(hykim@krei.re.kr)작성)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Pinksheet, April, 2005. 내용과 미 농무부(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 Outlook」 April, 2005에서 발췌하였음.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98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7,84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9억 8,7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억 2,8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을 4,119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억 9,099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3/04년도 18.0%에서 19.7%로 1.7%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3	2005.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17.65	1,854.48	2,029.53	2,028.60	9.4	0.0
공 급 량	2,353.60	2,297.68	2,379.22	2,378.40	3.5	0.0
소 비 량	1,910.40	1,947.88	1,992.48	1,987.41	2.0	△0.3
교 역 량	241.21	240.27	231.54	228.96	△4.7	△1.1
기말재고량	443.21	349.80	386.74	390.99	11.8	1.1
기말재고율	23.2	18.0	19.4	19.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목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대 두	377.0	323.0	268.0	258.0	261.5	261.0	290.0	270.0
수 수	126.0	121.0	99.8	92.3	90.0	92.3	96.4	92.9
소 맥	164.7	161.7	147.6	153.5	153.6	151.2	151.0	151.9

주: 대두는 U.S. c.i.f Rotterdam, 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소맥은 U.S. Gulf No.1 HRW 가격임.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Pinksheets), April, 2005.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0.11	2,414.04	1,899.90	238.82	514.15	27.1
2002/03	1,817.65	2,353.60	1,910.40	241.21	443.21	23.2
2003/04	1,854.48	2,297.68	1,947.88	240.27	349.80	18.0
2004/05	2,028.60	2,378.40	1,987.41	228.96	390.99	19.7

주: 2003/04년은 추정치, 2004/05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Agricultural Outlook*, 1990~2003(1990/91~2000/01).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2002/03~2004/05).

2.1. 쌀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1% 증가한 4억 174만 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억 1,316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53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49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3.2%가 감소한 7,48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983/84년 이후 최저치임.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재고가 줄어든 반면 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의 재고는 증가하였음. 2004/05년도 기말재고율은 18.1%로 2003/04년도의 20.8%보다 약 2.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78.03	389.64	402.08	401.74	3.1	△0.1
공 급 량	517.46	499.91	488.15	487.96	△2.4	0.0
소 비 량	407.19	413.69	412.89	413.16	△0.1	0.1
교 역 량	28.62	26.99	24.82	24.90	△7.7	0.3
기말재고량	110.27	86.22	75.26	74.80	△13.2	△0.6
기말재고율	27.1	20.8	18.2	1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17.46	499.91	488.15	487.96	△2.4	0.0
기초재고량	139.43	110.27	86.07	86.22	△21.8	0.2
생산량	378.03	389.64	402.08	401.74	3.1	△0.1
미국	6.54	6.42	7.33	7.33	14.2	0.0
태국	17.20	18.01	17.00	17.00	△5.6	0.0
베트남	21.53	22.08	22.14	22.14	0.3	0.0
인도네시아	33.41	35.02	34.99	34.83	△0.5	△0.5
중국	122.18	112.46	126.00	126.00	12.0	0.0
일본	8.09	7.09	7.95	7.94	12.0	△0.1
수입량	26.19	24.73	25.14	24.93	0.8	△2.0
인도네시아	2.75	0.65	1.00	0.70	7.7	△33.3
중국	0.26	1.12	0.90	0.90	△19.6	0.0
일본	0.63	0.70	0.70	0.68	△2.9	0.0
소비량	407.19	413.69	412.89	413.16	△0.1	△0.3
미국	3.53	3.65	3.91	3.92	7.4	0.0
태국	9.46	9.47	9.48	9.48	0.1	△0.5
베트남	17.80	18.20	18.60	18.60	2.2	0.0
인도네시아	36.50	36.00	35.85	35.85	△0.4	△2.1
중국	134.80	135.00	135.10	135.10	0.1	0.0
일본	8.74	8.36	8.30	8.30	△0.7	0.0
수출량	28.62	26.99	24.82	24.90	△7.7	△2.6
미국	3.86	3.33	3.33	3.43	3.0	0.9
태국	7.55	10.14	8.50	8.50	△16.2	△5.7
베트남	3.80	4.30	4.20	4.20	△2.3	0.0
기말재고량	110.27	86.22	75.26	74.80	△13.2	4.5
미국	0.83	0.76	1.27	1.19	56.6	3.1
태국	3.30	1.71	0.73	0.73	△57.3	33.0
인도네시아	4.34	4.02	4.21	3.70	△8.0	51.8
중국	67.22	44.93	36.23	36.23	△19.4	1.5
일본	2.47	1.70	1.85	1.82	7.1	8.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종 ¹	2002/03	2003/04	2004/05 ²	2005				
				12월	1월	2월	3월	4월 ³
중립종	327	533	415	397	397	397	397	397
장립종	199	220	274	283	292	296	298	301

주: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2, 3. 추정치임.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5d, April 11, 2005.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4/05년에는 톤당 415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USDA 계산 세계시장 쌀 가격 (rough basis)

단위: \$/cwt

달	2002/03		2003/04		2004/05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8 월	2.99	3.00	3.79	3.85	5.40	5.47
9 월	2.96	2.97	3.72	3.77	5.46	5.54
10 월	2.95	2.96	3.74	3.79	5.35	5.50
11 월	2.91	2.92	3.80	3.86	5.61	5.69
12 월	2.93	2.94	3.94	4.00	5.82	5.90
1 월	2.96	2.98	3.91	3.96	5.76	5.84
2 월	3.01	3.03	4.19	4.21	5.79	5.83
3 월	2.97	2.99	4.72	4.74	5.67	5.71
4 월	2.91	2.93	5.35	5.38	5.65	5.68
5 월	2.92	2.94	5.64	5.67		
6 월	3.21	3.24	5.64	5.67		
7 월	3.43	3.45	5.73	5.77		
평 균 ¹	3.01	3.03	4.40	4.44		

주: 1. 세계시장 주 단위가격 단순평균

단위: Rice Conversions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453 metric ton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5d, April 11, 2005.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7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2.2. 소맥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2,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소맥을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국내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937만 톤보다 약 1,794만 톤 증가한 6억 73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1,413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4/05년에는 1억 667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도 17.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66.96	553.03	623.77	623.71	12.8	0.0
공 급 량	769.02	720.65	754.82	754.82	4.8	0.0
소 비 량	601.40	589.37	608.03	607.31	3.0	△0.1
교 역 량	108.48	109.92	108.27	106.67	△3.0	△1.5
기말재고량	167.62	131.28	146.78	147.68	12.5	0.6
기말재고율	27.87	22.27	24.14	24.3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 2004/05년 기말재고량은 1억 4,768만 톤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유럽의 재고량이 123.9% 증가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22.27%에서 24.32%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9.02	720.65	754.82	754.99	4.8	0.0
기초재고량	202.06	167.62	131.05	131.28	△21.7	0.2
생산량	566.96	553.03	623.77	623.71	12.8	0.0
미국	43.71	63.81	58.74	58.74	△7.9	0.0
호주	10.13	26.23	21.50	21.50	△18.0	0.0
캐나다	16.20	23.55	25.85	25.86	9.8	0.0
EU25	124.48	106.62	136.72	136.52	28.0	△0.1
중국	90.29	86.49	91.00	91.00	5.2	0.0
러시아	50.55	34.10	45.30	45.30	32.8	0.0
수입량	107.81	102.56	105.41	104.80	2.2	△0.6
EU25	13.92	5.91	5.50	5.50	△6.9	0.0
브라질	6.73	5.18	5.00	5.00	△3.5	0.0
북아프리카	18.71	15.82	16.40	16.40	3.7	0.0
파키스탄	0.19	0.05	1.50	1.50	2900.0	0.0
인도	0.03	0.01	0.02	0.02	100.0	0.0
러시아	1.04	1.03	1.50	1.50	45.6	0.0
소비량	601.40	589.37	608.03	607.31	3.0	△0.1
미국	30.45	32.48	31.76	32.22	△0.8	1.4
EU25	116.55	108.93	116.75	116.75	7.2	0.0
중국	105.20	104.50	102.00	102.00	△2.4	0.0
파키스탄	18.38	18.90	19.50	19.50	3.2	0.0
러시아	39.32	35.50	38.00	38.00	7.0	0.0
수출량	108.48	109.92	108.27	106.67	△3.0	△1.5
미국	23.14	31.56	28.58	28.58	△9.4	0.0
캐나다	9.40	15.79	15.00	15.00	△5.0	0.0
EU25	19.94	10.93	14.50	13.50	23.5	△6.9
기말재고량	167.62	131.28	146.78	147.68	12.5	0.6
미국	13.37	14.87	15.04	14.72	△1.0	△2.1
EU25	16.83	9.50	20.47	21.27	123.9	3.9
중국	60.38	43.29	38.79	38.79	△10.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2.3. 옥수수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억 586만 톤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6억 7,91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4/05년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2,673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7,382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1.9%, 19.0%로 이들 두 국가가 약 80.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1.85	623.11	706.37	705.86	13.3	△0.1
공 급 량	749.74	745.54	804.49	803.80	7.8	△0.1
소 비 량	627.31	647.60	682.45	679.13	4.9	△0.5
교 역 량	78.18	76.94	74.44	73.82	△4.1	△0.8
기말재고량	122.43	97.94	122.04	124.68	27.3	2.2
기말재고율	19.5	15.1	17.9	18.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9.74	745.54	804.49	803.80	7.8	△0.1
기초재고량	147.89	122.43	98.12	97.94	△20.0	△0.2
생산량	601.85	623.11	706.37	705.86	13.3	△0.1
미국	227.77	256.28	299.92	299.92	17.0	1.1
아르헨티나	15.50	15.00	19.50	19.50	30.0	0.0
EU-25	49.08	40.05	53.12	53.12	32.6	0.0
멕시코	19.28	21.80	22.00	22.00	0.9	0.0
동남아시아	14.85	15.37	16.14	16.08	4.6	△0.4
중국	121.30	115.83	128.00	128.00	10.5	0.0
수입량	76.94	77.09	73.03	73.52	△4.6	0.7
EU-25	4.33	5.75	2.50	2.50	△56.5	0.0
일본	16.86	16.78	16.80	16.80	0.1	0.0
멕시코	5.27	5.71	5.50	5.50	△3.7	0.0
동남아시아	4.15	3.89	3.56	3.56	△8.5	1.5
한국	8.79	8.78	8.50	8.50	△3.2	△4.5
소비량	626.73	647.60	682.45	679.13	4.9	0.1
미국	200.75	211.72	225.31	222.52	5.1	0.3
EU-25	49.24	46.81	52.70	52.70	12.6	0.8
일본	16.80	16.90	16.80	16.80	△0.6	0.0
멕시코	24.70	26.40	27.40	27.40	3.8	0.0
동남아시아	18.50	17.50	18.55	18.75	7.1	1.1
한국	8.75	8.71	8.57	9.10	4.5	△3.9
중국	125.90	129.40	133.00	133.00	2.8	0.0
수출량	78.23	76.94	74.44	73.82	△4.1	△0.9
미국	40.33	48.18	46.99	45.72	△5.1	△1.2
아르헨티나	11.20	10.75	14.00	14.00	30.2	0.0
중국	15.24	7.55	4.00	5.00	△33.8	0.0
기말재고량	122.46	97.94	122.04	124.68	27.3	8.0
미국	27.60	24.34	52.21	56.27	131.2	7.5
아르헨티나	0.63	0.19	0.50	0.50	163.2	△20.0
EU-25	4.83	3.36	5.63	5.78	72.0	1.3
중국	64.97	43.85	34.95	33.95	△22.6	14.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 2004/05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7.3% 증가한 1억 2,46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2,674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2004/05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3.3% 포인트 증가한 18.4%가 될 전망이다.

2.4. 대두 및 대두박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23만 톤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브라질 남부 대두 생산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 전체의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억 3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7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2.3% 증가한 6,24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7.1%, 브라질이 32.4%, 아르헨티나가 12.3%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97.12	188.81	224.14	219.23	16.1	△2.2
공 급 량	230.38	229.56	261.59	256.64	11.8	△1.9
소 비 량	190.81	190.51	204.90	203.47	6.8	△0.7
교 역 량	61.57	55.59	62.41	62.45	12.3	0.1
기말재고량	40.75	37.41	55.98	52.59	40.6	△6.1
기말재고율	21.4	19.6	27.3	25.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259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741만 톤과 비교하여 4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6.2% 포인트 높은 25.8%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3,725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억 3,6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4,52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32.7%, 아르헨티나가 42.0%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419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21만 톤과 비교하여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3.1%가 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30.12	129.42	138.57	137.25	6.1	△1.0
공 급 량	134.16	133.49	142.08	141.46	6.0	△0.4
소 비 량	129.56	129.08	136.58	136.75	5.9	0.1
교 역 량	42.34	44.20	47.22	45.26	2.4	△4.2
기말재고량	4.07	4.21	3.80	4.19	△0.5	10.3
기말재고율	3.1	3.3	2.8	3.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30.03	229.56	261.59	256.64	11.8	△1.9
기초재고량	33.26	40.75	37.45	37.41	△8.2	△0.1
생산량	197.12	188.81	224.14	219.23	16.1	△2.2
미국	75.01	66.78	85.48	85.48	28.0	0.0
아르헨티나	35.50	33.00	39.00	39.00	18.2	0.0
브라질	52.00	52.60	59.00	54.00	2.7	△8.5
중국	16.51	15.39	18.00	18.00	17.0	0.0
수입량	62.75	53.95	61.70	61.87	14.7	0.3
EU25	16.87	14.63	15.66	15.66	7.0	0.0
일본	5.09	4.69	4.70	4.70	0.2	0.0
중국	21.42	16.93	22.50	22.80	34.7	1.3
소비량	190.81	190.51	204.90	203.47	6.8	△0.7
미국	47.52	44.63	49.08	49.08	10.0	0.0
아르헨티나	24.86	26.62	27.41	26.97	1.3	△1.6
브라질	29.76	32.24	34.17	32.76	1.6	△4.1
EU25	17.87	15.53	16.30	16.30	5.0	0.0
일본	5.32	4.97	4.99	4.99	0.4	0.0
중국	35.29	34.38	38.55	38.85	13.0	0.8
수출량	61.57	55.59	62.41	62.45	12.3	0.1
미국	28.42	24.09	28.44	29.39	22.0	3.3
아르헨티나	8.71	6.71	7.67	7.67	14.3	0.0
브라질	19.73	19.82	21.10	20.25	2.2	△4.0
기말재고량	40.75	37.41	55.98	52.59	40.6	△6.1
미국	4.85	3.06	11.16	10.21	233.7	△8.5
아르헨티나	12.47	12.68	17.10	17.49	37.9	2.3
브라질	15.93	16.80	20.86	18.08	7.6	△13.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5. 3	2005.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34.16	133.49	142.08	141.46	6.0	△0.4
기초재고량	4.04	4.07	3.51	4.21	3.4	19.9
생산량	130.12	129.42	138.57	137.25	6.1	△1.0
미국	34.65	32.95	35.54	35.54	7.9	0.0
아르헨티나	18.59	19.76	20.39	19.76	0.0	△3.1
브라질	21.35	22.78	24.13	23.22	1.9	△3.8
EU25	12.83	11.18	11.73	11.73	4.9	0.0
중국	21.00	20.19	22.79	22.95	13.7	0.7
수입량	41.81	44.00	45.52	44.75	1.7	△1.7
미국	0.15	0.25	0.15	0.15	△40.0	0.0
브라질	0.35	0.27	0.15	0.20	△25.9	33.3
EU25	20.35	21.86	22.25	21.75	△0.5	△2.2
소비량	129.56	129.08	136.58	136.75	5.9	0.1
미국	29.36	29.27	30.30	30.30	3.5	0.0
브라질	8.10	8.28	8.36	8.71	5.2	4.2
인도	1.50	1.12	2.30	2.30	105.4	0.0
EU25	33.02	32.67	33.57	33.11	1.3	△1.4
중국	20.21	19.56	22.04	22.18	13.4	0.6
수출량	42.34	44.20	47.22	45.26	2.4	△4.2
미국	5.46	3.94	5.35	5.35	35.8	0.0
아르헨티나	18.04	18.55	19.94	19.03	2.6	△4.6
브라질	13.61	14.76	15.85	14.81	0.3	△6.6
기말재고량	4.07	4.21	3.80	4.19	△0.5	10.3
미국	0.20	0.19	0.23	0.23	21.1	0.0
아르헨티나	0.35	0.94	0.35	0.92	△2.1	162.9
브라질	0.77	0.78	0.85	0.68	△12.8	△20.0
EU25	0.87	0.85	0.86	0.86	1.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Ⅲ. 국내경제 동향4)

1. 경기

○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다 설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

- 내수경기는 2004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Delta 0.5\%$ 를 기록하는 등 지난 2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민간소비가 4/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0.6% 를 기록하여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함.

- 투자는 금년 1~2월중 건설투자 동행 및 선행지표는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 등으로 부진한 반면,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경제성장률(실질)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2	2003	2004 ¹			
			1/4	2/4	3/4	4/4
G D P 성장률	7.0	3.1	5.3	5.5	4.7	3.3
최종 소비지출	7.6	$\Delta 0.3$	$\Delta 0.5$	0.4	$\Delta 0.1$	0.9
(민 간)	7.9	$\Delta 1.2$	$\Delta 1.3$	$\Delta 0.5$	$\Delta 0.8$	0.6
총고정자본형성	6.6	4.0	2.2	4.3	3.0	$\Delta 1.2$
(건 설)	5.3	7.9	4.9	3.6	1.3	$\Delta 3.4$
(설 비)	7.5	$\Delta 1.2$	0.3	6.2	6.8	2.5
총 수 출	13.3	15.6	26.9	26.9	17.7	9.8
총 수 입	15.2	10.1	12.3	20.7	12.0	11.1

주: 1. 2004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장재봉 연구원(jbcha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수출은 작년 30%대의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두 자리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1/4분기 중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1/4분기 중 무역수지(통관기준)는 68.6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흑자 폭은 전기에 비해 감소함.

○ 2004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3.3%로 둔화됨.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10.4%)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조업(8.0%)과 서비스업(0.6%)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건설업(△2.2%)이 비주거용건물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감소세로 반전됨.
- 2004년 농업부문은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호조로 전년대비 8.7% 증가함. 재배업은 기상여건 호조로 벼 등 주요 작물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축산업도 육우, 양계 등의 생산이 증가함.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3	2004년				
		연간	1/4	2/4	3/4	4/4
전 산 업	3.1	4.6	5.3	5.5	4.7	3.3
농 립 어 업	△5.3	7.4	6.8	3.1	5.3	10.4
제 조 업	5.5	11.4	12.2	13.7	12.0	8.0
건 설 업	8.6	1.7	4.9	3.7	2.2	△2.2
서 비 스 업	1.6	1.3	1.5	1.7	1.3	0.6

자료: 한국은행

- 금년 들어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6.7%)에 비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2월중 생산자제품출하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여 작년 4/4분기(5.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하였음. 그러나 작년 동기간과의 조업일수차를 고려할 경우, 출하도 작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함.
- 2월중 평균가동율은 전월보다 4.7% 감소한 77.2%를 기록하였으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9.1%로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됨.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3	2004		2005		
		연간	4/4분기	1월	2월	1~2월
생 산	5.1	10.4	6.7	14.2	△7.3	3.2
출 하	4.2	9.1	5.8	12.4	△6.1	2.9
(수 출)	12.5	20.0	15.0	21.6	0.8	10.8
(내 수)	0.1	2.9	0.3	6.7	△10.4	△2.0
재 고	5.7	9.4	9.4	12.9	9.1	9.1
평균가동율	78.3	80.3	80.4	81.9	77.2	79.6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2.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4분기중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보임. 1~2월중 소비재판매는 1.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소비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2월중 도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도매판매와 자동차 및 차량 연료 판매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Delta 2.3\%$ 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다소 확대됨.
- 2월중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 증가율은 설수요 이전에 따른 내구소비재 출하의 감소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함.
- 3월중 소비자 평가지수 및 기대지수는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어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함. 한국은행의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가 2003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한 108로 크게 상승함.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3	2004		2005		
	연간	연간	4/4분기	1월	2월	1~2월
도소매 판매	$\Delta 1.0$	$\Delta 0.9$	$\Delta 1.4$	$\Delta 2.9$	$\Delta 1.6$	$\Delta 2.3$
내수용 소비재출하	$\Delta 5.9$	$\Delta 2.4$	$\Delta 4.0$	$\Delta 0.6$	$\Delta 11.7$	$\Delta 6.1$
(내 구 재)	$\Delta 11.5$	$\Delta 7.0$	$\Delta 6.4$	$\Delta 1.7$	$\Delta 18.7$	$\Delta 10.6$
(비내구재)	$\Delta 3.1$	$\Delta 0.2$	$\Delta 2.9$	$\Delta 0.1$	$\Delta 8.3$	$\Delta 4.0$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2004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5%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금년 1~2월 평균은 5.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그간 설비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이었던 운수장비부문 투자가 증가세를 보임.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기관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냄.
 - 향후 설비투자는 투자심리 회복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기계류 수입액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금년 1~2월중 건설투자 동행 및 선행지표는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주택건설 실적은 지난해 8월이후 지속된 증가세가 2월달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1~2월 누계로는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미분양 주택은 두 달 연속 감소세(2월 $\Delta 4.0\%$)를 나타냄.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3	2004		2005		
		연간	4/4분기	1월	2월	1~2월
설 비 투 자	$\Delta 1.2$	3.8	2.5	-	-	-
기계류내수출하	$\Delta 1.1$	$\Delta 1.3$	$\Delta 0.9$	9.3	$\Delta 10.4$	$\Delta 1.2$
국내기계 수주	$\Delta 8.7$	6.8	$\Delta 5.4$	0.8	$\Delta 18.8$	$\Delta 9.0$
건 설 투 자	7.9	1.1	$\Delta 3.4$	-	-	-
건설투자 수주	19.3	$\Delta 5.3$	28.8	14.9	$\Delta 20.0$	$\Delta 2.6$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04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37.3천원으로 전년동기 3,005.8천원에 비해 4.4% 증가하였음. 이는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2% 증가에 그친 것에 주로 기인함.
 - 소득원천별로 보면, 경상소득은 3,008.6천원으로 전년동기의 2,878.0천원에 비해 4.5% 증가함.
 -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2,737.9천원으로 전년동기의 2,651.8천원에 비해 3.2% 증가함.
 -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716.3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9% 증가함.
- 4/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415.6천원으로 전년동기 2,276.4천원에 비해 6.1%(139.2천원)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3.9천원으로 전년동기의 1,921.6천원에 비해 4.8% 증가함.
 - 도시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1,743.7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함.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3	2004				
	연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 득	5.3	5.9	7.6	5.0	6.5	4.4
소비 지출	6.0	5.5	8.0	2.5	6.2	4.8
(식료품)	7.1	7.8	9.3	7.3	8.7	5.1
(교 육)	11.2	5.7	18.3	0.7	4.8	△1.8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수출은 IT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수입도 원자재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 동기(월)대비), 억달러

	2003	2004		2005			
		연간	4/4	1/4 ¹	1월	2월	3월 ²
수출(FOB)	1,938.2	2,538.4	689.4	670.4	224.3	204.2	241.9
(증감율)	19.3	31.0	21.2	13.1	18.1	6.7	14.2
수입(CIF)	1,788.3	2,244.6	616.9	601.8	193.1	182.5	226.2
(증감율)	17.5	25.5	23.6	14.0	19.1	4.5	18.3
무역수지	149.9	293.8	72.5	68.6	31.2	21.7	15.7

주: 1. 2005년 1/4분기중 총수출은 분기 전체기준이며, 품목별 수출은 1~3월 20일까지의 수치임.

2. 2005년 3월중 총수출은 월 전체기준이며, 품목별 수출은 산업자원부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 1/4분기중 수출은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는 지속됨. 한편 3월 수출은 환유하락, 유가상승, 기저효과(Base Effect)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240억불대(241.9억 달러)에 진입함.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43.8%), 석유화학(47.4%), 자동차(27.5%) 등의 수출은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IT관련 품목들의 증가율은 비교적 큰 폭의 둔화세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대중국(22.4%) 수출은 호조세가 유지되었으나, 미국(7.0%) 등 여타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함.

- 1/4분기중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음. 3월중 수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월간기준 사상 최고치인 226.2억 달러를 기록함.
 - 원유는 도입단가는 전기에 비해 상승했으나 도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증가율이 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함.
- 1/4분기중 무역수지(통관기준)는 68.6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흑자 폭은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음. 3월 무역수지는 수입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4.8억불 감소하였으나, 두 자리수(15.7억불)의 흑자를 기록함.

4. 고용

- 3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3,483천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전월대비 490천명이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20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전월에 비해서는 1.1%p 상승함.
-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월대비 증가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1% 감소한 1,708천명을 기록함.
- 실업자 수는 907천명으로 전월대비 18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전월대비 0.1%p 하락함.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4	2005				동월대비 증감률
		1/4분기	1월	2월	3월	
경 제 활 동 인 구 (경제활동참가율)	23,370 62.0	23,159 60.9	22,982 60.6	23,011 60.5	23,483 61.6	△0.2
취 업 자	22,557	22,247	22,078	22,086	22,576	0.9
· 농 림 어 업	1,825	1,525	1,405	1,462	1,708	△4.1
· 광 공 업	4,306	4,278	4,270	4,272	4,293	△0.8
(제 조 업)	4,290	4,260	4,252	4,255	4,274	△0.8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6,427	16,443	16,403	16,352	16,575	1.9
(건 설 업)	1,820	1,692	1,686	1,632	1,759	△3.2
실 업 자	813	912	904	925	907	3.2
실업률(계절조정)	3.5	3.5	3.6	3.5	3.5	

자료: 통계청

5. 물가

-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함.
- 1/4분기중 소비자물가는 전기대비 1.3% 상승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계절적 요인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동절기 출하부진으로 9.9% 상승하였고, 이례적인 요인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석유류가격이 4.0% 상승함.
 - 3월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으로 상승요인이 일부 상쇄되었으며 교육비(납입금 등)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둔화함.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총 지 수	114.7 (3.6)	115.6 (4.3)	115.5 (3.4)	117.0 (3.2)	116.2 (3.1)	116.9 (3.3)	117.8 (3.2)
상 품	114.5 (4.3)	115.8 (5.9)	115.1 (3.7)	117.1 (3.4)	115.9 (3.2)	117.3 (3.7)	118.0 (3.3)
농축수산물	130.3 (8.9)	134.3 (13.0)	129.5 (3.8)	133.3 (3.7)	130.0 (3.1)	134.7 (4.2)	135.3 (2.9)
공업 제품	109.5 (2.6)	110.0 (3.5)	110.7 (3.7)	112.0 (3.3)	111.4 (3.1)	111.9 (3.2)	112.6 (3.5)
서 비 스	114.8 (3.1)	115.4 (3.0)	115.8 (3.1)	116.8 (2.9)	116.4 (3.1)	116.5 (2.9)	117.5 (2.6)
집 세	115.8 (1.6)	116.0 (1.3)	115.9 (0.7)	115.8 (0.2)	115.8 (0.3)	115.8 (0.2)	115.8 (0.2)
공공서비스	111.4 (2.5)	111.9 (2.5)	113.2 (4.1)	114.8 (4.4)	114.8 (5.0)	114.5 (4.6)	115.0 (3.8)
개인서비스	116.3 (4.1)	117.0 (4.1)	117.3 (3.8)	118.5 (3.5)	117.6 (3.4)	118.0 (3.5)	119.9 (3.5)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통계청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2004년 4/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함.
- 3월 농림수산물물가는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1.4% 상승함.
 - 3월 생산자물가는 환율절상과 작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적 영향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총 지 수	107.6 (6.1)	108.5 (7.3)	108.9 (6.5)	109.0 (3.3)	108.6 (4.1)	109.0 (3.2)	109.5 (2.7)
농림수산물	126.0 (12.1)	131.4 (16.7)	116.0 (3.4)	125.4 (2.6)	121.7 (△2.2)	126.4 (△1.6)	128.2 (△3.6)
광 산 품	119.2 (7.6)	120.5 (8.5)	128.8 (17.4)	127.5 (15.4)	127.5 (15.4)	127.5 (15.4)	127.5 (15.4)
공 산 품	105.5 (7.5)	106.5 (9.2)	108.1 (9.6)	107.3 (5.0)	106.9 (6.3)	107.1 (4.7)	108.0 (4.1)
전력/수도/가스	109.0 (0.9)	108.6 (0.6)	111.3 (3.9)	110.0 (1.7)	111.0 (2.3)	110.9 (2.1)	108.2 (0.7)
서 비 스	108.5 (2.8)	108.8 (3.1)	109.1 (2.5)	109.5 (1.3)	109.5 (1.5)	109.4 (1.2)	109.5 (1.2)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 2005년 3월중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4.5%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0.4% 상승함. 이는 반도체, 무선전화기 등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의 가격하락세 지속과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오른데 주로 기인함.

- 농수산물은 수요증가 및 생산감소로 참치, 오징어, 미역 등이 오른 반면, 공급증가 및 환율하락으로 조개, 밤이 내려 전월대비 1.2% 하락함.

- 공산품은 수요부진 및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통신장비제품, 섬유 의복, 일반기계 등 대다수 제품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크게 오름.

수출물가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4/4	1/4	1월	2월	3월
농 수 산 품	120.4 (16.9)	115.8 (△1.1)	101.0 (△16.5)	102.7 (△18.5)	100.7 (△16.8)	99.5 (△14.1)
공 산 품	92.7 (6.1)	92.5 (5.1)	86.8 (△4.8)	86.7 (△5.2)	86.6 (△4.7)	87.0 (△4.4)
원 자 재	94.5 (12.3)	96.5 (12.8)	90.7 (0.2)	90.1 (△0.4)	90.5 (0.2)	91.4 (0.7)
자 본 재	81.6 (△4.6)	77.0 (△8.4)	72.1 (△13.9)	73.0 △13.4	72.0 (△13.5)	71.3 (△14.7)
소 비 재	94.7 (△1.9)	91.1 (△6.0)	85.1 (△12.6)	86.0 △13.1	84.9 (△12.6)	84.5 (△12.1)
총 지 수	92.9 (6.2)	92.7 (5.0)	86.9 (△4.9)	86.9 (△5.4)	86.8 (△4.9)	87.1 (△4.5)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1~2월중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원자재가격의 큰 폭 상승을 원화가치 상승이 부분적으로 상쇄함에 따라 전월대비 0.4%의 낮은 상승세를 보임. 3월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3.2%,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함.

- 이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으로 자본재(△1.2%)가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 및 수요증가 등으로 원자재(3.9%) 및 소비재(1.4%)가 오른데 기인함.

- 기초원자재 중 농작물은 작황호조 및 원화환율 하락으로 밀, 쌀, 원면 등은 내렸으나 수요증가와 해상운임상승 및 기상악화 등으로 대두, 옥수수, 원당, 커피두가 올라 전월대비 2.8% 상승함.

수입물가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4/4	1/4	1월	2월	3월
농 립 수 산 품	128.0 (9.3)	120.8 (△3.7)	114.5 (△12.9)	114.9 △12.2	113.9 △12.8	114.8 △13.7
광 산 품	129.8 (21.3)	135.9 (25.3)	140.4 (22.7)	132.9 (17.0)	137.3 (23.0)	151.1 (27.9)
공 산 품	101.5 (6.5)	101.0 (3.9)	95.0 (△6.4)	95.3 (△5.8)	94.6 (△6.9)	95.0 (△6.5)
원 자 재	110.5 (12.2)	111.8 (11.1)	108.4 (2.1)	106.5 (1.1)	107.2 (1.5)	111.4 (3.6)
자 본 재	98.1 (△0.6)	94.8 (△5.8)	89.5 (△11.2)	90.8 (△11.1)	89.4 (△11.1)	88.4 (△11.3)
소 비 재	112.0 (5.1)	110.9 (2.6)	106.7 (△3.8)	106.0 (△5.4)	106.3 (△2.7)	107.8 (△3.3)
총 지 수	108.9 (10.2)	109.5 (8.4)	105.8 (0.1)	104.4 (△0.8)	104.8 (△0.3)	108.2 (1.4)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6. 금융 및 외환

- 1~2월중 주요통화지표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M3의 증가율은 정부부문에서의 통화공급 지속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문 통화공급 규모가 감소하여 6% 내외에서 유지됨. M1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월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MMF 자금유입이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결제자금의 수요증가 및 수시입출식 예금 등으로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1~2월중 6.7%를 기록함.

통화지표 증감률(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연간	3/4	4/4	1/4 ³	1월	2월	3월
M1 ¹	8.1	8.6	7.2	6.7	5.6	7.7	7%후반
M2 ²	4.2	5.0	5.2	5.3	5.3	5.3*	5%내외
M3	5.8	6.2	6.3	6.0	6.1	5.8*	5%중반
본원통화	4.3	2.4	3.3	1.5	△2.5	5.3	1.8*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2005년 1/4분기 값은 본원통화를 제외하고 1-2월 평균값임.

*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1/4분기중 장기금리는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급등하였으나 정부의 채권물량 조절 등에 기인하여 하락 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국고채 수익률은 2월중 급등하였으나 국채 물량의 축소 및 저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3월말 현재 안정되고 있음.
- CD(3개월)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는 대체로 전월달 수준을 유지하여 3.5%를 기록함.

금리

단위: %

	2004			200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콜 금 리	3.50	3.34	3.25	3.24	3.25	3.22
CD유통수익률	3.52	3.42	3.39	3.47	3.59	3.55
회사채유통수익률	4.01	3.86	3.73	4.11	4.63	4.48

자료: 재정경제부

-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주식투자 순매도 전화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로 전환됨.
- 3월말 원/달러 환율은 1,015.5원으로 전월말대비 9.5원 상승하여 월중으로는 0.9% 절하되었음. 월중 원/달러 환율은 1,000~1,010원 범위내에서 등락하다가, 3월 22일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1,023.6원까지 상승함. 이후 월말 수출대금 공급 및 차익실현 매물로 큰 폭 하락하여 상승폭이 축소됨.
 - 원/엔 환율은 3월말 현재 947.74원으로 전월말대비 13.56원 하락하여 월중 1.4% 절상됨.

달러 환율

단위: 원(기말 기준)

	2004				2005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달러	1,147.9	1,122.3	1,047.9	1,043.8	1,026.4	1,008.1	1,024.3
원/100엔	1,033.5	1,061.8	1,018.3	1,012.1	990.1	957.6	952.5

자료: 한국은행

IV. 농촌경제 동향5)

1. 농촌물가

- 2005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2.8%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4		2005		등락률(%)	
		1월	2월	1월	2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 지 수	1000	126.9	128.4	113.2	116.4	△9.3	2.8
곡 물	388	106.6	109.0	98.5	98.9	△9.3	0.4
미 곡	349.6	101.8	102.9	95.8	96.0	△6.7	0.2
맥 류	10.4	104.0	104.0	99.8	99.8	△4.0	0.0
잡 곡	4.2	108.8	108.7	108.2	107.9	△0.7	△0.3
두 류	8.4	124.2	127.3	121.7	122.1	△4.1	0.3
서 류	15.4	206.8	241.6	144.1	148.1	△38.7	2.8
청 과 물	328.2	132.1	134.4	108.9	114.2	△15.0	4.9
채 소	207.2	152.2	154.1	100.4	105.2	△31.7	4.8
과 실	121	97.8	100.6	123.4	129.6	28.8	5.0
축 산 물	225.2	150.8	149.1	143.6	147.5	△1.1	2.7
가 축	196.5	157.9	155.9	147.0	151.5	△2.8	3.1
유 란	28.7	102.4	102.2	120.0	120.2	17.6	0.2
기 타	58.6	140.7	144.3	117.8	124.8	△13.5	5.9
특 작	45.3	124.1	122.2	118.2	119.4	△2.3	1.0
화 훼	12.7	201.1	224.3	115.1	143.3	△36.1	24.5
부산물	0.6	118.5	118.5	142.8	142.8	20.5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장재봉 연구원(jbcha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8.9로서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품목별로는 일반미, 콩, 고구마, 감자 등은 상승하였으며 찹쌀, 팥 등은 하락함.
 - 청과물의 가격지수는 114.2로서 전월대비 4.9% 상승하였음.
 - 채소류는 배추(14.1%), 무(8.7%), 양파(32.1%), 파(24.7%), 오이(22.5%), 풋고추(21.7%), 토마토(10.8%) 등이 상승하였고, 상추($\Delta 6.4\%$), 당근($\Delta 9.0\%$), 딸기($\Delta 9.3\%$) 등은 내려 전월대비 4.8% 상승하였음.
 - 과일류는 배(9.1%), 감귤(14.4%), 단감(20.6%) 등이 올랐으며 사과($\Delta 2.7\%$)가 내려 전월대비 5.0% 상승함.
 - 축산물은 한우암소(0.4%), 한우수소(1.2%), 유우(2.9%), 한우암송아지(1.5%), 돼지(1.2%), 닭(15.5%), 계란(1.3%)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2.7% 상승함.
- 2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전월대비 0.3% 상승한 122.4를 기록함.
- 가계용품은 식료품(1.9%), 광열수도(1.1%), 교육비(0.6%)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7% 상승함.
 - 농업용품은 영농광열(0.5%), 가축(3.0%) 등이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배합사료($\Delta 4.0\%$)가 전월대비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0.2% 하락함.
 - 농촌임료금은 농업노동임금(0.2%), 기타임금(0.1%)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4		2005		증감률(%)	
		1월	2월	1월	2월	전 년 동 월 대 비	전 월 대 비
총지수	1000	116.2	117.8	122.0	122.4	3.9	0.3
가계용품	559.3	114.4	114.8	119.3	120.1	4.6	0.7
식료품	100.7	120.4	121.8	127.9	130.3	7.0	1.9
피복및	27.6	107.9	108.2	107.7	107.8	△0.4	0.1
가구집기및	42.2	93.3	93.3	95.8	95.8	2.7	0.0
광열수도	50	117.2	118.7	124.8	126.2	6.3	1.1
보건의료	79.5	117.2	117.2	120.1	120.2	2.6	0.1
교육	111.1	121.5	121.5	128.2	129.0	6.2	0.6
교양오락	7.9	104.2	103.7	104.1	104.2	0.5	0.1
교통통신	109.4	108.4	108.8	110.4	110.7	1.7	0.3
기타잡비	30.9	115.3	115.2	126.3	126.2	9.5	△0.1
농업용품	359.4	119.2	123.1	126.7	126.5	2.8	△0.2
종자	19.6	96.8	97.1	97.1	97.1	0.0	0.0
비료	34.2	100.2	108.6	121.7	121.7	12.1	0.0
농약	39.8	100.3	100.3	95.1	95.1	△5.2	0.0
농기구	93.3	100.8	100.8	105.8	105.8	5.0	0.0
영농광열비	28	117.4	118.0	131.4	132.1	11.9	0.5
가축	45.8	221.4	220.2	198.3	204.2	△7.3	3.0
사료	63.4	111.4	124.9	131.4	126.2	1.0	△4.0
영농자재	35.3	103.0	110.8	133.3	133.3	20.3	0.0
농촌임료금	81.3	115.2	115.4	120.4	120.5	4.4	0.1
농업노동임금	36.8	114.8	115.1	121.9	122.2	6.2	0.2
기타임금	2.2	120.8	120.7	125.3	125.4	3.9	0.1
도정료	7.4	115.4	115.4	121.4	121.4	5.2	0.0
농기계임차료	34.9	115.2	115.4	118.3	118.3	2.5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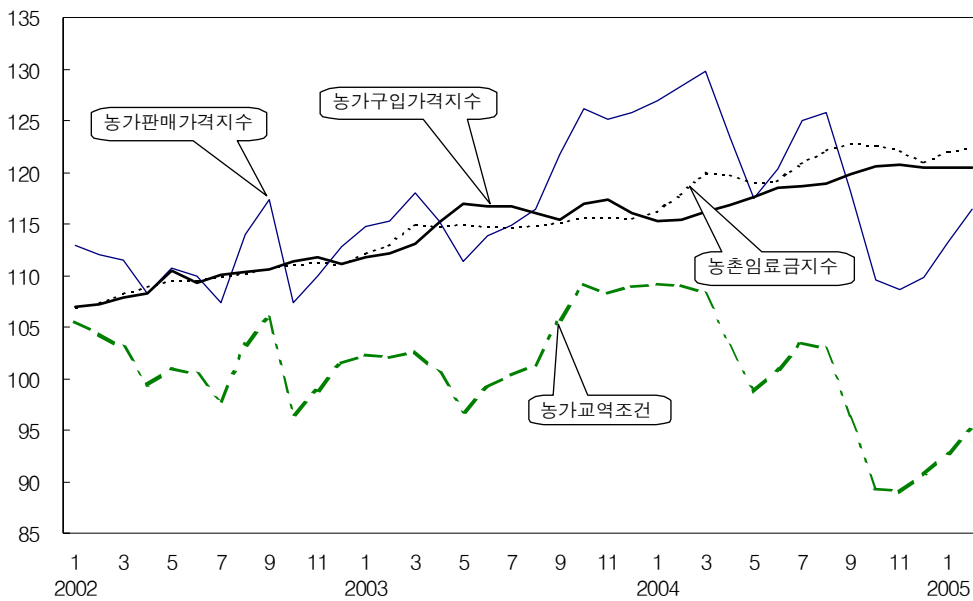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6.4, 구입가격지수가 122.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95.1로 나타나 전월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13.9% 악화됨.

농가교역조건 변화

	2004		2005		등락률(%)	
	1월	2월	1월	2월	전년동월	전월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26.9	128.4	113.2	116.4	△9.3	2.8
농가구입가격지수(B)	116.2	117.8	122.0	122.4	3.9	0.3
농가교역조건(A/B*100)	109.2	109.0	92.8	95.1	△13.9	2.3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2005년 1/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5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함.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 1.0% 감소함.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4			2005	증감률(%)	
		연간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경제활동 인구		23,370	22,982	23,534	23,159	1.2	0.4
취업자	전 산 업	22,557	22,104	22,733	22,247	0.6	△2.1
	농림어업	1,823	1,609	1,789	1,525	△5.2	△14.8
	농 가	1,597	1,420	1,567	1,360	△4.2	△13.2
	비농가	228	188	222	165	△12.5	△25.8

자료: 통계청

- 1/4분기 중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농가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농외취업자수는 37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전기대비 10.0% 증가함.

농가의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2004			2005	증감률(%)	
	연간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기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1,823	1,609	1,789	1,525	△5.2	△14.8
농외취업자	327	370	339	376	1.6	10.9

자료: 통계청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2004년 농림축산물 수출은 2억 8,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함. 신선농림축산물 가운데서는 채소(26.1%), 김치(10.2%), 인삼(33.8%), 화훼(7.2%), 과실(21.5%) 등이 증가하였으며, 가공농림축산물 중에서는 면류(9.7%), 주류(17.5%), 과자류(23.1%) 등이 증가함.
- 2005년 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3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함.
 - 신선농림축산물중에서는 가금육(200.0%), 화훼(130.9%), 과실(57.1%), 채소(23.8%) 등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인삼(Δ 12.0%), 돼지고기(Δ 81.0%)는 감소함.
 - 가공농림축산물은 과자류, 목재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3.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	2004. 1~2	2005. 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2,085.0	310.0	320.9	3.5
농 산 물	1,758.5	267.8	284.9	6.4
축 산 물	162.7	25.3	23.1	Δ 8.7
임 산 물	163.9	16.9	12.9	Δ 23.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3	2004	2005 (목표)	2004. 1~2	2005. 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00.6	127.0	132.0	18.4	23.6	28.3
김 치	93.2	102.7	112.0	17.3	18.4	6.4
인 삼	66.6	89.2	100.0	7.5	6.6	△12.0
화 휘	45.3	48.5	54.0	5.5	12.7	130.9
과 실	70.5	85.7	85.0	13.3	20.9	57.1
돼지고기	31.3	27.3	27.0	6.3	1.2	△81.0
가 금 육	5.7	3.5	5.0	0.2	0.6	200.0
산림부산물	96.2	67.0	85.0	1.8	3.3	83.3
가공식품	1,269.5	1,437.2	1,605.0	224.6	224.0	△0.3
목 재 류	80.9	96.9	95.0	15.1	9.6	△36.4
합 계	1,859.8	2,085.0	2,300.0	310.0	320.9	3.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수입동향

- 2004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1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4% 증가함. 이 중 농산물과 임산물은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감소함.
- 2005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17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주요 품목별로는 돼지고기(101.8%)와 쇠고기(53.8%)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두와 닭고기의 수입은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4. 1~2	2005. 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11,526.7	1,683.6	1,788.9	6.3
농 산 물	7,444.6	1,091.5	1,119.6	2.6
축 산 물	1,755.3	222.9	326.7	46.6
임 산 물	2,326.8	369.2	342.7	△7.2

자료: 농림부

주요 품목의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3	2004	2004. 1~2	2005. 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옥 수 수	1,054.6	1,437.5	175.4	172.1	△1.9
밀	612.1	665.2	80.2	114.7	43.0
대 두	410.7	487.4	72.8	53.1	△27.1
쇠 고 기	1,177.0	600.4	72.9	112.1	53.8
돼지고기	195.9	352.5	39.8	80.3	101.8
닭 고 기	95.0	55.5	10.0	7.8	△22.0

자료: 농림부

- 2월까지 주요 열대과일 수입은 오렌지와 바나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5.6%와 1.4% 감소하였으나 키위, 파인애플, 포도 등은 증가하였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3	2004	2004. 1~3	2005. 1~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12.6	136.7	72.1	53.7	△25.5
키위	22.5	44.7	1.7	2.2	31.6
포도	17.7	16.9	5.0	6.9	39.5
파인애플	16.4	24.4	5.5	8.3	49.4
바나나	90.7	86.7	22.0	28.6	30.0
레몬	3.9	4.4	0.7	1.1	46.2

자료: 한국무역협회

4.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4년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금액 기준으로 23.0%, 물량기준으로 51.1% 감소함. 이는 농산물 수입물량의 큰 감소에 기인함.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636.7	2,321.0	6,174.5	1,787.1	△51.1	△23.0
농산물	10,354.4	1,725.5	3,824.6	1,125.2	△63.1	△34.8
축산물	21.5	38.5	23.4	38.3	8.8	△0.5
임산물	2,260.8	557.0	2,326.5	623.6	2.9	11.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3	2004	2004. 1~2	2005. 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과 자 류	12.5	25.1	2.9	6.5	124.1
면 류	18.0	16.8	3.0	1.7	△43.3
당 류	24.3	30.2	3.3	3.5	6.1
화 훼 류	10.0	8.0	0.8	8.5	962.5
커 피 류	7.6	11.6	1.6	1.9	18.8
합 관	15.3	20.9	3.9	1.9	△51.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월까지 중국으로 난초,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등)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함.
- 2004년 1~2월 2,640만불 → 2005년 1~2월 3,360만불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동향

- 2월까지 대일 수출은 1억 800만불로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선농림축산물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 신선농산물의 경우 과실(88.2%), 채소(42.2%), 산림부산물(25.0%) 등은 증가한 반면 화훼(△14.6%), 인삼(△30.0%), 돼지고기(△50.0%)는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은 목재류(△32.7%)와 주류(△15.0%), 당류(△12.7%) 등 가공식품의 수출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함.

대일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3	2004	2004.1~2	2005.1~2	비중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76.0	97.0	13.5	19.2	81.4	42.2
김 치	87.2	96.9	16.4	17.7	96.2	7.9
인 삼	29.2	32.8	4.0	2.8	42.4	△30.0
화 훼	29.7	36.2	4.1	3.5	27.6	△14.6
과 실	7.0	11.4	1.7	3.2	15.3	88.2
돼지고기	0.9	4.5	0.2	0.1	8.3	△50.0
가금육	4.5	2.2	0.2	0.2	33.3	0.0
산림부산물	66.8	36.1	0.8	1.0	30.3	25.0
가공식품	329.1	385.7	57.2	57.1	25.5	△0.2
목재류	27.1	25.8	4.9	3.3	34.4	△32.7
합 계	657.5	728.6	103.0	108.1	33.7	5.0

주: 비중은 전체 수출 중 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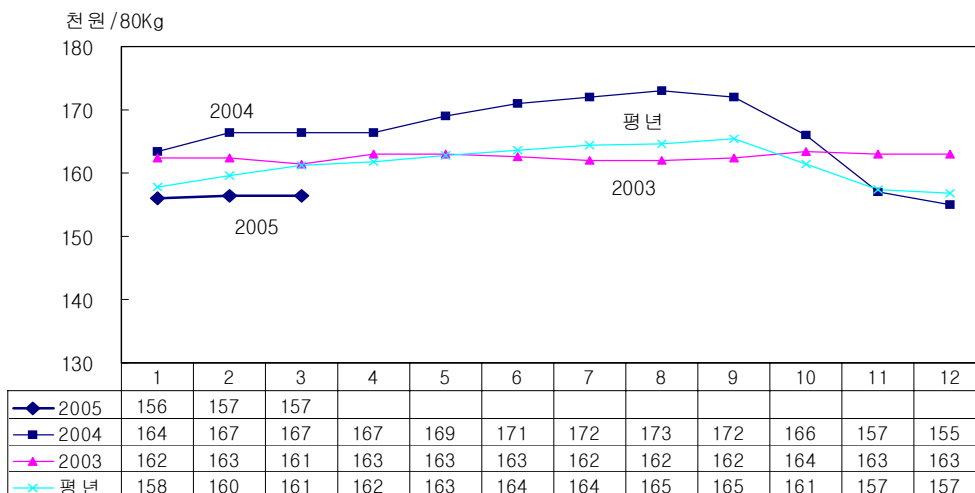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⁶⁾

1.1. 쌀

- 2004년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 1,158ha로 전년도 재배면적 101만 6천 ha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나, 쌀 생산량은 500만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 445만 1천 톤에 비해 12.3% 증가함.
- 2004년 4/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 도매가격은 2005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 3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전라미, 상품기준) 80kg 당 15만 7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6.0% 하락하였으며, 평년 대비 3.0% 하락함.

쌀 도매가격 동향 (전라미, 상품 기준)



주: 평년은 2000~04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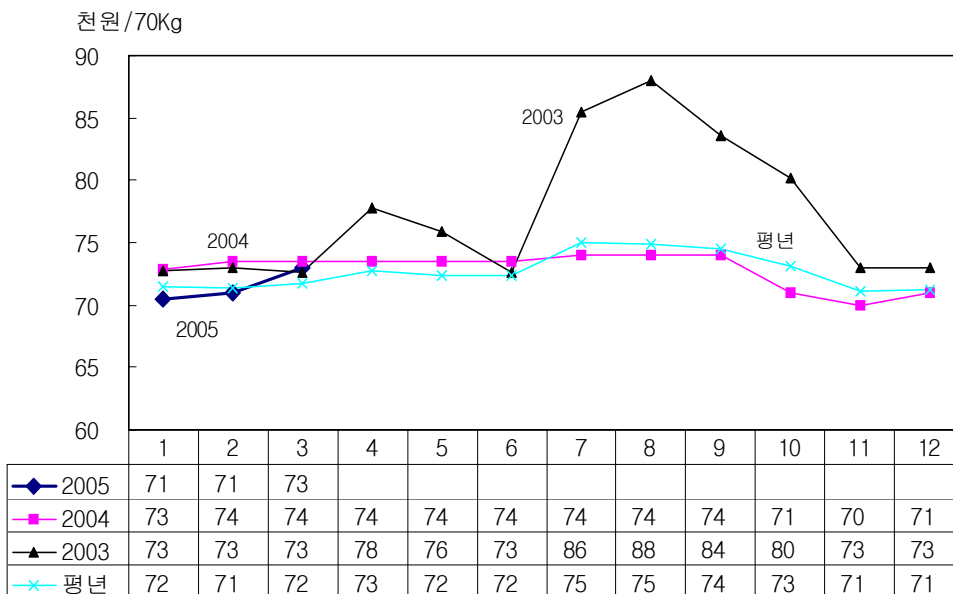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장재봉 연구원(jbcha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1.2. 보 리

- 2004년도 보리(쌀보리) 재배면적은 2만 6,552ha로 전년도 2만 3,828ha에 비해 11.4% 상승하였으며, 생산량은 11만 9,500톤으로 전년도 8만 8,400톤에 비해 35.3% 증가하였음.
- 쌀보리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은 수매물량 계약 체제가 면적에서 물량단위로 처음 바뀐 지난해, 수매량이 약정물량보다 부족하게 되자 전국 쌀보리 재배면적의 92%를 점하고 있는 전남·북 지역에서 지난해 부족물량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을 늘린데 기인함
- 2004년도 4/4 분기 들어 하락하기 시작한 평균 보리(쌀보리, 상품 기준) 도매가격은 2005년 2월까지 7만원대를 유지하다 3월 들어서 소폭 상승하여 평년대비 1.8% 상승하였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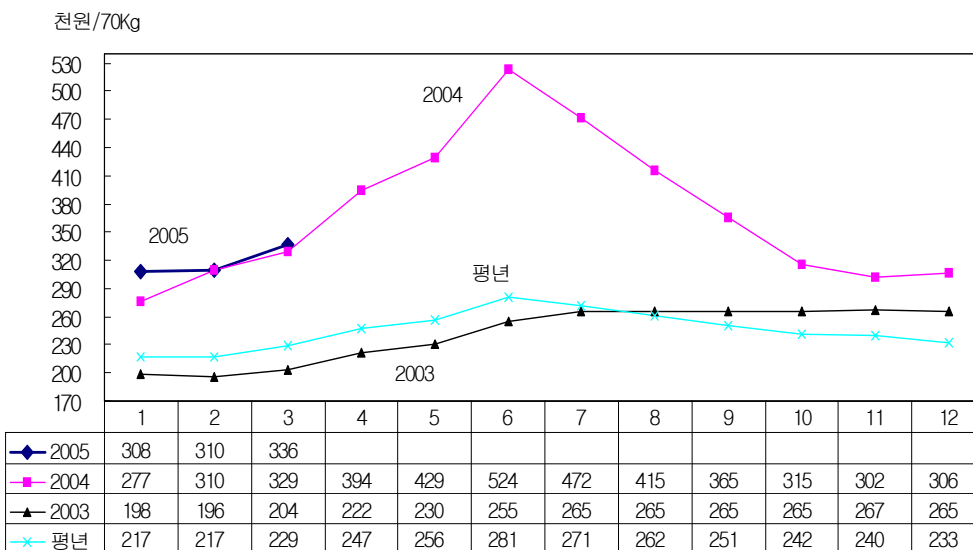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0~04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2004년도 콩 재배면적은 8만 5,270ha로 전년도 8만 447ha에 비해 6.0%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13만 8,570톤으로 전년도 10만 5,089톤에 비해 31.9% 증가하였음.
- 2005년 3월 현재 대두 평균 도매가격(국산 백태, 상품기준)은 70kg당 33만 6,296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하였음.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주: 평년은 2000~04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사료곡물

- 2004년도 사료곡물 수입량은 72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한 12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5년 1~2월중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95만 8,000톤으로 전년 동기의 102만 톤에 비해 6.1% 감소하였으나 단가의 인상으로 수입액은 크게 변동이 없었음. 한편, 사료용 밀 수입량은 22만 1,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7%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수입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196.3% 증가한 3,230만 달러에 달하였음.

주요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2003	2004	2004.1~2	2005.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수수	수입량	천톤	6,605	6,279	1,020	958	△6.1
	수입액	백만US\$	773	1,047	138.8	138.8	0.0
밀	수입량	천톤	1,372	953	73	221	202.7
	수입액	백만US\$	150	165	10.9	32.3	196.3
계	수입량	천톤	7,977	7,232	1,093	1,179	7.9
	수입액	백만US\$	923	1,212	149.7	171.1	14.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⁷⁾

2.1 배 추

- 배추의 1/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164만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높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35% 낮은 수준이었음.
- 1/4분기 가격이 평년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 4/4분기 이후 배추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홍승지(hseungj@krei.re.kr), 한석호(shohan), 김성우(swookim) 전문연구원, 송성환(song9870), 전상수(ssj), 박영구(ygpark)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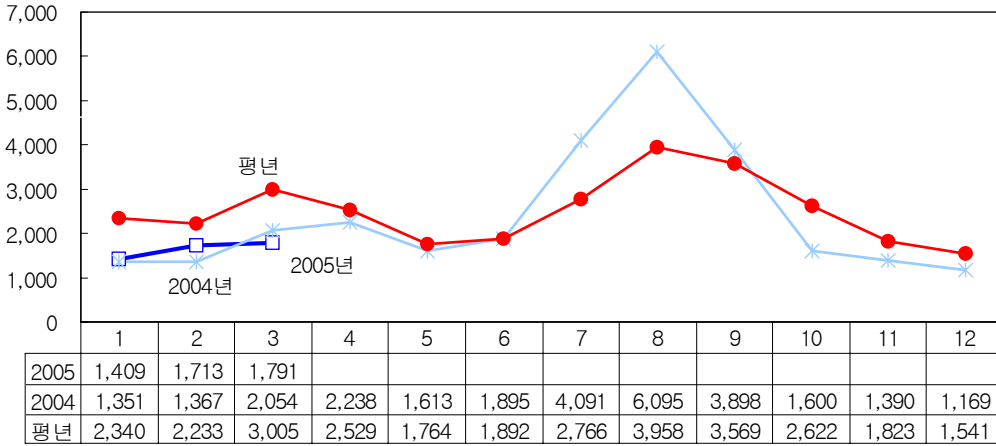
가격 하락으로 가을배추 출하가 지연된데다, 월동배추 출하량도 많았기 때문임.

-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난해 봄배추 출하기 및 금년 봄배추 정식기 가격이 낮아 농가들이 재배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임.
- 2월까지 정식한 시설면적은 작년보다 16% 감소하였고, 3월에는 작년보다 9%, 4월에는 5% 적을 것으로 조사됨.
- 시설배추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작황은 양호하나, 생육기 저온의 영향으로 추대발생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4월 이후 출하될 월동배추 저온저장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봄배추 출하물량이 작년보다 14% 내외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물량은 작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4월 이후 도매가격은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10% 이상, 평년 동기보다는 2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강원이 작년보다 7%, 호남이 10%, 영남은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작년 고랭지배추 출하기에 가격이 크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의향면적이 감소한 것은 작년 여름철 고온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아 배추의 재배규모를 줄이고 인삼, 오이, 호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려 하기 때문임.

- 월별 정식의향면적은 4~5월에 작년보다 5%, 6월 9%, 7월 이후에는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 원/5톤트럭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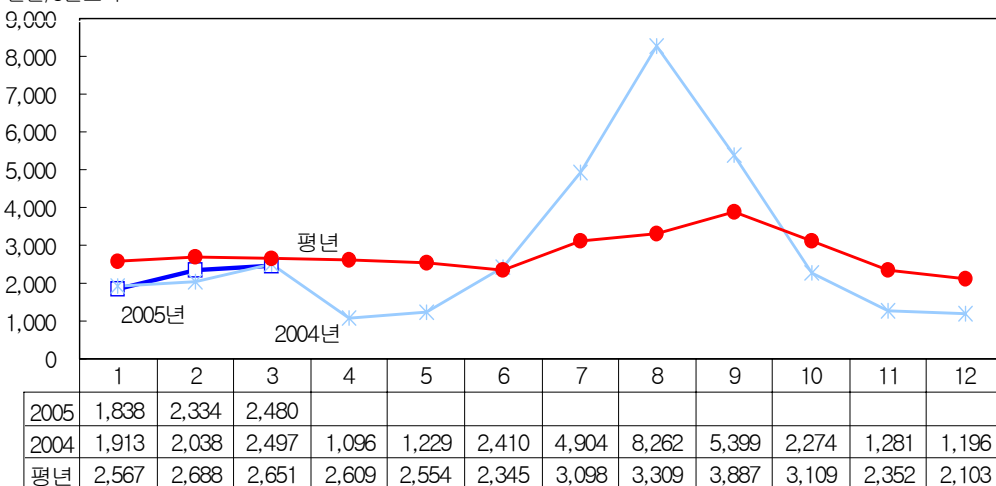
2.2 무

- 무의 1/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22만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높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16% 낮은 수준이었음.
 - 1/4분기 가격이 평년보다 낮았던 것은 호남산 저장 물량이 많은 데다, 제주도 월동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임.
-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난해 봄무 출하기 및 금년 봄무 파종기 가격이 낮아 농가들이 재배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임.

- 2월까지 파종한 시설면적은 작년보다 22% 감소하였고, 3월에는 작년보다 13%, 4월에는 7% 적을 것으로 조사됨.
- 시설봄무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5%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4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제주도 월동무의 산지 출하대기물량과 저온저장물량은 작년보다 15% 내외 많으나, 시설봄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17%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4월 이후 도매가격은 가격이 크게 낮았던 작년 동기와 비슷하나, 평년 동기보다는 50% 내외 낮을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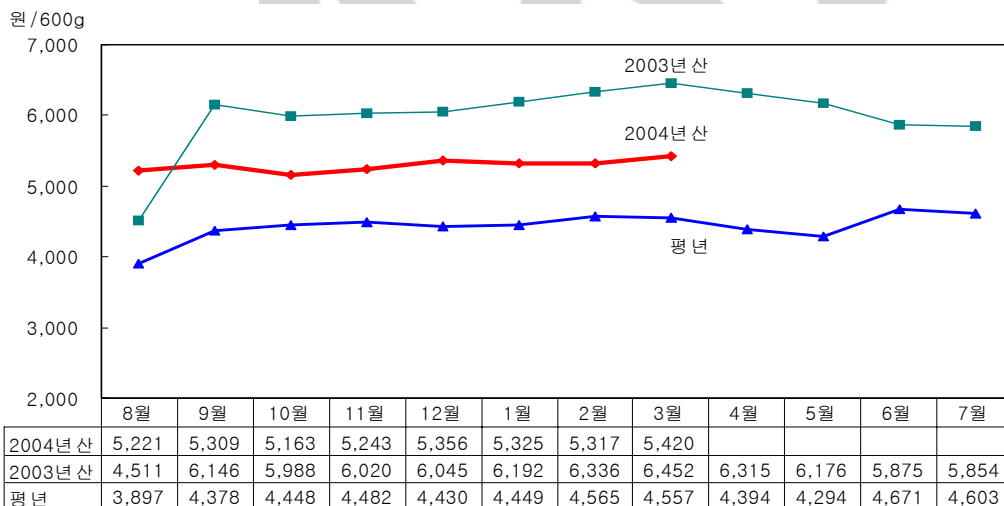
-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강원이 작년보다 6%, 호남이 9%, 영남은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작년 고랭지무 출하기에 가격이 크게 높았음에도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것은 작년 여름철 고온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무의 재배규모를 줄이고 콩, 더덕, 양채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려 하기 때문임.
- 월별 재배의향면적은 5월과 7월에는 작년보다 6% 내외 감소하는 반면, 6월에는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6월에 파종한 무의 출하기(8~9월) 가격이 크게 높았기 때문임.

2.3 고 추

- 건고추의 1/4분기 도매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5,3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15% 낮은 반면, 전년의 4/4분기보다 2%, 평년 동기보다 40% 높은 수준이었음. 이처럼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작년 보다는 낮았으나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2004년산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하여 공급량이 평년보다 적었기 때문임.
- 작년 8월~금년 3월까지 건고추 수입량은 9,800톤으로 작년 동기(1만 1,400톤)보다 14% 적었으나, 고추관련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고추의 수입량을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은 4만 3천톤으로 전년 동기(2만 4천톤)보다 26%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고추 수입량은 작년 동기(4만 5,600톤)보다 16% 많은 5만 2,900톤이었음.
- 작년 8월~금년 3월까지 고추의 공급량은 21만 4,800여톤, 소비량은 17만 4,300여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9% 내외 많은 수준이었음. 3월의 재고량은 4만 55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동기(3만 5,300톤)보다 15% 많은 수준임.

- 3월말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 가능한 중국의 익도산 고추 재고량은 4만톤으로 작년 동기(3만톤)보다 33%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3월말 현재 중국 산지 가격은 톤당 8,000元으로 작년 동기(17,000元)보다 2배 이상 낮은 반면, 지난달(7,000元)보다는 다소 상승하였음. 이는 중국의 2004년산 고추 생산량이 전년산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며, 지난달보다 상승한 것은 한국의 유통공사 입찰 물량이 늘어나 수입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국내 고추 재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15% 많고, 수입도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향후 고추 가격은 작년보다 낮겠으나 지난달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월 조사에서는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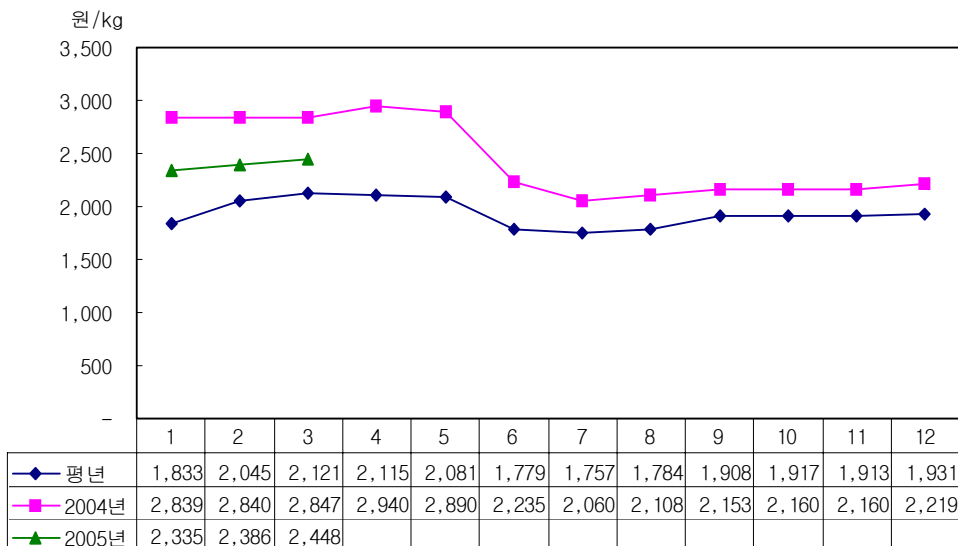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9.8~2004.7월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4. 마늘

- 마늘의 1/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2,39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단경기인 4/4분기보다 10%, 평년 동기보다 19% 높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16% 낮은 수준임.
- 이처럼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 동기보다 저온저장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마늘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늦추어 1~3월의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았기 때문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정부는 2005년 TRQ 1만 4,467톤 중 3월에 2,000톤을 수입함에 따라 3월말 현재 정부비축물량은 2,000톤임.

- 3월말 현재 마늘의 총재고량은 정부보유량 2,000톤과 부패율(10.2%)을 고려한 민간저온저장량 1만 3,800톤을 합한 1만 5,8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 3,000여톤 많은 수준임.
- 중국의 금년산 마늘재배면적은 작년산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상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현재 중국의 수출 가능한 마늘 저장량은 창산 1만톤, 금향 2만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온저장품이 출하되고 있는 3월말 현재 중국 산지가격은 지난달과 같은 톤당 242달러로 조사됨. 다진마늘은 톤당 450~480달러, 냉동마늘은 45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산 마늘의 국내수입원가는 신선·냉장마늘이 kg당 2,300원, 깎마늘은 2,430원 수준이며, 도매원가는 신선마늘이 2,540원, 깎마늘은 2,680원으로 추정됨.
- 국내가격이 작년보다 낮아 민간수입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3,000여톤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4월 이후 난지형 마늘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5% 증가한 3만 1,700ha로 추정됨.(농업관측정보센터, 3월 20일 지역모니터 조사치). 이처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임.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6%, 난지형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 생육상황 조사결과, 평당 주수는 작년보다 0.3주 적으나, 평년보다 1.2주 많고, 초장은 작년보다 1.7cm, 평년보다 0.7cm 짧으며, 잎수는 작년보다 0.2매, 평년보다 0.1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산 마늘의 예상단수는 월동 초기에는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좋았으나, 1월 이후 저온으로 고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산보다 3%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마늘 단수는 구비대기인 4월 중순 이후의 기상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금년산 마늘의 포전거래가격은 3월말 현재 평당 6,000~7,500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동기(6,500~8,000원)보다 다소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앞으로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추정재배면적에 예상단수를 적용할 경우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36만 4,000톤 내외로 작년산 생산량 35만 7,824톤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생산량이 작년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물량도 깎마늘과 냉동마늘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확기인 5~7월의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금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작년대비 증감률(%)
한지형	6,410	751	48.1	5.0
난지형	25,290	1,249	315.8	1.2
전 체	31,700	1,148	363.9	1.7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2.5 대 파

- 대파의 1/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680원으로 작년의 4/4분기보다 4% 높은 반면, 작년 동기보다는 51%, 평년 동기보다는 26% 낮은 수준임. 이처럼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것은 주출하지인 남부지방의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1~2004.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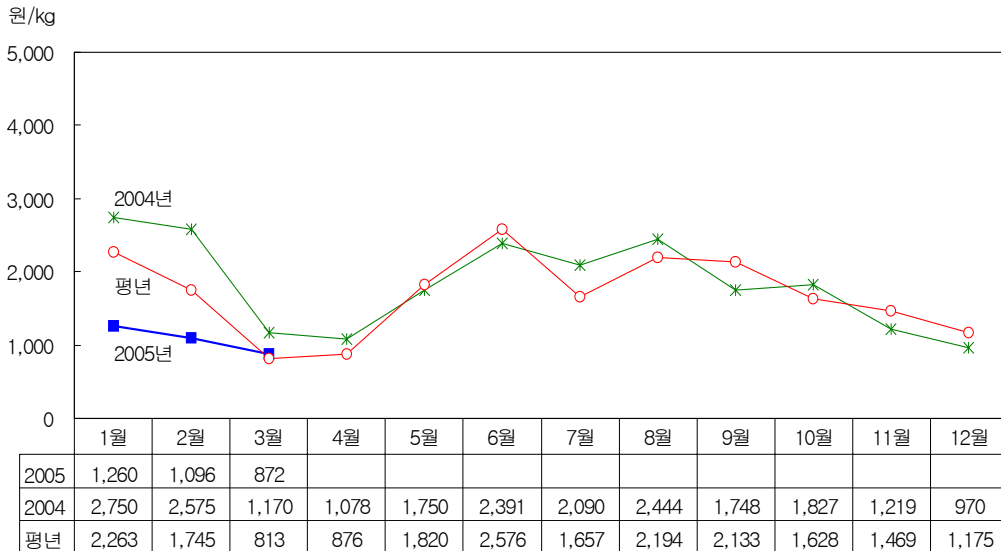
- 3월말 현재 남부지방의 겨울대파 출하대기 면적이 많고 작황도 좋아 4월 상순까지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낮고, 중순 이후의 월동대파 출하량도 많아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5~6월의 봄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정식기 대파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작년 동기보다 4%, 7~8월의 여름대파는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2.6 쪽 파

- 쪽파의 1/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080원으로 지난 4/4분기보다 20%, 평년 동기보다 33%, 가격이 비교적 높았던 작년 동기보다는 50% 낮은 수준이었음. 쪽파 가격이 평년과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 9월 이후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지연으로 금년 1/4분기의 출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 평균임. 1~3월 가격은 10kg(박스) 가격을 1kg으로 환산한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월 20일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4월의 쪽파 출하 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하고, 작황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작년 동기보다 나빠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4% 적을 것

으로 조사됨. 그러나 3월 하순부터 기온이 상승하였고 4월의 적정 강우로 생육이 활발해지면서 작황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4월의 쪽파 출하예상량은 3월 20일 조사치(작년 동기대비 7%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4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9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6월 구쪽파 수확예상면적은 제주지역의 작년 9월 집중호우와 해수피해를 입은 당근포장에 파종된 쪽파가 가격 하락으로 잎쪽파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작년 동기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5~6월 봄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7% 증가하나, 7~8월의 여름쪽파는 가격 하락으로 파종의향면적이 감소하면서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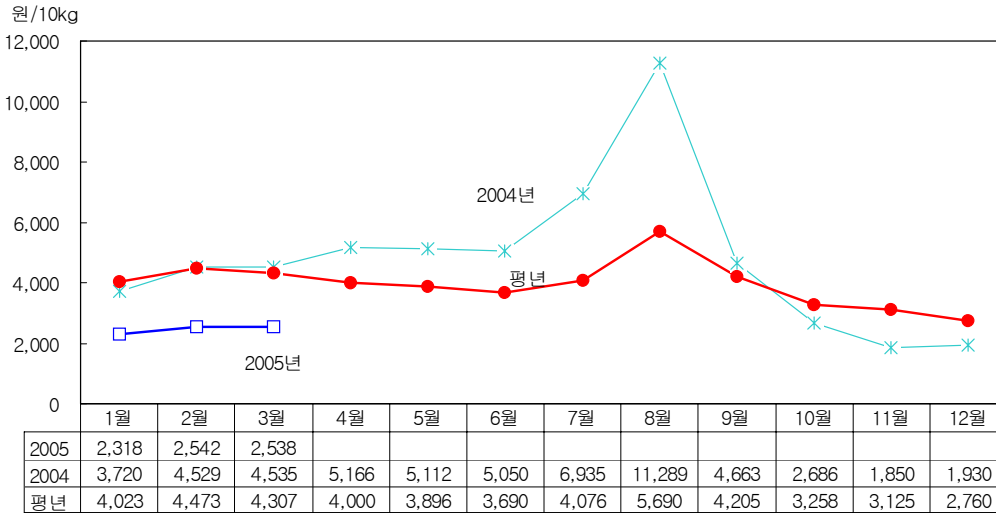
2.7 양배추

- 1/4분기 양배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2,466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42% 낮은 수준임.
- 1/4분기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크게 낮았던 것은 주산지인 호남지역과 제주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생육기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4월의 양배추 출하량은 금년 겨울철 양배추 가격의 하락으로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지물량과 저온저장물량을 감안한 4월의 양배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4%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한 2,5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봄양배추의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하고, 고랭지양배추의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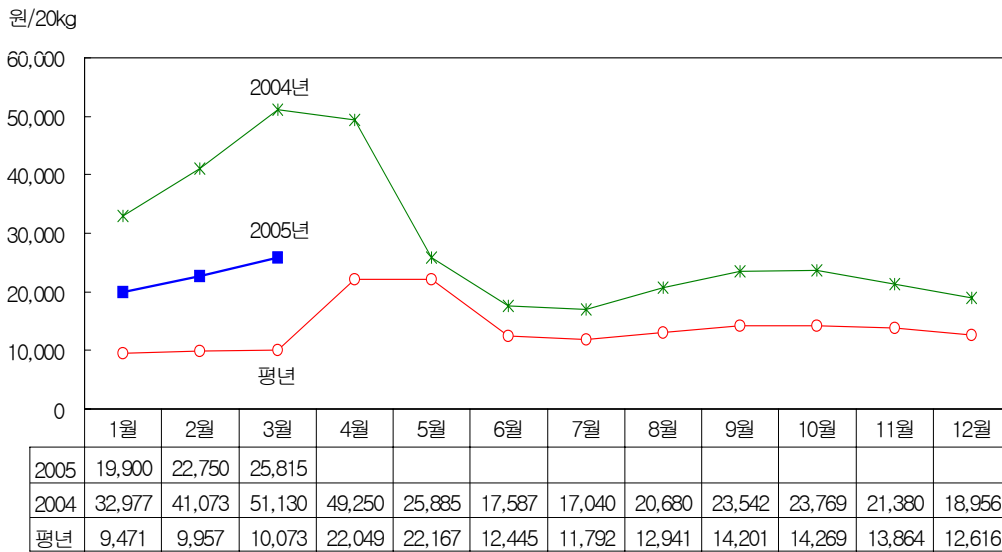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8 감 자

- 감자 수미의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2,820원으로 작년 4/4분기보다 7%, 평년 동기보다 132% 높은 수준이었으나, 가격이 크게 높았던 작년 동기보다는 45% 낮았음. 대지의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6,90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는 4% 높은 수준이었으나, 작년 4/4분기보다 1%, 작년 동기보다는 46% 낮은 수준이었음.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45% 이상 낮았던 것은 2004년산 감자의 저장량이 많았고, 제주도 가을감자의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았기 때문임.
- 시설봄감자(수미)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증가했으며, 4월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0%, 5월에는 2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저온에 의한 생육부진으로 4월의 출하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시설봄감자의 작황은 3월 중순까지의 낮은 기온으로 작년 동기보다 나빠,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4% 적을 것으로 조사됨.
- 4월 시설봄감자(수미)의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6% 많고 강원도 저장감자도 일부 남아있어 4월 수미의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

은 작년 동기보다 낮으나 3월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제주도 겨울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한 1,250ha 내외이며, 3월 현재 생육상황은 파종 이후의 폭설과 한파로 발아가 지연되고 냉해피해를 입어,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금년의 출하는 예년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임.
- 3월 20일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노지봄감자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작년의 가격 상승으로 비주산지의 재배면적이 늘면서 관측치보다는 다소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고랭지감자는 2월 20일 조사치(작년대비 5% 감소)보다 감소폭이 줄어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파종시기가 다가오면서 적절한 대체작목을 찾지 못했고 다른 작물보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임. 파종을 줄이려는 농가들의 대체작목으로는 콩과 옥수수 등으로 조사됨.

3. 과일류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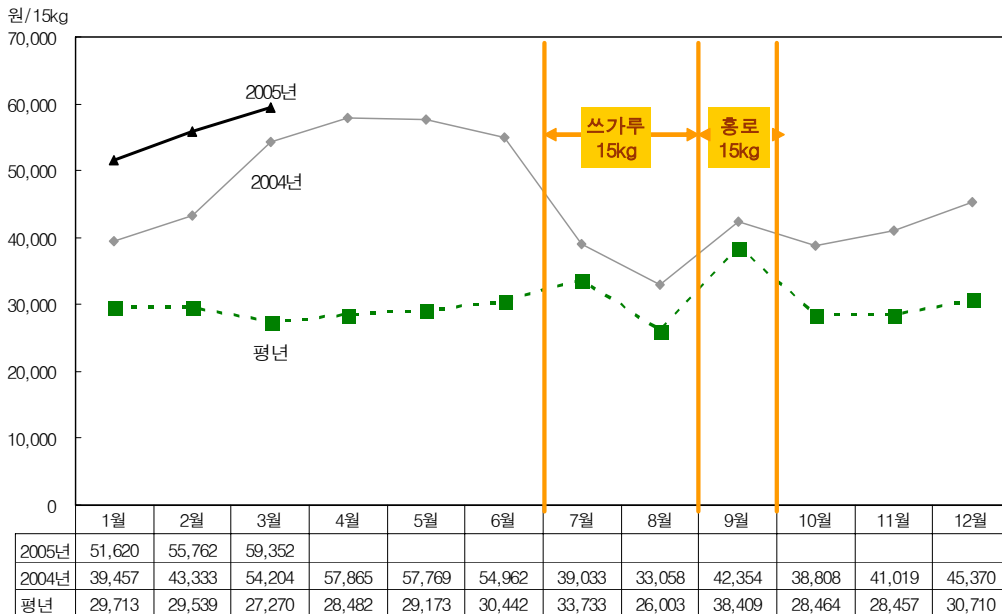
3.1. 사과

- 2004년산 후지 상품 15kg당 도매가격은, 개화기 저온 및 여름철 고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설 이전 출하비중이 높아 저장량이 줄어들어 1월에는 5만 2천원, 2월에는 5만 6천원, 3월에는 5만 9천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정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박재홍 전문연구원(jhpark), 이원진(wjlee), 박미성(mspark)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1% 높은 수준임.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0. 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최근 사과 가격이 좋아 과원 갱신 등으로 폐원되는 면적보다 홍로, 후지 조숙계 및 착색계 등 신품종 유목의 성목화 면적이 많아, 사과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2%(400ha) 정도 증가한 1만 7,290ha 수준이 될 전망. 품종별로는 쓰가루 2%, 홍월 16% 정도씩 줄어드는 반면 후지는 1%, 홍로는 12%, 후지 조숙계(홍장군, 고을, 료카, 히로사키) 등의 신품종이 20% 정도 늘어날 전망.
- 4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4월 중순 이후 5월까지 후지 상품 15kg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5만 8천 원~6만 2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사과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후지	쓰가루	홍로	홍월	기타	전체
'04년	18,392	2,254	2,073	835	3,122	26,676
'05년	18,296	2,180	2,123	748	3,598	26,944
'05/'04 증감률(%)	-0.5	-3.3	2.4	-10.5	15.2	1.0

주: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2005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4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전체면적).

사과 품종별 성목면적

단위: ha, %

	후지	쓰가루	홍로	홍월	기타	전체
'04년	11,614	1,796	1,293	607	1,579	16,889
'05년	11,670	1,760	1,452	511	1,892	17,285
'05/'04 증감률(%)	0.5	-2.0	12.3	-15.8	19.8	2.3

주: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2005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4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전체면적).

사과 공급량 추정

단위: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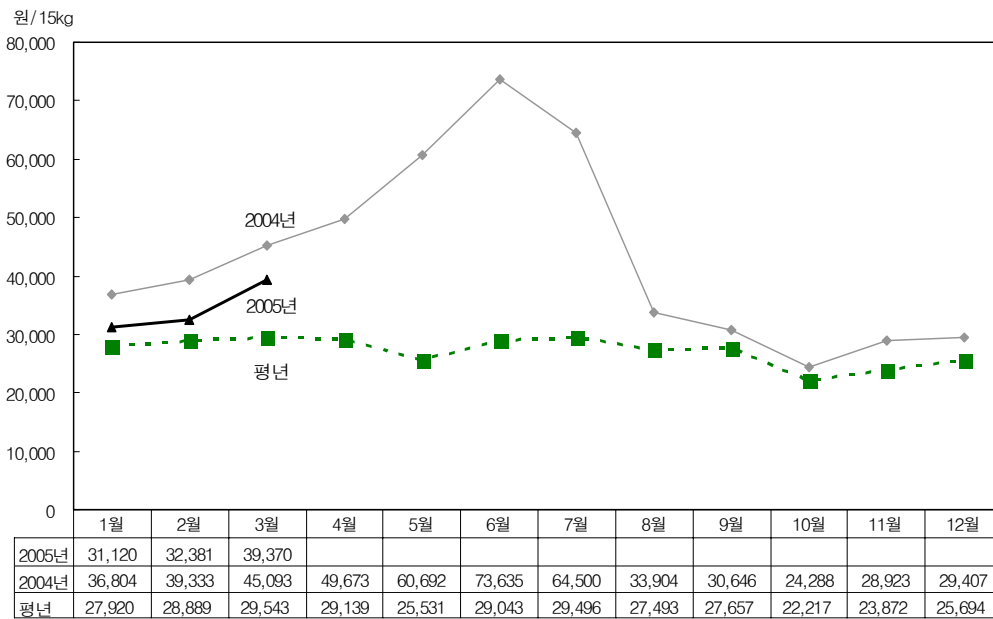
	생산량	공급량	수출량	3월까지 공급량	4월 이후 공급량
'03년산	365	351	44	314	33
'04년산	357	346	3.2	313	29
'04/'03 증감률	-2.2	-1.5	-28.0	-0.4	-9.3

주: 생산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이며 수출량 및 공급량은 4월 1일 현재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공급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것임. 공급량 = 수출량 + 국내 공급량(3월까지 공급량 + 4월 이후 공급량).

3.2. 배

- 2004년산 신고 상품 15kg당 도매가격은, 지난해 병충해 발생이 적고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 및 저장량이 늘어 1월에는 3만 1천원, 2월에는 3만 2천원, 3월에는 3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18% 낮은 수준임.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주: 평년은 2000.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2만 2,982ha)와 비슷한 2만 2,950ha 수준이 될 전망. 품종별로는 원황은 3% 정도 증가하고 신고 및 기타 품종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장십랑 4%, 황금배 8% 정도씩 감소할 전망.
-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몇 년간 배 가격이 낮아 신규 식재가 줄어들어 성목면적은 지난해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였음. 올해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220ha) 정도 줄어든 1만 7,16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 성목면적은 신고 1%, 장십랑 2%, 황금배 17%, 기타 품종 4% 정도씩 줄어들지만 원황은 8% 정도 늘어날 전망.

배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신고	장십랑	황금배	원황	기타	전체
'04년	17,396	871	614	1,298	2,803	22,982
'05년	17,402	840	567	1,336	2,802	22,947
'05/'04 증감률(%)	0.03	-3.6	-7.7	3.0	-0.04	-0.2

주: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2005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4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전체면적).

배 품종별 성목면적

단위: ha, %

	신고	장십랑	황금배	원황	기타	전체
'04년	13,743	703	372	899	1,669	17,385
'05년	13,595	691	310	967	1,598	17,162
'05/'04 증감률(%)	-1.1	-1.6	-16.6	7.6	-4.2	-1.3

주: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2005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4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전체면적).

- 4월 이후 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4월 중순에서 5월까지 신고 상품 15kg당 가격은 지난해(5만 5천원)보다 낮은 4만원~4만 5천원 수준이 될 전망.

배 공급량 추정

단위: 천톤, %

	생산량	공급량	수출량	3월까지 공급량	4월 이후 공급량
'03년산	317	311	12.9	249	49
'04년산	452	449	18.8	355	76
'04/'03 증감률	42.7	44.5	45.8	42.5	54.6

주: 생산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이며 수출량 및 공급량은 4월 1일 현재 농업관측 정보센터 추정치임. 공급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것임. 공급량 = 수출량 + 국내 공급량(3월까지 공급량 + 4월 이후 공급량).

3.3. 포도

- 올해 포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160ha) 감소한 2만 2,750ha, 성목면적은 1%(140ha) 감소한 1만 9,510ha일 전망. 노지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110ha), 하우스 재배면적은 3%(50ha) 감소할 전망. 품종별 재배면적은 캠벨얼리와 새단이 각각 2% 감소하는 반면, 거봉 2%, MBA 3%, 텔라웨어는 1% 정도 증가할 전망.
- 하우스포도 월별 출하면적은 4~5월에는 지난해보다 7%, 6월에는 2% 감소하고, 7월 이후에는 3% 늘어날 전망. 유류비 등 경영비 상승으로 가온시기가 늦추어져서 4~6월 출하예정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4~6월에 출하될 하우스포도 생육상황 조사결과는 “좋음” 24%, “보통” 72%, “나쁨” 4%로 나타나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올해 2월까지의 포도 전체 수입량은 지난해(1,045톤)보다 10% 적은 940톤이었고, 3월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1,475톤)보다 57% 많은 2,316톤으로 추정됨. 4월 수입량은 관세인하와 오렌지 수입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3,381톤)보다 40~5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포도 재배 방법 별 재배의향면적과 성목면적

단위: ha

	재배면적			성목면적		
	노지	하우스	전체	노지	하우스	전체
'04년	21,128	1,781	22,909	18,129	1,516	19,645
'05년	21,014	1,736	22,750	17,967	1,539	19,506
'05/'04 증감률(%)	-0.5	-2.5	-0.7	-0.9	1.5	-0.7

주: 2005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면적).

포도 품종 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캠벨	거봉	MBA	새단	텔라웨어	기타	전체
'04년	17,017	3,009	1,352	782	105	644	22,909
'05년	16,710	3,079	1,398	769	106	688	22,750
'05/'04 증감률(%)	-1.8	2.3	3.4	-1.6	0.5	6.8	-0.7

주: 2004년과 2005년 품종별 면적 및 2005년 전체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면적).

하우스 성목 월별 예상출하면적

단위: ha

	4~5월	6월	7월 이후	전체
'04년	47	355	1,114	1,516
'05년	44	347	1,147	1,539
'05/'04 증감률(%)	-6.8	-2.0	3.0	1.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4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신선포도 수입량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0월	11월	12월	연간
'05년	235	705	2,316							
'04년	383	662	1,475	3,381	2,411	262	488	495	414	9,970
'03년	333	1,098	1,528	3,167	2,812	720	573	814	288	11,332
'02년	-	584	1,254	2,455	1,154	282	212	164	458	6,563
평년	176	538	1419	2,747	2,211	645	268	261	271	8,535

주: 2005년 3월 수입량은 일별자료에 의한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3.4. 복숭아

- 올해 복숭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440ha) 감소한 1만 5,120ha일 전망. 지역별로는 영남이 6%, 호남이 1% 감소하는 반면, 충청은 1% 증가하고, 경기·강원은 지난해 수준일 전망. 숙기별로는 조생종이 지난해보다 2%, 중생종이 8% 감소하나 만생종은 1% 증가할 전망이다. 품종별로는 유모계가 2%, 천도계는 4% 감소할 전망이다.
- 1996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던 성목면적은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하여, 지난해보다 1%(90ha) 감소한 9,760ha일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이 5%, 호남이 1%, 충청이 6% 증가하는 반면, 영남은 6% 감소할 전망이다. 숙기별로는 조생종이 지난해보다 1%, 중생종이 4% 감소하고, 만생종은 1% 증가할 전망이다. 품종별로는 유모계가 1%, 천도계가 2% 감소할 전망이다.
- 올해 복숭아의 생육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개화시기는 봄추위

로 지난해보다 3~10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3월 21~28일 조사결과).

복숭아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04년	2,105	7,794	1,448	4,202	15,566
'05년	2,111	7,325	1,431	4,239	15,123
'05/'04 증감률(%)	0.3	-6.0	-1.2	0.9	-2.8

주: 2005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시 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면적).

복숭아 지역별 성목면적

단위: ha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04년	1,266	5,349	859	2,383	9,857
'05년	1,333	5,049	865	2,516	9,764
'05/'04 증감률(%)	5.3	-5.6	0.7	5.6	-0.9

주: 2005년 성목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시 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면적).

복숭아 숙기별 성목면적

단위: ha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전체
'04년	2,254	3,234	4,370	9,857
'05년	2,224	3,116	4,424	9,764
'05/'04 증감률(%)	-1.3	-3.6	1.2	-0.9

주: 2004년 숙기별 면적과 2005년 전체면적 및 숙기별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면적).

복숭아 품종별 성목면적

단위: ha

	유모	천도	전체
'04년	8,020	1,837	9,857
'05년	7,971	1,793	9,764
'05/'04 증감률(%)	-0.6	-2.4	-0.9

주: 2004년 품종별 면적과 2005년 전체면적 및 품종별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4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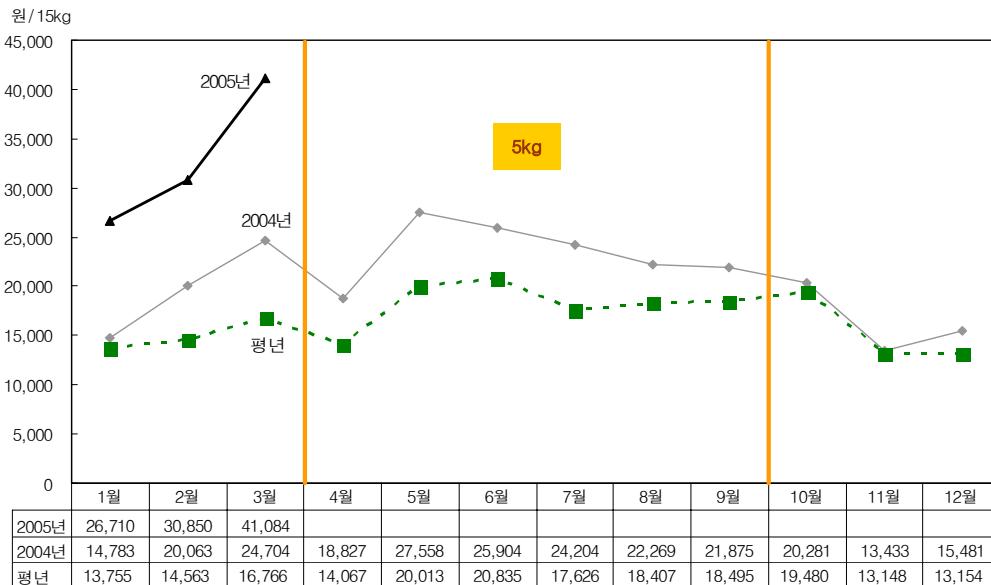
3.5. 감귤

- 1/4분기 노지온주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7~60% 높은 2만 300원~2만 7,400원, 월동온주 상품 5kg당 도매가격은 22~42% 높은 1만 7,500원~1만 9,400원 수준임. 그러나 한라봉 상품 3kg당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0~22% 낮은 1만 7천원~2만 600원 수준임.
- 온주감귤가격이 지난해 및 평년보다 높은 것은 공급량이 감소했고 품질이 좋기 때문임. 반면 한라봉 가격이 낮은 것은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고 당산비 저하 등 품질도 다소 좋지 못하기 때문임.
- 감귤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올해 감귤 재배면적은 지난해(2만 2,107ha)와 비슷한 2만 2천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중 노지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하지만, 시설면적은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온주감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노지는 1%, 하우스는 7% 감소하지만 월동온주는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만감류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한라봉은 12%, 기타만감류는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가온하우스온주는 유가상승 및 실질적인 면세유혜택이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가온시기별 재배면적은 비교적 유가부담이 큰 극조기와 조기는 지난해보다 25~32%, 보통가온은 8% 감소한 반면 후기가온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감귤 도매가격(상품)



주: 9월까지는 월동 및 하우스온주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4년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6% 감소한 6만 3,300톤 수준이었음. 이처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잦은 강우로 인해 수출가능한 품질의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임.

- 오렌지 수입단가는 지난해보다 9~13% 높은 0.93~0.94US\$이었음.
국내도매가격은 1월과 3월에는 지난해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14% 높은 상품 18kg당 3만 5,400원~3만 6,900원 수준이었음.

감귤 재배의향 면적

단위: ha

	노지	시설	전체
'04년	19,792	2,315	22,107
'05년	19,584	2,461	22,045
'05/'04 증감률(%)	-1.1	6.3	-0.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2월 18~28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전망치.
자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감귤 재배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온주				만감류			합계
	노지	하우스	월동	소계	한라봉	기타	소계	
'05/'04 증감률	-1.1	-6.6	6.1	-1.1	11.9	5.6	10.1	-0.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2월 18~28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전망치.

하우스온주 가온시기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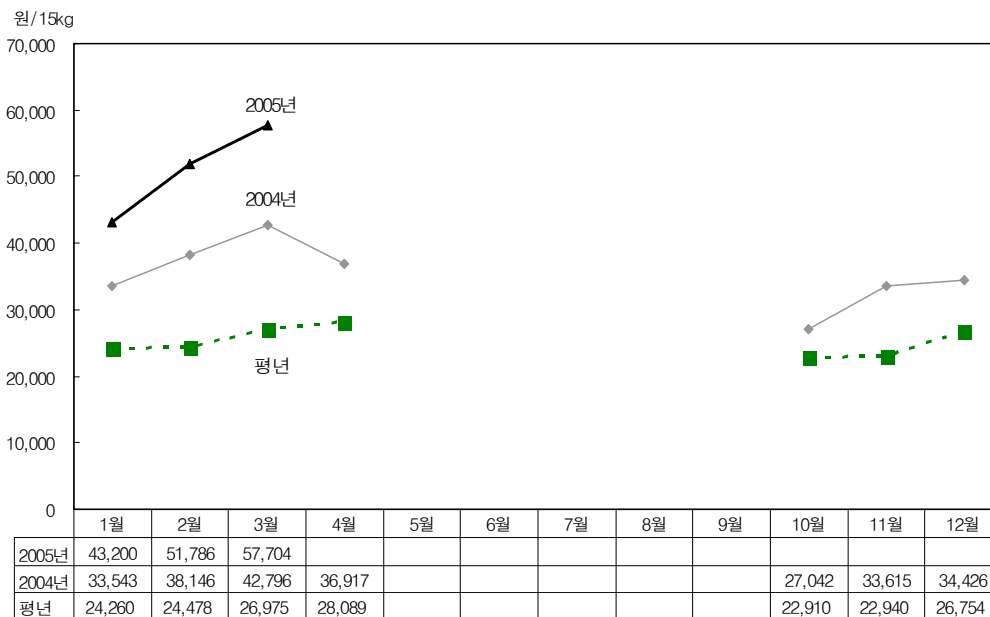
	극조기	조기	보통	후기	계
'04년	72	77	149	146	444
'05년	49	58	137	169	413
증감률(%)	-31.7	-25.2	-7.9	15.6	-7.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2월 18~28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전망치.

3.6. 단감

- 1/4분기 부유 상품 15kg당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29~36%, 평년보다 78~114% 높은 4만 3,200원~5만 7,700원 수준이었음. 이처럼 단감가격이 높은 것은 반입량이 평년보다 감소했고, 당도 등 맛이 좋기 때문임.

단감 도매가격(상품)



주: 9월은 서춘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2000. 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단감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340ha) 감소한 1만 8,2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상서조생이 지난해보다 2% 증가하지만, 부유 2%, 차랑 3%, 서춘조생과 기타품종이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단감 성목면적은 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원 및 방치과원으로 지난해보다 4%(630ha) 감소한 1만 5,03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유목면적은 최근 2년간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원조성으로 지난해보다 10%(290ha) 증가한 3,17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 성목면적은 상서조생이 지난해보다 1% 증가하지만, 부유 3%, 차랑 5%, 서촌조생 8%, 기타품종이 2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단감의 수세 등 생육상황은 대체로 지난해 및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1월~3월 상순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지만 상습적인 동해피해가 없었기 때문임.

단감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부유	차랑	서촌	상서	기타	전체
'03	16,011	1,996	1,004	121	488	19,620
'04	15,245	1,797	916	123	452	18,533
'05	15,006	1,750	884	125	433	18,198
'05/'04 증감률(%)	-1.6	-2.6	-3.5	1.8	-4.2	-1.8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2월 18~28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단감 품종별 성목면적

단위: ha

	부유	차랑	서촌	상서	기타	전체
'03	13,258	1,653	832	100	404	16,247
'04	12,843	1,536	807	103	372	15,661
'05	12,448	1,459	744	104	278	15,033
'05/'04 증감률(%)	-3.1	-4.9	-7.8	0.8	-25.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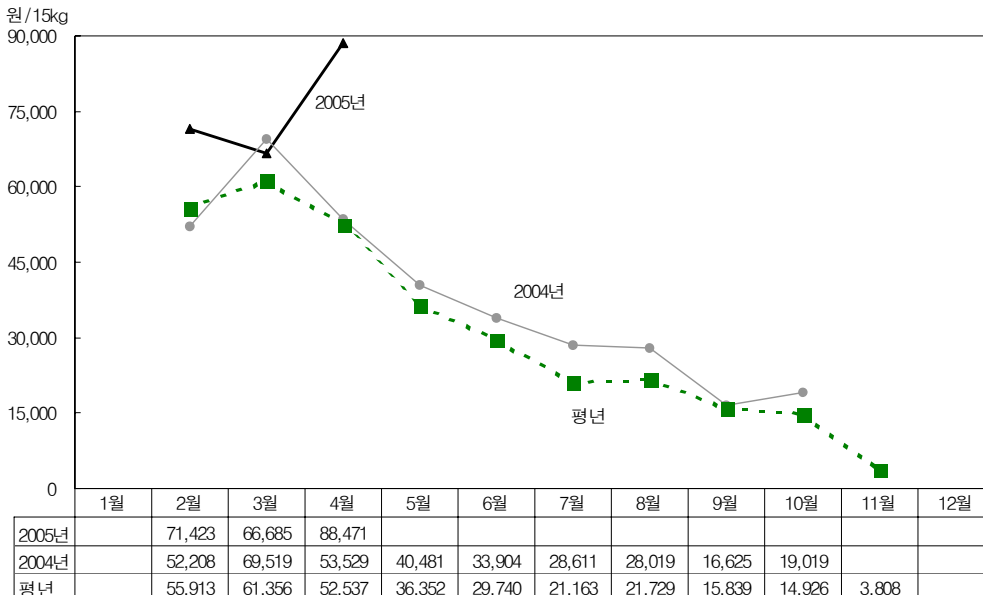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3월 21~28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4. 과채류9)

4.1. 참외

- 1/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상자 상품 기준으로 2월 7만 1,400원, 3월 6만 6,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월에는 37% 높았고, 3월에는 4% 낮았음. 2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함안, 의령 등 경남지방의 1월 하순 이후의 한파와 일사량 부족으로 과비대 상태가 좋지 않아 2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47% 적었기 때문임.

참외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ie.re.kr), 정학균(hak8247), 김원태(wtkim), 최익창(cyc)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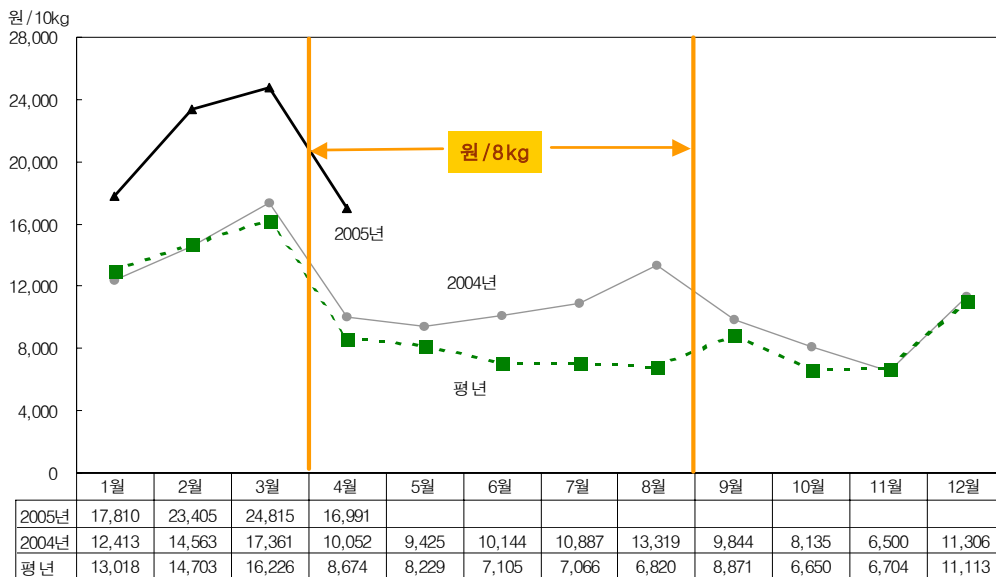
- 3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5%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참외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2~3월 저온현상으로 육질이 저하되고 당도가 떨어지는 등 참외의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저온피해로 3월하순 이후 공급량이 예년처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하순 이후 참외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음.
- 참외 5~6월 출하면적은 주출하지인 성주지역의 출하면적이 지난해보다 1% 정도 증가하지만, 김천, 칠곡 등 경북지방 참외주산지의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5월 예상단수는 주출하지인 성주지역의 작황이 회복되어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하고, 6월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5월 출하량은 단수가 회복되어 지난해보다 3% 정도 많고 6월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5월 참외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많지만 수박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5월 참외 가격은 지난해(상품 15kg상자당 4만 500원)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참외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기지방의 참외 정식면적은 호박, 오이 등으로 전환되어 지난해보다 7% 정도 감소하였고, 전북지방은 감자, 수박 등으로 전환되는 면적이 늘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지방은 김해지역에서 일부 참외농가가 토마토로 전환하였지만, 함안지역의 멜론 재배면적이 참외로 전환되어 지난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참외의 주산지인 경북지방은 성주지역의 재배면적이 1% 증가하였지만 김천, 칠곡, 고령지역에서 연작장해로 휴경하거나 멜론, 딸기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수박

- 1/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10kg상자당 1월 1만 7,800원, 2월 2만 3,400원, 3월 2만 4,8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월에는 44%, 2월에는 61%, 3월에는 43% 높았음. 1월 수박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6% 많았음에도 가격이 높았던 것은 사과, 감귤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임. 2~3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았던 것은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0~30% 적었고 사과, 감귤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도 부족하였기 때문임.

수박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5월 수박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함안, 의령, 진주 등경남지방과 부여, 논산 등 충남지방의 생육기 날씨가 좋지 않아 수정률이 떨어지고 착과도 지연되어 수확시기가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6월 출하면적은 지난해 동기 수박 가격이 좋아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7%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
- 5월에 출하될 수박 단수는 지난해보다 1% 감소하고 6월 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식 및 수정기의 저온과 일사량 부족으로 착과율이 저조한데다 과비대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임.
- 5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모두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3% 적을 것으로 전망됨. 6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어 지난해보다 7%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
- 5월 수박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적고 품질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5월 수박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8kg개당 작년 9,40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4~5월 수박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설수박은 충청과 호남지방에서 딸기의 후작 수박과 2기작 수박이 늘고, 참외, 벼 등에서 수박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지수박은 영주, 봉화 등 경북지방의 5월 정식면적이 늘지만 고창, 김제 등 전북지방과 충북 음성지역의 4~5월 정식면적이 줄어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 수박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설수박은 호남과 충청지방의 참외, 고추, 벼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박으로 전환하여 지난해보다 1%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노지수박은 지난해 여름철 수박가격이 매우 높아 경북지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겠지만, 호남지방에서 복분자, 감자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는 면적이 많아 지난해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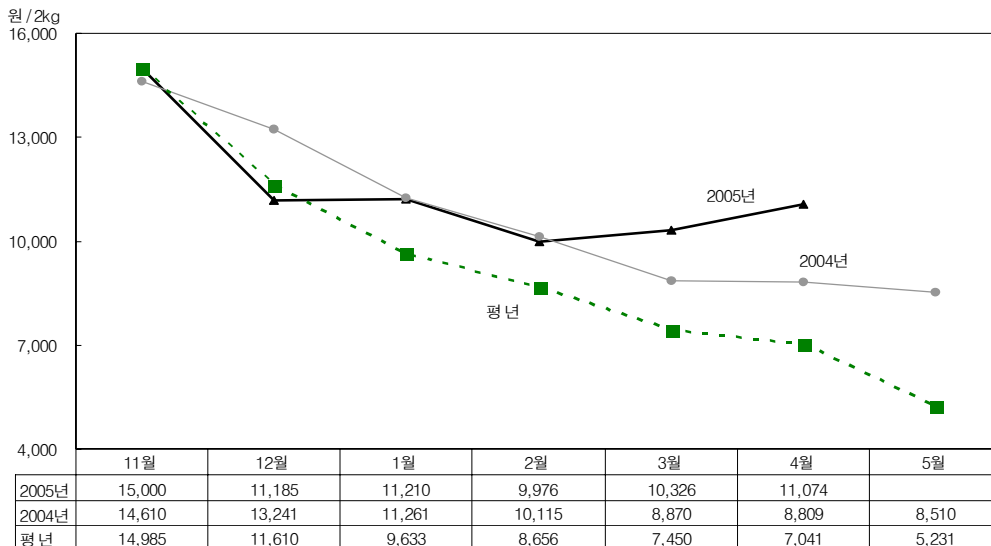
4.3. 딸기

- 1/4분기 딸기 도매가격은 2kg 상자당 1월 1만 1,200원, 2월 1만원, 3월 1만 300원으로 1~2월은 지난해와 비슷하였고, 3월은 16% 높았음. 1~2월 공급량이 작년보다 적었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것은 육묘기 고온과 가을철 기온이 높아 생육이 부진하여 딸기 품질이 작년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임. 3월은 축성 품종인 장희, 매향 면적은 늘었으나 반축성 품종인 육보 면적은 감소하였고, 노동력 부족으로 출하면적이 줄어 공급량이 작년보다 9% 적었기 때문임.
- 딸기 5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6% 적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딸기 후작으로 수박, 멜론을 일찍 정식하는 농가가 많고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기 때문임.
- 딸기 5월 단수는 작년보다 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주산지인 전남, 충남 등지에서 2~3월 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광주, 대전기준 최저기온 작년대비 2~3℃하락)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임.
- 5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4% 적고 품질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

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은 지난해(상품 2kg당 5월 8,700원)보다 높을 전망.

- 금년 딸기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7,330ha수준으로 추정됨. 영남지방에서는 지난해보다 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청과 호남지방에서는 각각 10%, 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충청지방은 지난해폭설피해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으며, 호남지방은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시설감자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딸기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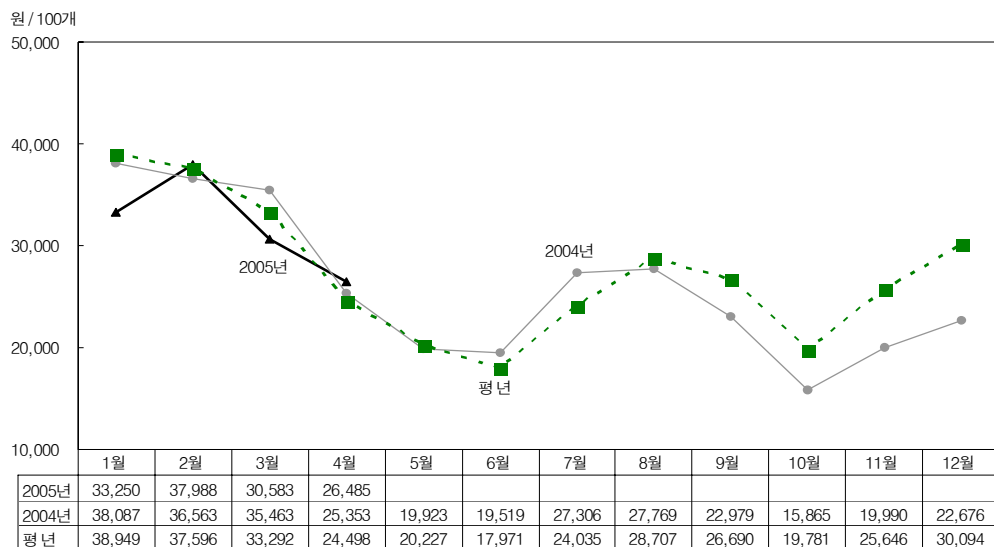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4. 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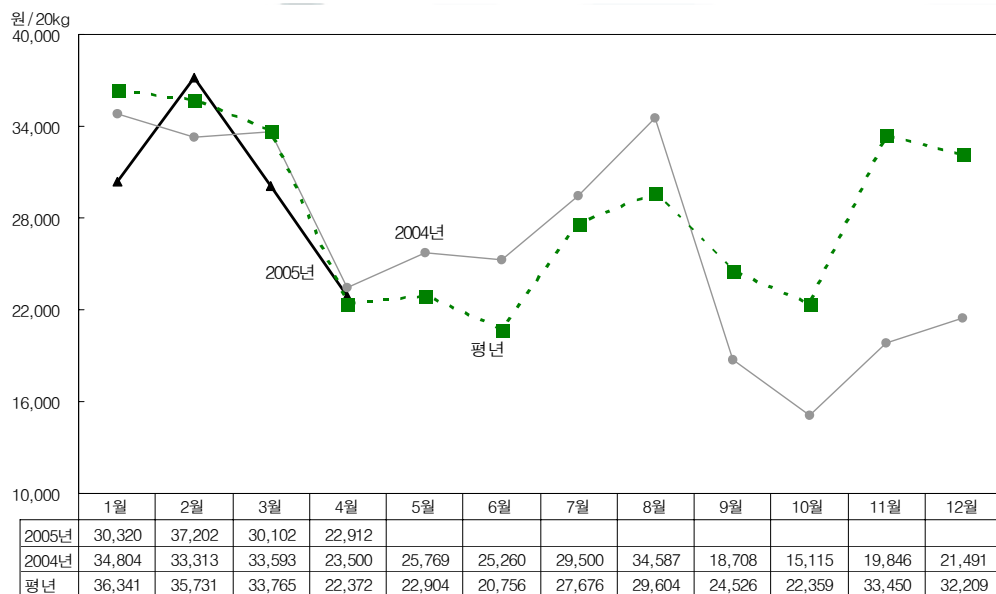
- 백다다기 오이의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당 1월 3만 3,300원(작년 대비 △13%), 2월 3만 8,000원(작년 대비 4%), 3월 3만 600원(작년 대비 △14%) 이었음.

백다다기 오이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취청 오이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월 백다다기 가격이 낮았던 것은 남부지역 축성재배지역의 가을 철 기상여건 호조로 오이의 생육상태가 좋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6% 증가하였기 때문임. 2월 오이 공급량은 크게 줄었는데도(작년 대비 $\Delta 17\%$) 가격은 조금 오른데 그친 것은 설 직후 소비가 줄고 2월의 저온으로 오이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3월 오이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였으나 가격이 크게 낮았던 것은 2월의 저온 영향을 받아 오이의 품질이 낮아졌기(중·하품간, 상·중품간 가격차 작년대비 각 13%p, 3%p) 때문임.
- 5~6월의 오이 출하면적은 유가상승의 영향과 최근에 가격이 높은 작목인 토마토와 생산 대체가 이루어져 지난해보다 8%정도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유가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 전남 구례, 보성의 취청오이 축성재배 출하면적이 2~5% 감소하였고, 최근 토마토 가격이 좋아 충남 부여, 공주, 경기 평택, 강원 춘천의 백다다기 오이 반축성 출하면적이 9%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5~6월에 출하될 오이 단수는 평년 작황을 예상할 경우, 야간 기온이 낮고 일사량이 적어 단수가 크게 낮았던 지난해에 비해 7~9% 높을 것으로 추정됨.
- 5~6월 오이는 출하면적은 감소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평년보다 11%정도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5월 오이 가격은 지난해(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1만 9,900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백다다기 오이 4~5월 정식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지난해와 최근의 토마토 가격이 좋아 주산지인 강원 춘천에서 일부 오이 재배면적이 토마토로 전환되고, 경기 연천에서는 노령화로 정식의향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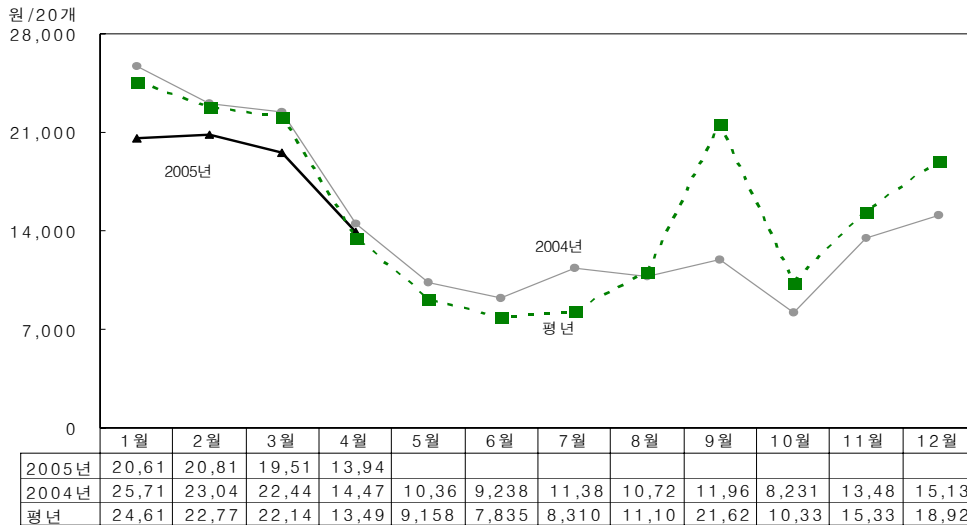
났기 때문임.

- 한편,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아산에서는 지난해 출하기인 6~7월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 백다다기 정식을 늘리려는 농가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4.5. 호박(애호박)

- 애호박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개당 1월 2만 600원(작년 대비 $\Delta 20\%$), 2월 2만 800원(작년 대비 $\Delta 10\%$), 3월 1만 9,500원(작년 대비 $\Delta 13\%$) 이었음. 지난해 가을철 애호박 주산지의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상태가 좋아 지난해 12월 출하량이 늘어 12월 가격이 크게 낮았기 때문에 1월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4% 감소하였음에도 애호박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였음. 2월은 출하량이 11% 감소하였음에도 애호박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설 직후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3월의 애호박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7% 많았기 때문임.
- 5~6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7%정도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 애호박 정식을 늘렸고, 충북 청원에서 지난해 3월의 폭설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던 것에 비해 금년 재배면적은 하우스 복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5~6월 애호박 예상단수는 지난해보다 7%정도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금년 애호박이 평년작황일 때 광주광역시, 충북 청원에서 병해가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단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5~6월 애호박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4% 많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5월 애호박은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20개당 1만 4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4월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하고, 5월은 1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4월 정식면적은 최근 토마토 가격이 높아 일부 애호박 재배면적이 토마토로 전환되어 감소하겠으나, 5월은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높아 강원 화천, 충북 충주에서 증가하였음.

애호박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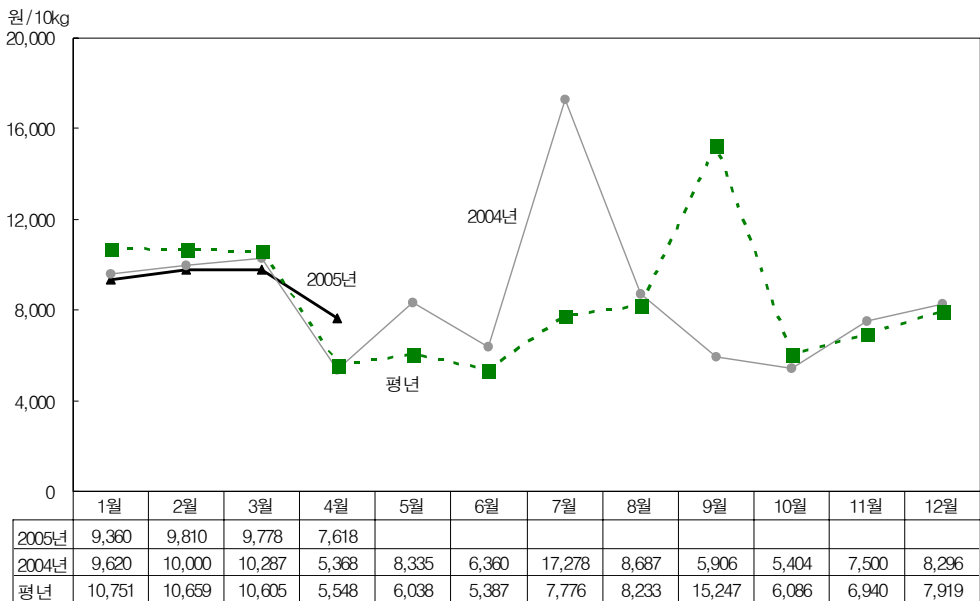
4월	5월
-1.4	13.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3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4.6. 호박(쥬키니)

- 쥬키니 1/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1월 9,400원(작년 대비 △3%), 2월 9,800원(작년 대비 △2%), 3월 9,800원(작년 대비 △5%) 이었음. 1~3월 쥬키니 출하량이 9%정도 감소하였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것은, 소비대체재인 애호박 가격이 낮아 쥬키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호박(쥬키니)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5월 쥬키니 출하예정면적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전북 전주, 경북 의령에서 연장재배로 지난해보다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월 예상단수가 지난해와 비슷하여 출하량은 4%정도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5월의 쥬키니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많겠으며 소비대체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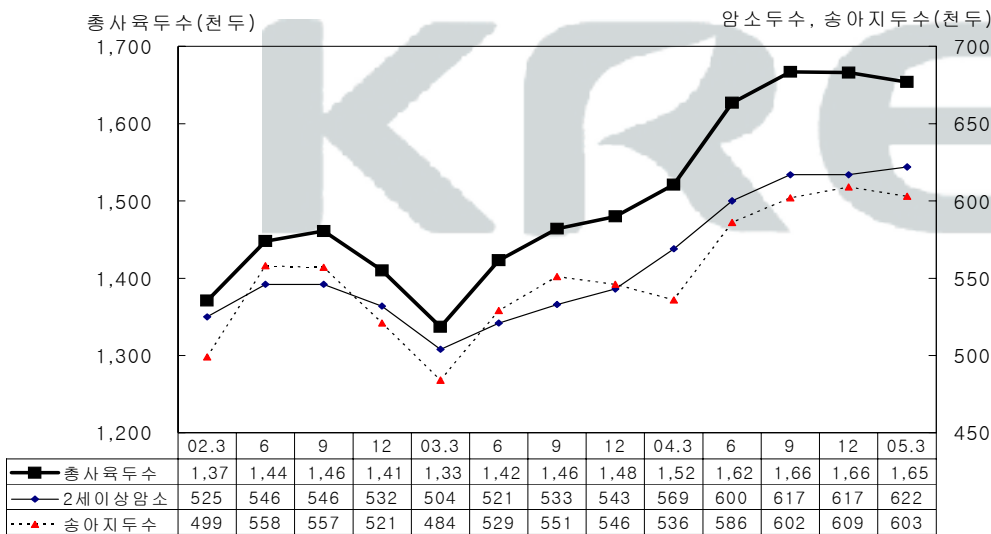
애호박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키니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10kg 상자당 8,300원)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5. 축산¹⁰⁾

5.1. 한육우

- 2004년 12월~2005년 2월 도축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 3월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65만 4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2천두(0.7%) 감소하였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13만 3천두(8.7%)가 증가하여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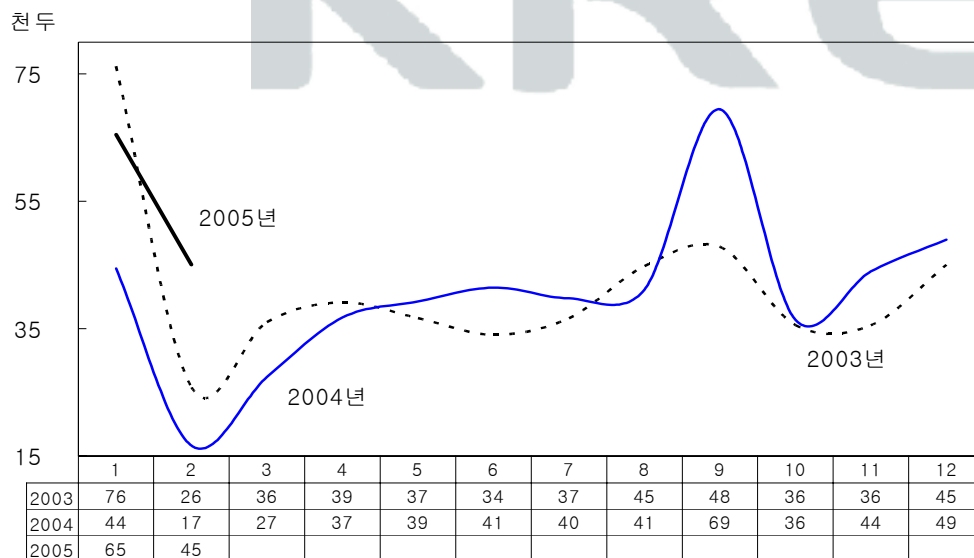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민국 연구위원(mkjeong@krei.re.kr), 송우진(gnos), 김현중(kim1025), 이형우(ihw0906)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한우 사육두수는 148만두로 1년 전에 비해 16만 5천두 증가하였으나, 육우 사육두수는 17만 4천두로 3만 2천두 감소하였음.
- 2005년 3월 한육우 2세 이상 암소는 62만 2천두로 3개월 전보다 5천두(0.8%), 전년 동기에 비해 5만 3천두(9.3%) 증가하였음.
- 2005년 3월 1세미만 송아지 두수는 60만 3천두로 3개월 전보다 6천두(1.0%)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 6만 7천두(12.5%) 증가하였음.
- 사육호수는 2005년 3월에 19만 1천호로 전년동기에 비해 2천호 증가하였고, 호당 사육두수는 8.6두로 전년동기에 비해 0.6% 증가함.
- 2004년 하반기 이후 한육우 도축두수 증가세가 이어져 2005년 한육우 도축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1~2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11만 1천두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80.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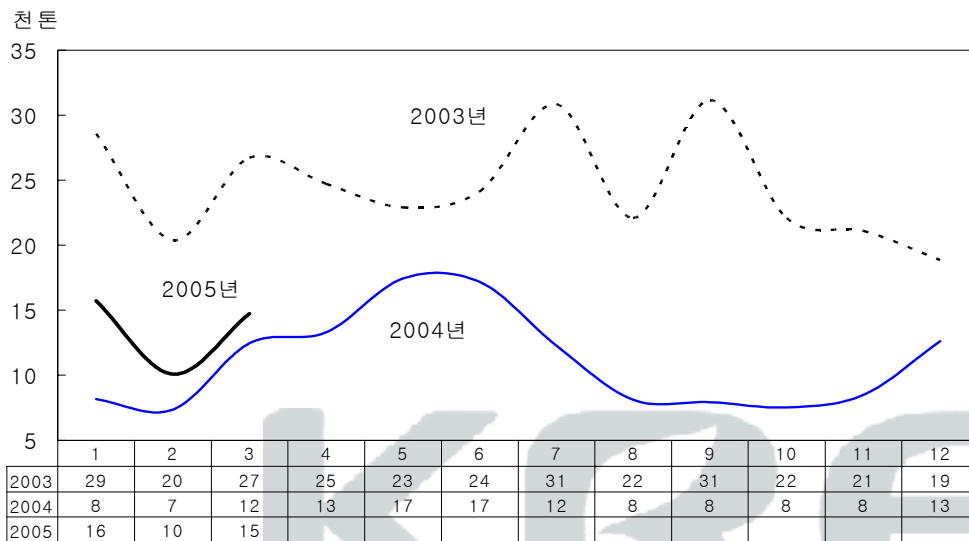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1~2월 한우 도축두수는 7만 7천두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75.2% 증가하였고, 육우 도축두수는 3만 3천두로 94.6% 증가함.
- 2005년 1~3월 쇠고기 수입은 4만 1천톤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45.0% 증가함. 수입물량 중 호주산이 61.6%, 뉴질랜드산이 37.0%, 멕시코산이 1.4% 수입되었음.

쇠고기 별 수입현황(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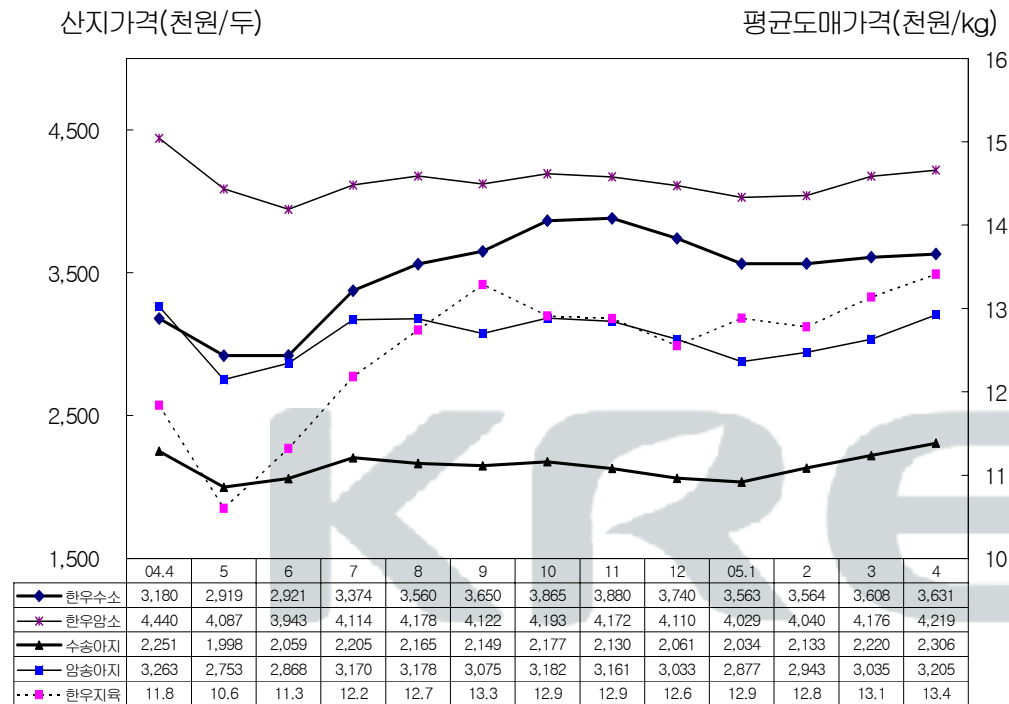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일본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20개월령 미만 소의 고기를 수입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소의 월령 증명 방법은 7월까지 검 증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2005년 들어 한육우 도축이 크게 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도축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송아지 입식수요가 많아져 송아지 가격도 상승하였음.

- 설 이후에도 쇠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4월 한우 지육가격(1kg)은 1만 3천원까지 상승함. 육우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육우 거세우 지육 가격(1kg)은 9천원대를 넘어섬.
- 4월 한우 산지가격(500kg)은 수소 360만원대, 암소 420만원대, 송아지 가격은 230만원대에서 형성됨.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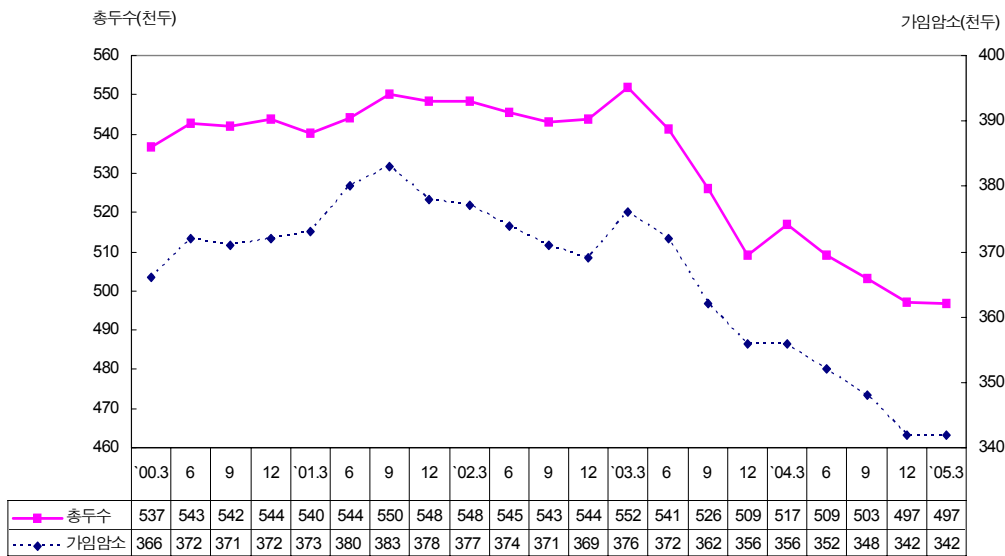
5.2. 젓 소

- 2005년 3월 젓소 사육두수는 2004년 송아지 생산 감소로 인해 2005년 1~2세 두수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2만두(△3.9%) 감소한 49만 7천두 었음. 가임암소 두수는 34만 2천두로 전년동기보다

1만 4천두($\Delta 3.9\%$) 감소하였음.

- 1세미만 두수는 9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3천두($\Delta 3.0\%$) 감소하였고, 1~2세 두수는 11만 2천두로 전년동기보다 8천두($\Delta 6.7\%$), 2세 이상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9천두($\Delta 3.0\%$) 감소하였음. 2세 이상 두수 중 착유우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2천두($\Delta 0.8\%$) 감소하였으나 전분기 보다는 7천두(3.0%) 증가하였음.

젖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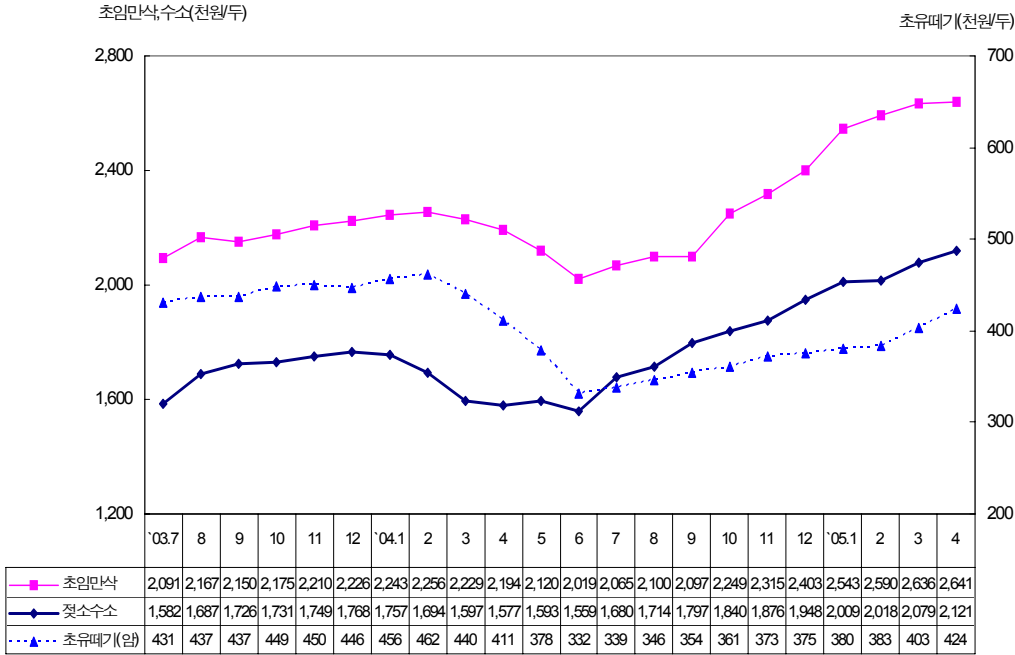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3월 젖소 사육농가수는 9천 5백호로 전년동기보다 8백호($\Delta 7.8\%$)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전년동기보다 8백호($\Delta 13.8\%$) 감소하였지만 50두 이상 사육농가수는 2003년 12월과 비슷한 4천 5백호 었음.
-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9천두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천두 감소

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52.4두로 전년동기보다 2.4두(4.8%) 증가하였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젓소 산지가격 변동



주: 4월 산지가격은 10일자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초유폐기(암송아지):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2004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초유폐기(암) 산지가격은 2004년 9월 13%의 원유가격이 상승한 이후 2005년 4월까지 계속 상승하였음. 2005년 1/4분기 산지가격은 38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4.1% 하락하였지만, 4월(10일) 가격은 37만 3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하였음.
- 초임만삭우: 초임만삭우 산지가격도 2004년 7월부터 상승하여 2005년 4월까지 계속 상승하였음. 2005년 1/4분기 산지가격은

259만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5.5% 상승하였고, 4월(10일) 가격은 264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0.4%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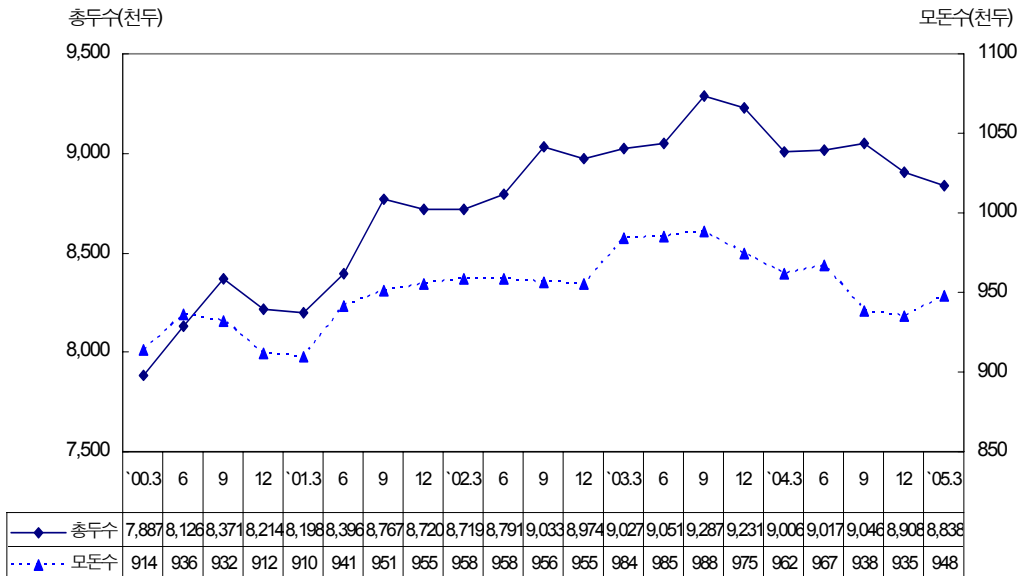
- 젓소수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육우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쇠고기의 수요 증가로 젓소수소 가격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2005년 1/4분기 젓소수소 평균 가격은 203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0.9% 상승하였고, 4월(10일) 가격은 212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4.5% 상승하였음.

5.3. 돼 지

- 2005년 3월 돼지 사육두수는 작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모돈 생산성 저하와 지난 겨울 모돈의 유사산으로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음. 사육두수는 883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16만 8천두($\Delta 1.9\%$) 감소하였고, 모돈수는 94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1만 4천두($\Delta 1.5\%$) 감소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1만 3천두(1.4%) 증가하였음.
- 3월 돼지 사육농가수는 1천두 미만 소규모 농가 폐업이 증가하면서 3개월 전보다는 1040호($\Delta 7.8\%$), 전년동기보다 1710호($\Delta 12.3\%$) 감소한 1만 2230호였음.
-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전년동기보다 1670호($\Delta 15.1\%$) 감소하였고 100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수는 전년동기와 비슷하였음.
-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23만 5천두 감소한 반면, 100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6만 7천두 증가하여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

75.9%를 차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722.8두로 전년동기보다 76.7두(11.9%) 증가하였음.

돼지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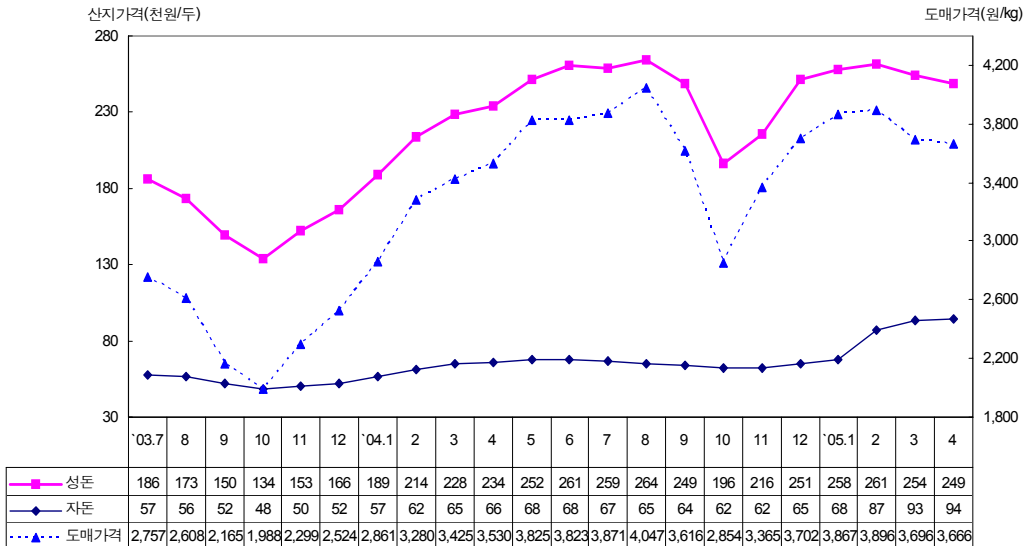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돼지 산지가격 변동

- 성돈(100kg) : 작년 여름 모돈의 수태율 저하로 2005년 1~2월 출하두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7.7% 감소하였고 육가공업체의 국내산 돈육 구매 증가로 2005년에도 산지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음. 2005년 1/4분기 산지가격은 25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2.5% 상승하였고 4월(1~10일) 가격은 24만 9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4% 상승하였음.
- 자돈: 작년 말 모돈의 유사산이 많았고 소모성 질병과 설사병 피해로 자돈 두수가 감소하여 2005년에 들어서면서 자돈 산지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1/4분기 자돈 산지가격은 8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5% 상승하였고, 4월(1~10일) 가격은 9만 4천원으로 42.3% 상승하였음.

- 평균경락가격(비육돈): 돼지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2005년 경락가격도 높게 형성되었음. 1/4분기 경락가격은 kg당 3820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9.8% 상승하였고 4월(1~10일) 가격은 kg당 3666원으로 3.9% 상승하였음.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주: 4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돼지고기 수입

- 2005년 1~3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성돈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전년 동기간보다 약 2배 증가한 5만 6081톤이었음. 국가별로는 미국산 수입량이 1만 3천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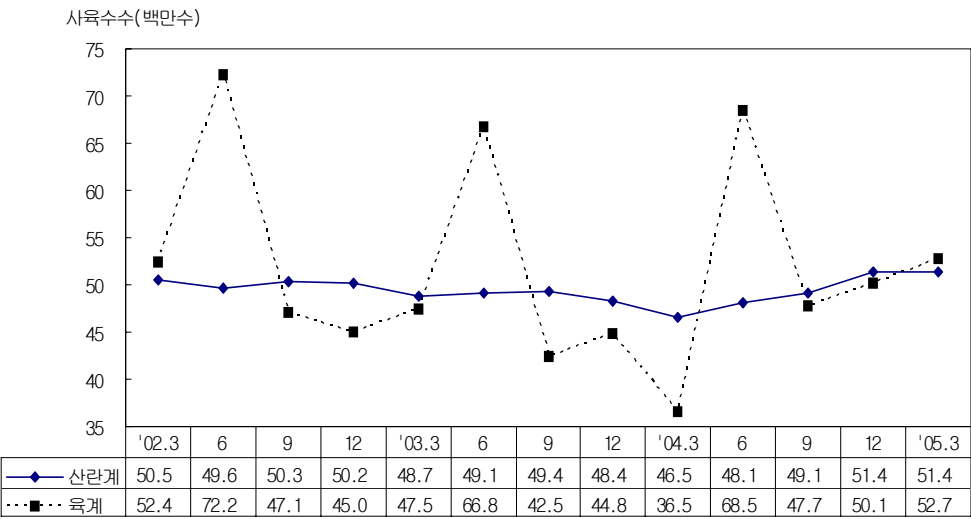
5.4. 닭

- 계란 산지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도태의향이 낮아 3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동기보다 증가함.
- 3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5137만수로 3개월 전보다 0.1% 감소하

였으나 전년동기보다는 10.5% 증가하였음. 3월 산란계 사육호수는 2069호로 3개월 전보다 0.7% 2004년 3월보다 8.6% 증가하였음.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나 3월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동기보다 크게 증가함.
 - 3월 육계 사육수수는 5274만수로 3개월 전보다 5.2% 전년동기보다 44.5% 증가함. 3월 육계 사육호수는 1635호로 3개월 전보다 1.9%, 2004년 3월보다 27.1% 증가하였음.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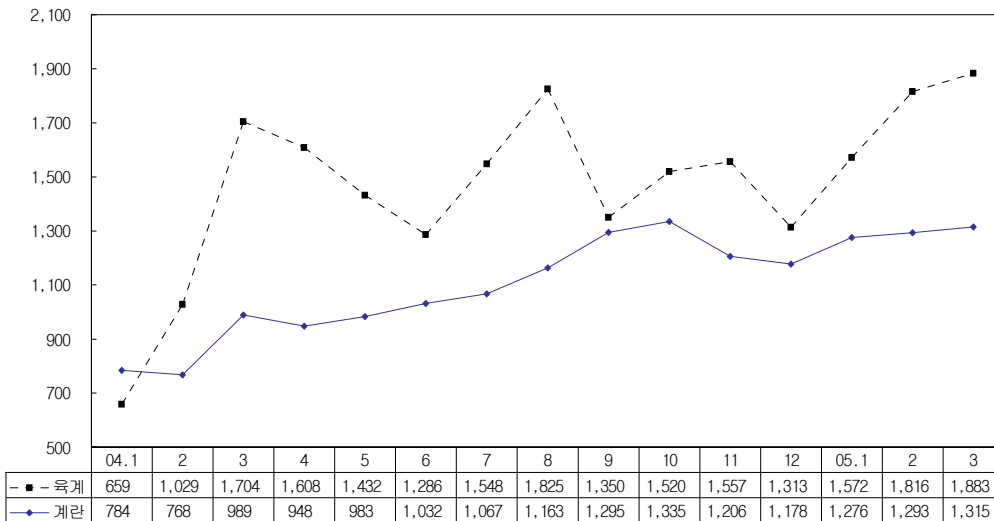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04년 4/4분기에는 산란계의 생산성 저하로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54.4% 상승한 1240원이었음. 올해 1/4분기 계란 산지가격도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52.9% 상승한 1295원이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04년 4/4분기 닭고기 공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육계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57.4% 상승한 1463원이었음. 올해 1/4분기 육계 평균 가격은 도계수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성 있는 공급물량 감소로 전년동기보다 55.4% 상승한 1757원이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산지가격(원/10개, 원/생체kg)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04년 4/4분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 병아리수는 15만 4천수로 전년동기보다 12.5% 증가하였음. 올해 1/4분기에는 8만 6천수로 전년동기보다 크게(35.3%) 감소하였음.
- '04년 4/4분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 병아리수는 98만수로 전년동기보다 29.0% 증가하였음. 올해 1/4분기에는 119만 8천수로 전년동기보다 6.7%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통관기준)

- '04년 4/4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1만톤으로 전년동기보다 52.3% 감소하였음. 올해 1/4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동기(9천톤)보다 크게 증가한 1만 3천톤이었으나 '03년 1/4분기(2만 3천톤)보다는 크게 적은 물량임.

KREI

Ⅵ. 특별주제

1. 농업인의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인식
2. 품목별 집중분석: 양파, 당근, 토마토
3. 미국과 호주의 2005년 농업전망

KREI

농업인의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인식 1)

1. 머리말

-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1년 도하개발의제(DDA) 출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방 농정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농업 여건도 급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 농업에 대한 변화 요구와 개방 압력은 농정의 기본틀을 보호와 증산 중심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으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업화·규모화도 빠르게 진전되는 등 영농형태가 급변하면서 농촌사회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
- 이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농촌사회의 급변속에서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농업·농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효율적인 농정여론 수집을 위해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당해년도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있음.

1) 이 자료는 김동원 부연구위원과 박혜진 연구조원이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로,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을 중심으로 요약한 자료임. 조사결과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문의사항은 전자우편(e-mail: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으로 연락바람.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지통신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특히 농업인 의식변화 부분은 지난 10년간의 조사결과²⁾를 대비해 분석함.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추이

2.1. 농촌생활 만족도는 여전히 낮으나 부정적 인식은 줄어드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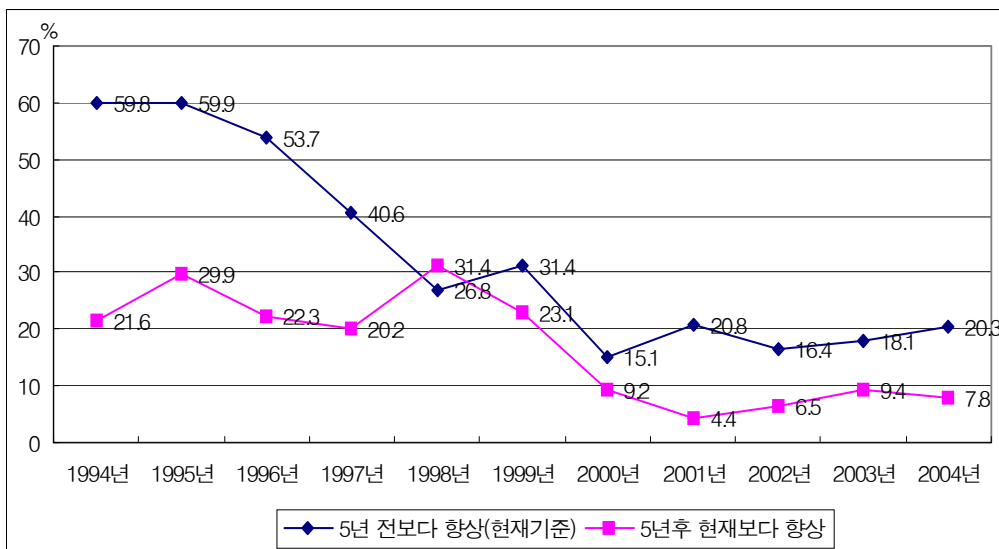
- 먼저,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에서는 2004년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고 인식한 농업인은 10명 중 2명(20.3%), 전년과 비교해서는 10명중 1명꼴(10.2%)로 나타나 2003년 조사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7.8%로 전년(9.4%) 보다 1.6%p 소폭 감소하였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67.8%로 전년(66.5%)보다 1.3%p 높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변화를 5년전과 비교한 평가 및 5년 후 기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1994년 60%선에서 출발해 1998년 IMF 이전까지 30~50%선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이후 20%선 내외

2) 1993년~2004년. 「농업인 의식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를 유지하고 있음.

- 또, 5년 후 현재보다 향상되리라는 기대는 WTO체제가 출범한 1995년 29.9%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1999년까지 20~30%대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0년 들어 갑자기 9.2%로 낮아진 이후 2001년 4.4%, 2002년에는 6.5%, 2003년 9.4%로 약간 상승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7.8%로 약간 줄면서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음.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 농촌생활 만족도(만족, 매우 만족)는 10명중 1명꼴(10.9%)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불만(매우 포함)’이라는 응답은 48.8%로 전년에 비해서는 3.3%p 낮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감소함.
- 농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교육여건 열악’을 가장 많이 (28.8%) 꼽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시설 미흡’(22.8%), ‘일반인의 농

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1%), '주거환경의 열악'(18.7%)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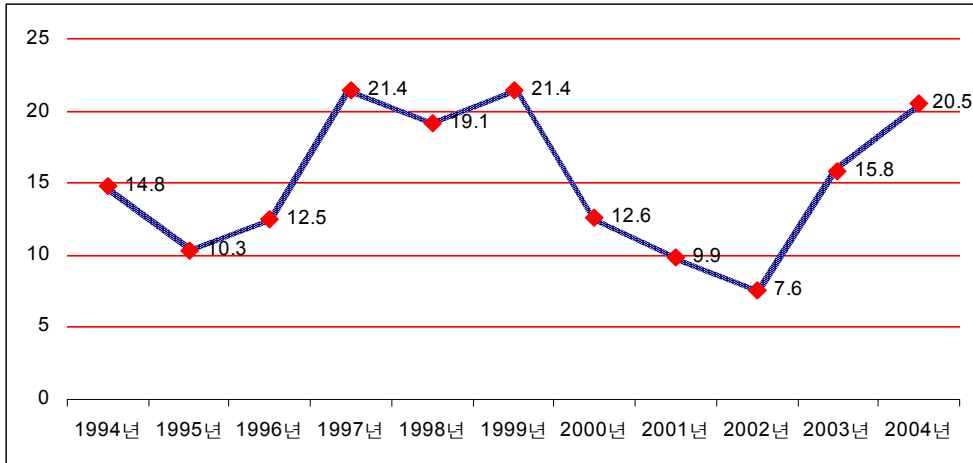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0세 미만 계층에서, 그리고 3ha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영농규모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2.2.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3년 이후 상승 추세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중 2명꼴(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매우 불만 포함)'은 40.1%로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7.7%p) 감소함.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10년 새 2002년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도에 20.5%로 집계됨으로써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2년째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음.
- 농업을 직업으로써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미흡'을 가장 많이(40.8%) 꼽아 소득 불안정에 대한 불만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래 불안'(38.5%),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1.2%), '힘든 육체적 노동'(8.9%), '좋지않은 일반인의 인식'(0.3%) 순으로 응답함.
- 농업종사에 '매우 불만족' 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집단은, 연령대로는 60세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주소득 작목별로는 과수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싶다’는 농업인은 25.3%로 전년(29.6%)보다 4.3%p 감소했으며, ‘도시에서 살고싶지 않다’는 의향을 가진 농업인이 63.2%로 전년(59.2%) 보다 4.0%p 증가해 점차 농촌을 떠날 의사를 가진 농업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최근 10년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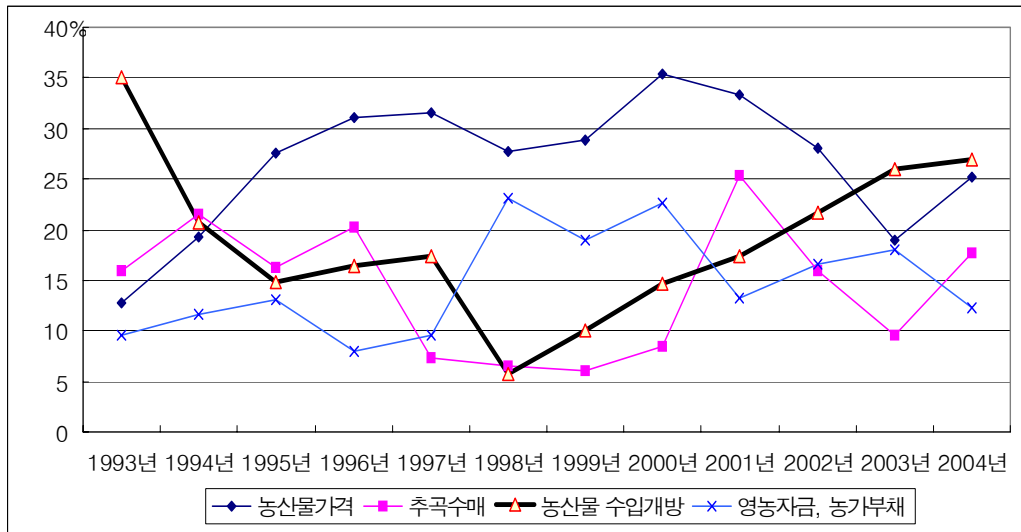


2.3. 수입개방에 관심이 많으며, 경영 여건이 점차 어려워진다고 생각

-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같은 관심도는 DDA, FTA, 그리고 2004년 하반기에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 최근 통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반응으로 보임.
- 최근 8년간 농업인의 관심사에서 수위를 유지했던 ‘농산물 가격 변동’은 3년 전부터 관심 정도가 줄면서 지난해 18.9%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심도가 역전되었으나, 2004년 다시 25.2%로 관심도가 높아짐.

- 이밖에, 특징적인 변화는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으로, 양곡유통위원회가 최초로 수매가 인하안을 제시했던 2001년 25.4%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간 이후 2003년에는 9.6%로 낮아졌다가 2004년에는 다시 수매가 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17.7%를 기록함.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항 변화



- 한편,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농촌인력 부족’(24.2%)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21.9%), ‘농산물 수입개방’(10.3%), ‘농작물 병충해와 기상·기후 조건’(10.1%)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음.
-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농사에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것은 최근 수년간 변화가 없었지만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3.8%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전년

(53.7%)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10.1%p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농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3.1. 농업인 대부분은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 2004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의 농업개방 세부원칙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압력이 강화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0년간 개방이 유예되었던 쌀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농업시장 개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됨.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 명, %)

	세계적인 대세		정부와 국민관심 정도로 막을수 있다		막을수 없으나, 농업개방 폭의 조절 가능		막을수 없으며, 농업개방 폭의 조절 불가능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55	16.8	51	15.5	198	60.4	22	6.7	2	0.6	328
60세 이상	74	17.2	66	15.3	223	51.7	49	11.4	19	4.4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1	16.8	83	17.2	251	52.0	49	10.1	19	3.9	483
2천만원 이상	48	17.4	34	12.3	170	61.6	22	8.0	2	0.7	276
계	129	17.0	117	15.4	421	55.5	71	9.4	21	2.8	759

-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 결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

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농업개방 폭의 조절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9.4%에 그쳐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농업인들은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적절히 대처할 계획’(44.2%),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18.4%), ‘농외소득원 확보 등 대안 마련’(12.2%)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응답자의 2.1%는 ‘전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2.5%는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고 응답해 10명중 2.5명 정도는 개방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개방 진전에 따른 농가 대응

(n=759, 단위 : 명, %)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농외소득 확충 등의 대안 마련		전직을 위한 준비		적절히 대처할 계획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재배 작목													
수도작	49	12.8	34	8.9	6	1.6	187	49.0	102	26.7	4	1.0	382
과수	27	25.2	9	8.4	6	5.6	46	43.0	19	17.8	—	—	107
노지채소	10	19.2	7	13.5	—	—	21	40.4	14	26.9	—	—	52
축산	11	16.9	12	18.5	1	1.5	25	38.5	16	24.6	—	—	65
시설원예	27	32.9	12	14.6	1	1.2	31	37.8	11	13.4	—	—	82
특작	11	23.9	12	26.1	2	4.3	15	32.6	6	13.0	—	—	46
기타	4	19.0	6	28.6	—	—	9	42.9	2	9.5	—	—	21
계	139	18.4	92	12.2	16	2.1	334	44.2	170	22.5	4	0.5	755

-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69.5%에서 74.8%로 5.3%p 증가하였고, 반면 소극적인 태도는 30.0%에서 24.6%로 5.4%p 감소함으로써 농업인의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3.2. 쌀농가소득안정직불제 등 쌀산업 조치 “정책 운영이 관건”

- 정부가 쌀 관세화 관련협상의 국내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쌀산업 조치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경작면적 조정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71.8%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해 전년(80.2%)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와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대다수는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경작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
-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2.5%,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에 머물렀고,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응답도 9.0%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3.5%였음.
-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벼농사를 주소득원으로 하는 농가(6.0%)보다 벼농사를 부소득원으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3배 이상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벼농사를 주소득원으로 하는 농가는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도 평균을 상회함.

- 한편, 경작면적 조정 여부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에서도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 조정 의사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2년도 조사에서는 2004년 쌀 재협상을 감안해 경작면적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20.4%였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단계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12.5%로 7.9%p 감소함으로써 개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산업 조치 발표 등에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한 국내 쌀산업 대책에 대한 반응

(n=759, 단위 : 명, %)

	적절한 조치 - 소득안정과 경쟁력 높일 것		실효성이 없는 임시방편		쌀산업을 오히려 악화		제도 운영에 따라 결과 달라질 것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주제배 작목											
수도작	18	4.7	104	27.0	79	20.5	170	44.2	14	3.6	385
과수	4	3.8	38	35.8	16	15.1	45	42.5	3	2.8	106
노지채소	1	1.9	22	42.3	9	17.3	15	28.8	5	9.6	52
축산	1	1.5	18	27.7	10	15.4	34	52.3	2	3.1	65
시설원예	2	2.4	28	34.1	17	20.7	32	39.0	3	3.7	82
특작	5	10.6	10	21.3	7	14.9	23	48.9	2	4.3	47
기타	2	9.5	5	23.8	2	9.5	10	47.6	2	9.5	21
계	33	4.4	225	29.7	140	18.5	329	43.4	31	4.1	758

- 쌀 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인 10명중 7명 (71.8%)은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경작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고,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침.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농업의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7%가 ‘고품질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꼽아 품질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23.6%), ‘브랜드화 등 유통 및 마케팅 혁신’(15.8%), ‘경영규모 확대’(11.5%), ‘기타’(1.5%) 등의 순으로 꼽음.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n=759,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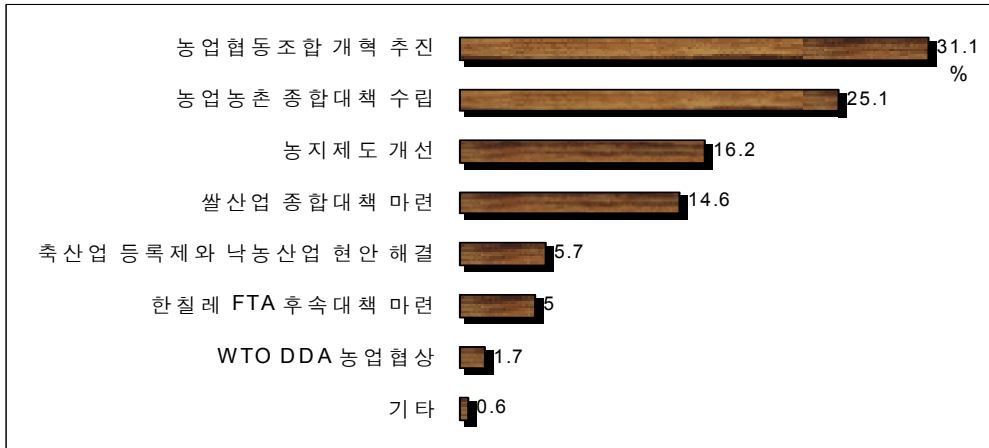
	가격경쟁력제고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화		브랜드화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주재배 작목											
수도작	91	23.9	55	14.5	181	47.6	47	12.4	6	1.6	380
과수	37	34.9	10	9.4	39	36.8	19	17.9	1	0.9	106
노지채소	15	29.4	6	11.8	22	43.1	7	13.7	1	2.0	51
축산	12	18.5	7	10.8	30	46.2	14	21.5	2	3.1	65
시설원예	13	15.9	4	4.9	44	53.7	21	25.6	-	-	82
특작	7	14.9	-	-	33	70.2	6	12.8	1	2.1	47
기타	2	10.0	4	20.0	9	45.0	5	25.0	-	-	20
계	177	23.6	86	11.5	358	47.7	119	15.8	11	1.5	751

4. 농정 현안과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

4.1. 참여정부 농업정책 중 협동조합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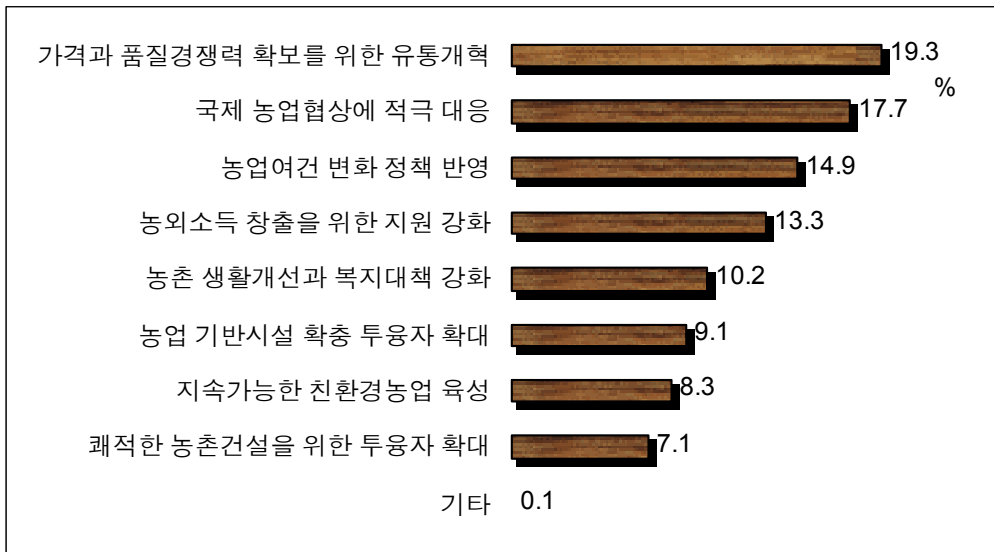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정시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 ‘농지제도 개선’(16.2%),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14.6%) 등으로 응답함.

2004년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의 긍정평가 순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농업여건 변화 정책 반영’(14.9%),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13.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인 21.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만족’(매우 포함)은 34.5%로 나타남.
- 불만족 요인으로는,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못할 것’(30.2%), ‘낮은 목표 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을 꼽음.

향후 역점 추진해야할 농업정책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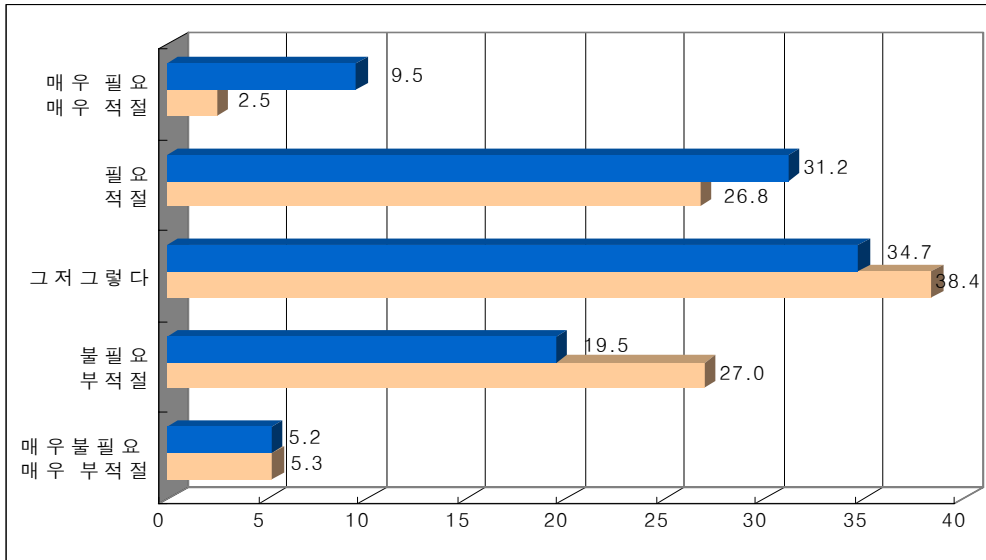


4.2.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대체로 긍정 평가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중 4명(40.7%)이 개정 필요성(매우 포함)에 대해 동의함.
- 상대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이 ‘불필요’(매우 불필요 포함)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인 비율은 24.7%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경우도 34.7%로 집계됨.
- 양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필요성 인식에 비해 개정내용에 대한 긍정인식이 다소 낮아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 ‘내년부터 당장 도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정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시기는 DDA협상 타결 이후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정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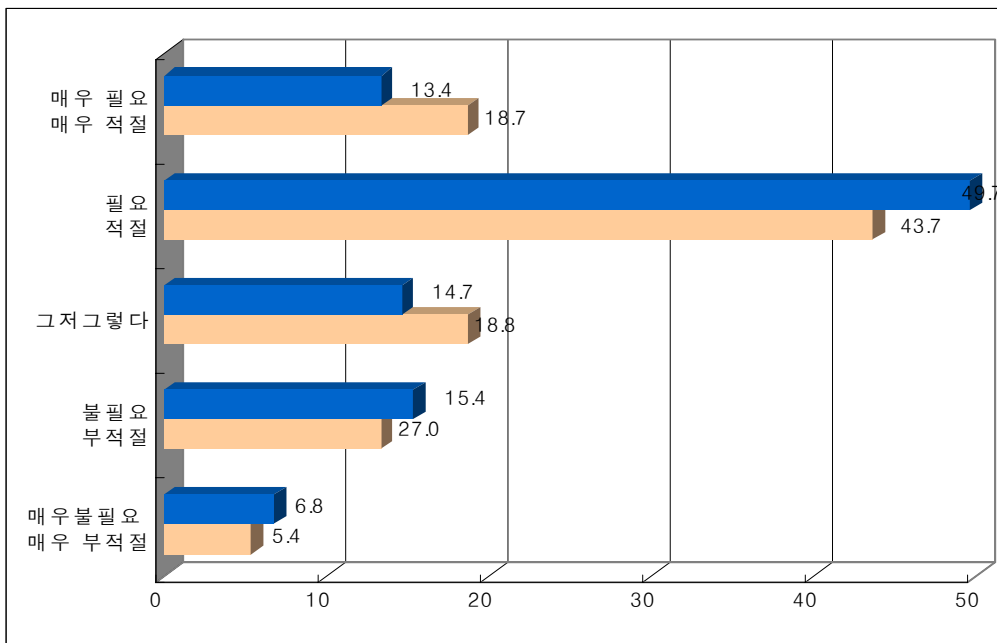


- 농업인들은 향후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현경작규모와 작부체계 유지’(42.7%) ‘경작규모 유지, 작부체계 변경’(33.3%), ‘영농규모 축소’(12.0%), ‘영농규모 확대’(5.6%) 등으로 응답함.
- 특히, 주 소득원을 쌀농사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영농규모와 작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과 영농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3. 소유규제 완화 등 농지제도 개편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농업인 6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고,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9.0%, ‘잘 모른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나 10명중 7명 정도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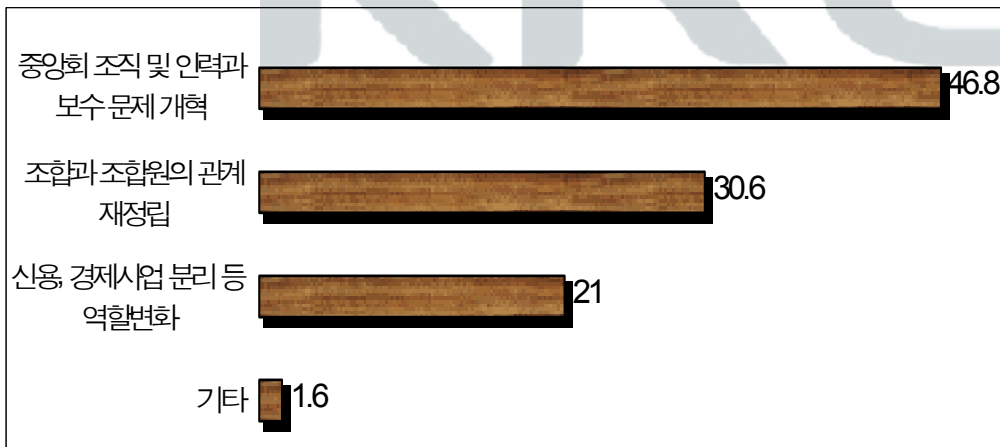


-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매우적절’(13.4%), ‘적절한 편’(49.7%) 등 전체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2.2%에 그쳐 긍정적인 견해가 뚜렷하여 개정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개정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4.4.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 33.7%는 ‘잘 진행되고 있다’ (매우 포함)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34.4%로 나타나 아직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제’를 가장 많이(46.8%)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30.6%),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역할 변화’(21.0%) 순으로 꼽아 농업인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협동조합 개혁 주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60.9%), 다음으로는 ‘정부’(14.4%), ‘농민단체’(13.8%), ‘협동조합 임직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인식



5. 조사결과와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업종사 만족도가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개방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농산물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농업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을 지키고 개방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반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한편으로, 개방에 대응해 상당수 농업인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농정이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현실감있게 수립된다면 정책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농업의 여건변화와 개방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쌀산업 발전방안과 농지제도 개편, 협동조합 개혁 등 정부가 최근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이같은 일련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의지에 상당수 농업인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내·외부의 개방압력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현장 농업인 간의 현실인식에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같은 농업인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식변화를 반영하여 시장개방 협상에 따른 각종 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KREI

품목별 집중분석: 양파, 당근,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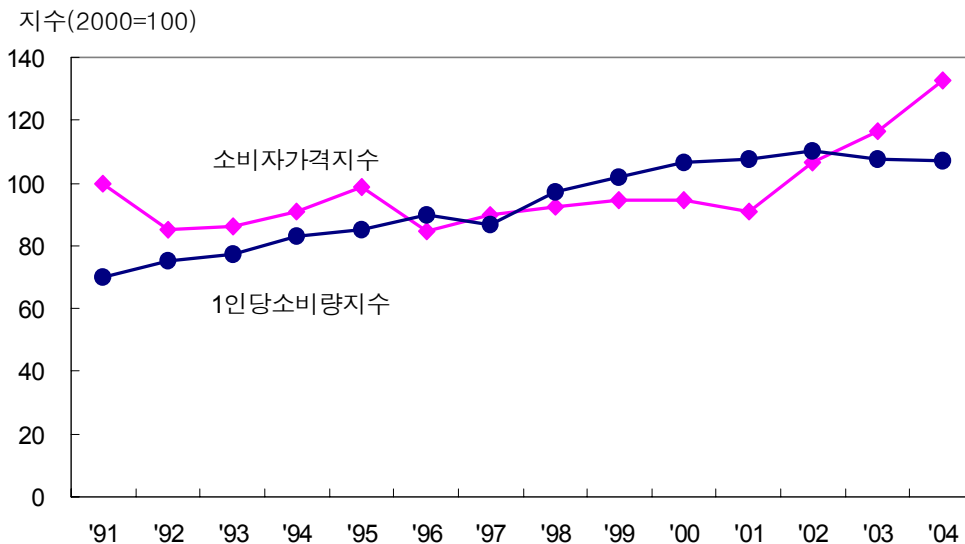
1. 양파³⁾

1.1 수급 동향

□ 연평균 1.6%씩 수요 증가

- 양파의 1인당 소비량은 1991년 12.3kg에서 2003년에 19.2kg으로 연평균 4.9%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연평균 1.6% 증가하여 2004년에는 21.1kg이었음.

양파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



- 주: 1) 1인당 소비량지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3개년 이동평균함.
 2) 소비자가격지수(2000=100)는 소비자물가지수(2000=100)로 디스플레이하여 3개년 이동평균함.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홍승지(hseungj@krei.re.kr) 부연구위원, 한석호(shohan@krei.re.kr)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 1990년대에는 1인당 소비량이 연평균 8.0% 증가한 반면 실질가격은 1.3% 감소하여 수요가 증가함. 2000년대에는 1인당 소비량이 연평균 1.6% 증가하였고 실질가격도 4.3%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단수 및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 27% 증가

- 양파 재배면적은 2004년에 1만 5,563ha로 2003년에 비해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 양파 생산 감소로 수확기 가격이 높았고, 동계작물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1%, 중만생종이 27% 증가하였음.
- 2004년 양파 단수는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2003년보다 1.0% 증가한 6,090kg이었음. 2004년 양파 생산량은 단수와 재배면적 증가로 2003년보다 27% 많은 94만 8,000톤이었음.

양파 재배형태별 재배면적과 단수 변화

단위: 천ha, kg/10a, 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재배면적	14.8	16.1	16.8	19.0	15.3	12.4	15.6
비율 조생종	15.3	12.4	11.9	17.7	16.3	18.6	17.8
(%) 중만생종	84.7	87.6	88.1	82.3	83.7	81.4	82.2
단 수	5,891	5,801	5,232	5,653	6,093	6,033	6,090
조생종	5,238	5,575	5,206	5,287	5,488	5,983	6,242
중만생종	6,002	5,864	5,065	5,725	6,210	6,045	6,057
생산량	872,143	935,828	877,514	1,073,708	933,095	745,203	947,774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각년도.

□ 2003년 이후 수입물량 증가

- 양파 수입은 1997년 이후 1~2만톤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국내 양파 생산량 감소로 9만 80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국내 양파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5만 300톤이 수입되었음.
- 양파의 TRQ 수입실적은 1997년 이후 국내 양파의 생산량 증가로 TRQ 기준량보다 적게 수입되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기준물량 전부가 수입되었음.
- 신선·냉장양파의 경우 1999년에 1만 2,000톤에서 2002년에는 485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7만 5,900톤, 2004년에는 3만 2,00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양파 수출은 국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던 1992년 1만 6,000톤과 1995년 2만 5,000톤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2002년 수출 실적은 6,500톤으로 이 중 건조양파가 5,500톤이었음.

양파 수입량¹⁾과 관세

단위: 천톤, %, 원/kg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TRQ수입량(A)	41.2 (13.3)	13.7 (14.2)	7.0 (15.1)	11.0 (16.0)	10.1 (17.0)	3.2 (17.9)	5.5 (18.8)	19.7 (19.7)	20.6 (20.6) ²⁾
민간수입량(B)	12.5	13.8	6.0	12.5	9.9	8.3	6.9	71.1	33.2
총수입량(A+B)	53.7	27.5	13.0	23.5	20.0	11.5	12.4	90.8	53.8
종가세	145.5	145.5	144.0	142.5	141.0	139.5	138.0	136.5	135.0
종량세	194	194	192	190	188	186	184	182	180

주: 1) 건조, 냉동, 초산조제양파는 신선·냉장양파로 환산한 물량임.

2) ()안은 TRQ 기준물량임.

자료: 관세청.

□ 2~3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높은 수준

- 양파의 공급량은 2001년 공급과잉과 국내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2003년을 제외하고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음.
- 2004년산 양파 공급량은 생산량 94만 7,800톤과, TRQ 2만 6,000톤, 민간수입예상량 4만 7,300톤을 더한 101만 5,700톤으로 2003년산 공급량보다 약 21% 많았음.
- 양파 총 소비량은 1996년에 64만 6,000톤(1인당 14.2kg)에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01만 5,700톤(1인당 21.1kg)이었음.

양파 수급(연산 기준¹⁾)

단위: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급	900.2	942.4	903.5	1,078.5	981.5	841.1	1,015.7
국내생산	872.1	935.8	877.5	1,073.7	933.1	745.2	947.8
TRQ	16.0	2.0	12.3	0.0	5.5	19.7	20.6
민간수입	12.1	4.6	13.7	4.8	6.9	76.2	47.3
전년이월	-	-	-	-	18.0	-	-
수요	900.2	942.4	903.5	1,078.5	981.5	841.1	1,015.7
국내소비	892.6	941.3	903.2	1,037.1	975.5	841.1	1,015.7
수출	7.6	1.1	0.3	3.4	6.0	-	-
차년이월	-	-	-	38.0	-	-	-
1인당소비량(kg)	18.7	19.6	20.5	20.7	20.6	17.6	21.1

주: 1) 연산은 4월~익년 3월.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년도.

- 2004년 4월~2005년 1월 양파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20% 높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6% 낮은 수준이었음. 이처럼 양파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저온저장 물량이 많았기 때문임.

- 2005년 2~3월의 양파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0%, 평년 동기보다 39% 높았음. 재고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부패율 증가로 저장 업체들이 출하를 앞당기면서 2~3월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적었기 때문임.

2.2 2005년 수급 전망

□ 2005년 생산량은 지난해대비 5% 증가 전망

- 금년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8% 증가한 1만 6,780ha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3% 감소하였고, 중만생종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은 작년 양파의 수확기가격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높았고, 작년 11월 이후 기온이 높아 정식가능시기가 예년보다 늦춰졌기 때문임.
- 금년산 양파 단수는 월동 초기에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좋았으나, 1월 이후 저온으로 고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산보다 2% 적을 것으로 조사됨.

금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톤

	작년			금년			증감률(%)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전체	15,563	6,090	947.8	16,780	5,949	998.4	7.8	-2.3	5.3
조생종	2,769	6,242	172.8	2,694	6,117	164.8	-2.7	-2.0	-4.6
중만생종	12,794	6,057	775.0	14,086	5,918	833.6	10.1	-2.3	7.6

- 앞으로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수 있으나, 추정재배면적에 예상단수를 적용할 경우 금년산 양과 생산량은 99만 8,400톤내외로 작년산 생산량 94만 7,800톤보다 5%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공급량 지난해대비 5% 증가할 전망

- 금년 총 공급량이 금년생산량 99만 8,400톤에 2005년도 추정수입량 5만 2,700톤(TRQ: 2만 600톤, 민간수입량: 3만 2,100톤)을 합하여 105만톤내외로 전망됨에 따라 공급과잉이었던 작년보다 5%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조생종의 경우 생산량이 16만 4,800톤으로 작년보다 5% 적으나 겨울철 저온현상으로 수확시기가 1주일 이상 늦추어져 4월 중순까지는 공급부족이 예상되나 4월 중순 이후에는 제주지역과 호남지역의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일시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됨.
- 중만생종의 경우 작년 생산량보다 8%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예상됨.

금년산 양과 수급전망

	2004	2005(추정)
관세율(%)	135.0	135.0
재배면적(천ha)	15.6	16.8
공급량(천톤)	1,015.7	1,050.1
국내생산량	947.8	998.4
이월·수입량	67.9	52.7
수요량(천톤)	1,015.7	1,050.1
국내소비량	1,015.7	1,050.1
이월·수출량	-	-
1인당소비량(kg)	21.1	21.8
자급률(%)	93.0	95.0

□ 4월 중순이후 양파가격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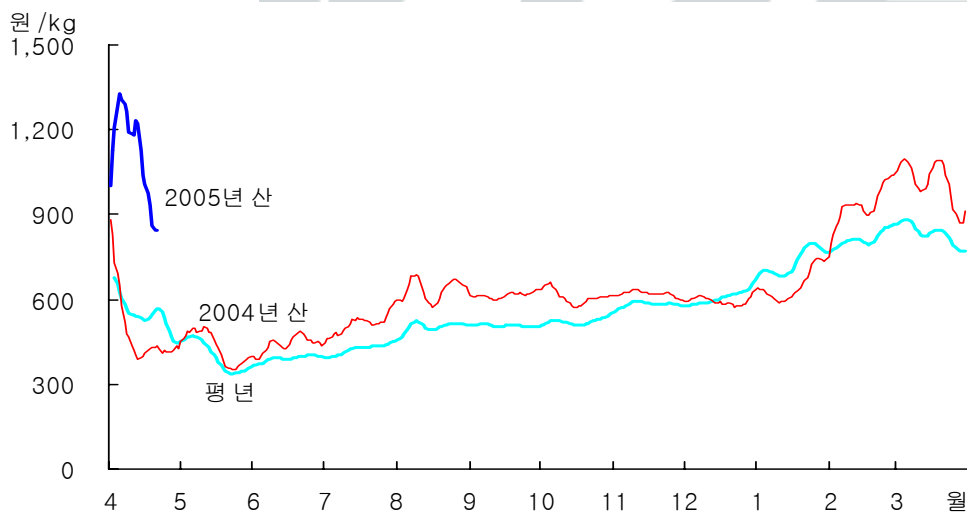
○ 조생종 가격 전망

- 조생종 수확기인 4월의 양파 공급량이 16만 4,800톤으로 작년 대비 5% 적고 수확시기가 1주일 이상 늦추어져 도매가격은 4월 중순 까지는 상품 kg당 1,120원이었으나, 중순 이후에는 제주지역과 호남지역의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일시적인 공급과잉으로 500원 내외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 중만생종 가격 전망

- 중만생종 생산량은 작년보다 8% 증가한 83만 3,600톤으로 추정되어, 수확기인 5~6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5% 낮은 상품 kg당 370원 내외 전망.
- 지난해 양파 저장으로 손실이 큰 저장업체가 금년산 양파 저장물량을 줄일 것으로 보여 산지구매를 기피할 경우 가격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9년 4월~2004년 3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중만생종 생산량과 5~6월 도매가격(상품 기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생산량(천톤)	776.5	899.7	796.0	608.1	775.0	833.6
가격(원/kg)	423	262	318	608	435	370

KREI

2. 당근⁴⁾

2.1 수급 동향

□ 2004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5%나 감소

- 2004년 당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2,166ha로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00년을 기준으로 볼때 당근 재배면적은 50.6%가 감소하여 주요 채소류 중 가장 큰 면적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

단위: ha, %

	2000	2001	2002	2003	2004	'00~'04 면적감소비
배추	51,801	49,539	39,236	47,686	45,040	-13.1
무	40,238	38,751	31,387	35,051	33,292	-17.3
고추	74,471	70,736	72,104	57,502	61,894	-16.9
당근	4,383	4,298	3,760	3,340	2,166	-50.6
마늘	44,941	37,118	33,153	33,140	30,237	-32.7
양파	16,773	18,995	15,314	12,352	15,563	-7.2
대파	15,160	13,519	13,331	13,315	16,346	22.8
쪽파	10,937	10,468	8,259	6,724	9,397	-14.1
감자	29,415	24,691	24,673	20,219	25,141	-14.5

주: 2004년 단수와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각년도.

-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 하우스당근과 강원지역 고랭지당근, 제주지역 겨울당근 순으로 면적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지역별 재배면적을 고려할 경우 제주지역의 재배면적 감소 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홍승지(hseungi@krei.re.kr) 부연구위원, 박영구(ygp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 특히 2004년 제주지역의 8~9월 해수 및 조풍피해로 인해 겨울 당근의 재파종이 불가능하여 실제 출하면적은 재배면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 당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2000	2001	2002	2003	2004	'00~'04 면적감소비 (%)
부산	162	166	154	59	48	-70.4
강원	614	713	395	396	243	-60.4
충남	192	196	98	85	143	-25.5
경북	149	196	165	154	87	-41.6
경남	431	461	440	420	319	-26.0
제주	2,541	2,330	1,991	2,032	1,172	-53.9
기타	294	236	199	194	154	-50.8
계	4,383	4,298	3,442	3,340	2,166	-50.6

자료: 농림부, 『주요채소류 재배동향』, 각년도.

- 당근 재배면적의 감소로 2004년 생산량은 2000년보다 50% 감소한 반면 가격은 동기대비 약 32%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음.

당근의 생산량과 가격변화

단위: 톤, 원/20kg

	2000	2001	2002	2003	2004	'00/'04 변화율 (%)
재배면적	4,383	4,298	3,442	3,340	2,166	-50.6
생산량	155,137	153,405	136,109	124,475	79,964	-48.5
평균도매가격	14,924	17,155	14,978	19,444	19,668	31.8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각년도.

- 이는 당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품질이 국내 당근과 크게 차이가 없어 빠른 속도로 국내 당근의 소비가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당근의 10a당 소득률은 주요채소류 중 중간정도인 67%이며, 상품화 비율은 8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소류의 소득 비교

단위: 10a, 원, %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률	상품화비율
배추	봄	1,343,613	356,887	838,297	62.4	90.5
	고랭지	1,325,409	474,217	851,192	64.2	89.0
	가을	1,713,089	459,703	1,253,386	73.2	89.6
무	봄	1,039,694	467,838	571,856	55.0	90.4
	고랭지	1,189,760	501,985	687,775	57.8	89.0
	가을	1,397,161	393,694	1,003,467	71.8	89.5
감자	봄	1,450,139	576,744	873,395	60.2	91.7
	가을	1,969,000	638,654	1,330,346	67.6	89.6
당근		2,088,960	689,966	1,398,994	67.0	80.0
양배추		1,510,974	516,562	994,412	65.8	90.5
대파		3,450,208	943,950	2,506,258	72.6	94.8
쪽파		2,967,928	970,859	1,997,069	67.3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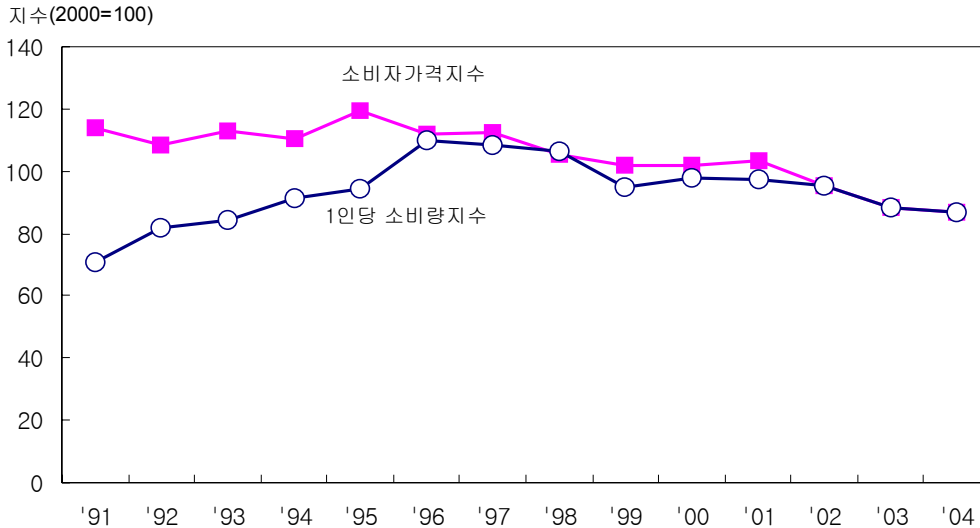
자료: 농진청, 『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 2003.

□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요량은 감소 추세

- 당근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1991년 2.8kg에서 1997년에 4.7kg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3.2~3.5kg에서 정체되었고, 2004년에는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8kg으로 감소하였음.

- 1991~96년의 1인당 당근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가격은 비슷하여 수요는 증가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1996년 이후 당근의 소비자와 가격과 1인당 소비량이 동시에 감소하여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임.

당근 1인당 소비량과 가격 동향



주: 1) 소비자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0=100)로 디플레이트하여 3개년 이동평균함.

2) 1인당 소비량지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3개년 이동평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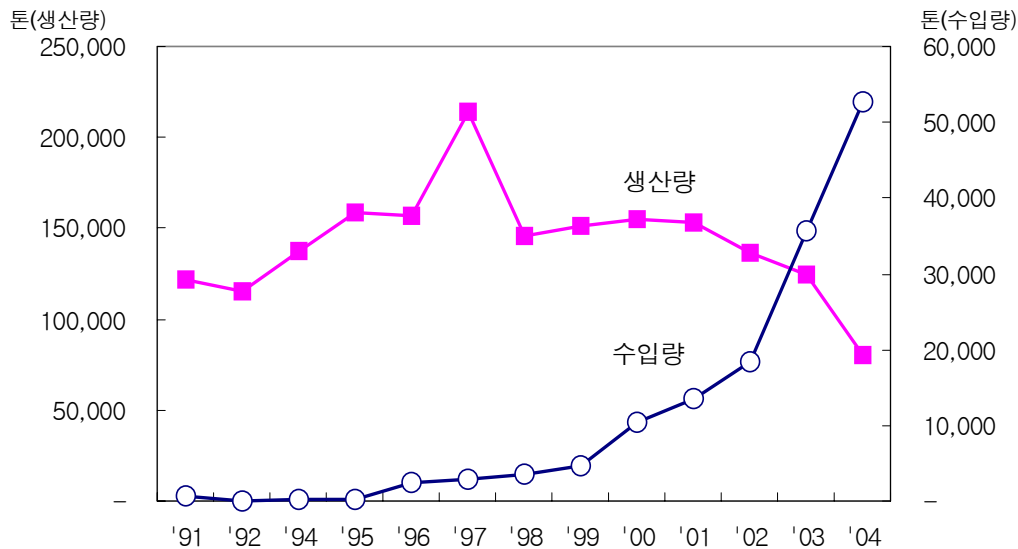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각년도, 통계청.

□ 1/4분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두배 이상 증가

- 당근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2004년 현재 약 5만 7천톤으로 2003년에 비해 62%나 증가하였음. 올해도 1월에 3,493톤, 2월 3,247톤, 3월에 10,260톤으로 1/4분기에만 이미 17,000톤이 수입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는 겨울철 당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된 이유도 있으나, 산동성 봄당근이 출하되는 5월 이전에도 하문지역 등지에서 냉장당근이 대량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임.

- 품질이 좋은 수입 당근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올해 상반기 특품(10kg 기준)의 경우 8,500~10,000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음.
- 4월 21일 현재 국내 상품 10kg당 평균가격이 8,000원 내외이므로 중국산 특품과 한국산 상품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며, 수입 당근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임.
- 품질이 낮은 당근도 국내 대량 식자재업체 및 요식업소에서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수입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

당근의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 수입단가를 볼 때, 2002~04년의 중국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국산 당근의 한국내 판매가능가격(수입자 이윤 포함)을 추정한 결과, kg당 380~480원으로 한국산 가격의 85% 미만으로 나타나 중국산 수입이 연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당근의 한국내 판매가능가격 추정

단위: 원/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산 도매시장가격 ¹ (A)		649	593	539	718	890	1,062	998	1,048	1,130	1,252	1,195	953
수입품 가격구 성	수입량 ²	84	47	34	54	90	205	1,346	1,990	2,999	3,768	2,718	1,214
	수입단가 ³	180	190	189	215	200	183	149	175	171	166	142	146
	관세 및 유통마진 ⁴	246	250	250	263	255	247	230	243	241	239	227	229
	국내판매가능가격 (B)	425	440	439	478	455	430	379	418	412	405	370	375
가격비교(%) (B/A*100)		67.3	77.1	70.3	83.4	52.3	39.3	38.5	42.1	39.0	33.5	31.8	43.5

주: 1. 국산 도매시장가격은 2002~04년의 가락시장 월별 평균가격임.

2. 수입량은 1998~03년 수입량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수입량임.

3. 수입단가는 2002~04년의 중국 대중사(신발지)도매시장 월별 평균가격([www. kati.net](http://www.kati.net)에서 주1회 제공하는 일별가격자료를 이용한 산출치임.)에 해상운임을 포함한 가격임.

4. 관세 및 유통마진 = 관세(30%)+통관비용+물류비+수입업체이윤(10%)+도매시장상장수수료.

2.2 2005년 수급 전망

□ 5~6월 출하량은 지난해대비 21% 감소 전망

○ 5~6월 국내 출하면적은 3월 부산지역 폭설피해로 인해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봄철 추위로 인해 작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수는 작년보다 3% 적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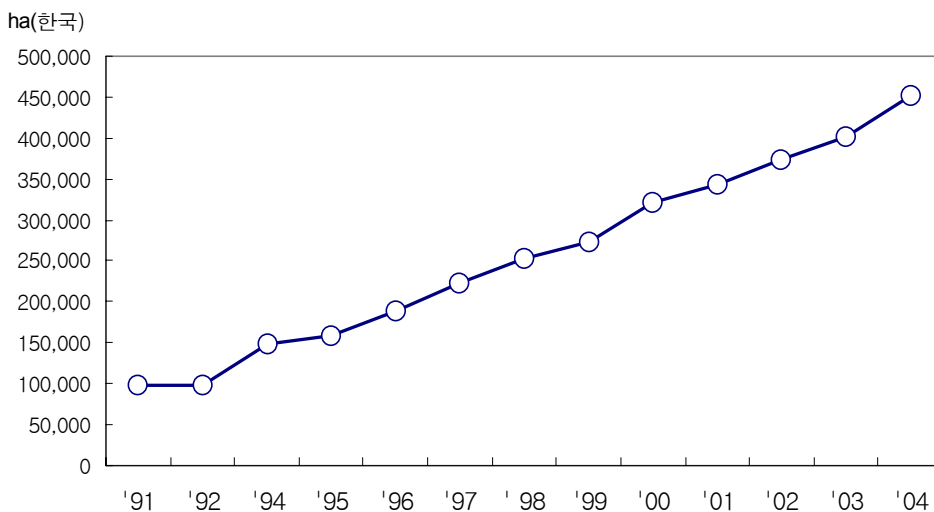
○ 5~6월의 당근 저장량은 제주지역 당근 재배면적 감소와 품질 저하에 따라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어 작년보다 37%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국내 노지출하물량과 저온저장량을 감안한 5~6월의 당근 국내 출하량은 작년보다 21% 적을 것으로 전망됨.

□ 5~6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

- 당근 수입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중국 산둥성 당근의 영향으로 5월의 당근 수입량은 작년보다 약 41% 증가한 5,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6월의 경우 작년 같은 시기의 가격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수입량은 5월보다 많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당근 산지는 기존의 대표적 주산지인 산둥, 하북, 내몽골 지역에서 섬서, 산서, 흑룡강 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주산지의 재배면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과 한국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 기피로 인해 중국의 당근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당근 재배면적 추이



□ 5~6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

- 현재 중국의 당근 산지는 기존의 대표적 주산지인 산둥, 하북, 내

몽골 지역에서 섬서, 산서, 흑룡강 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주산지의 재배면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과 한국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 기피로 인해 중국의 당근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월의 당근 국내 출하량은 저온저장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작년보다 21% 적으나, 수입량은 작년보다 약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20kg 당 도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19,000~20,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당근 산지는 기존의 대표적 주산지인 산둥, 하북, 내몽골 지역에서 섬서, 산서, 흑룡강 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주산지의 재배면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과 한국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 기피로 인해 중국의 당근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월의 당근 출하량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의 출하면적의 변화가 크게 없고 생육기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출하물량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시기 당근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로 인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격도 작년(19,442원)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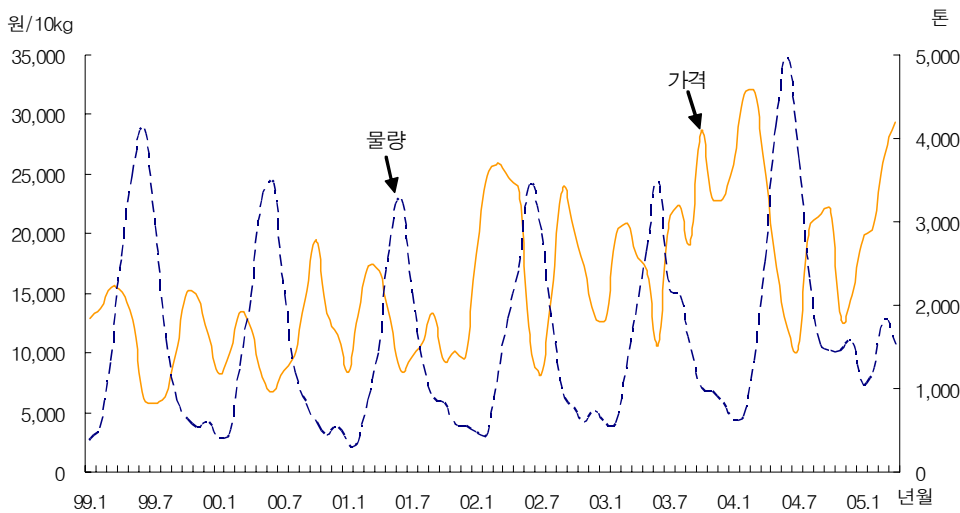
3. 토마토⁵⁾

3.1 거래 동향

□ 4월 토마토 가격은 지난해보다 9% 높은 수준

- 4월 토마토 가격(상 · 중순 평균)은 상품 10kg 상자당 2만 8,000 원으로 지난해보다 9% 높은 수준임.
- 토마토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데 토마토 가격이 높은 것은, 참외, 딸기, 오렌지 등 대체 과일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
 - 대체과일의 지난해대비 가격상승률: 참외 65%, 딸기 26%, 오렌지 34%
 - 대체과일의 지난해대비 공급량감소율: 참외 -64%, 딸기 -10%, 오렌지 -12%(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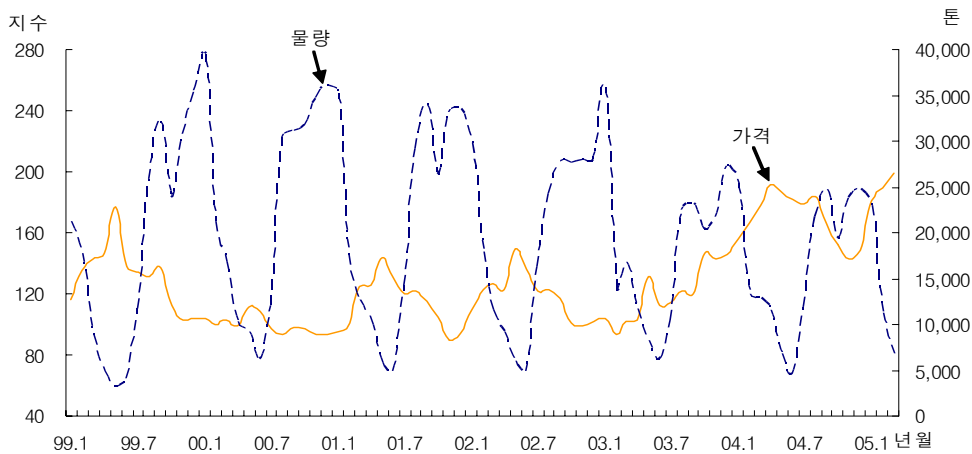
토마토 공급량과 가격 추이



주: 가격은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yslee@krei.re.kr) 연구위원, 최익창(cyc@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대체 과일 공급량과 가격 추이



주: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토마토물가지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통계청

- 과일 공급량이 적은 것은 1월말 이후 기온이 낮아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의 생육이 부진한데다 사과, 배 등의 저장 과일도 부족하며 오렌지 등 수입 과일 물량도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임.

□ 1~3월 토마토 가격은 지난해보다 25% 낮았음

- 1~3월 토마토 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2만 2,260원으로 1~3월 토마토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토마토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9% 많았기 때문.

1~3월 토마토 작년 · 평년대비 공급량과 가격

	2005년	2004년	평년	작년대비 변화율(%)	평년대비 변화율(%)
가격(원/10kg)	29,817	22,259	17,928	-25.3	24.2
공급량(톤)	2,598	3,340	2,167	28.6	54.2

주: 가격은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2 수요 동향

- 토마토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과거에 비해 증대

- 1~3월 토마토 공급량은 평년에 비해 54% 많았지만 가격은 평년보다 24% 높았음. 공급량이 많은데도 가격이 높은 것은, 토마토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증대되었음을 나타냄.
- 토마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3년 7월 이후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3년 7월부터 TV, 신문 등의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토마토에 대한 홍보 활동이 확대되었기 때문.
- 2003년 하반기(7~12월)의 토마토 관련 신문기사 검색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토마토 가격은 전년에 비해 40% 높았음. 한편 2004년 상반기(1~6월) 신문기사 검색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76% 증가하고, 토마토 가격은 44% 높았음.

□ 대중매체에 의한 토마토 홍보 효과는 감소 추세

- 2004년 하반기(7~12월) 대중매체 홍보횟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3%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26% 하락함. 2004년 하반기에 이어 2005년 1/4분기(1~3월) 토마토 가격도 전년 동기에 비해 25% 하락함.
 - 이는 2004년 하반기에도 TV 등을 통한 토마토 홍보활동이 계속되었으나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 효과가 2004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토마토 관련 기사 검색건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3월	144	138	187	187	328	299
4~6월	202	215	220	210	371	-
7~9월	165	174	216	266	366	-
10~12월	175	140	212	248	265	-
합계	686	667	835	911	1,330	-

주: 중앙일간지 및 경제일간지의 기사 검색건수임.
 자료: 한국언론재단(www.kind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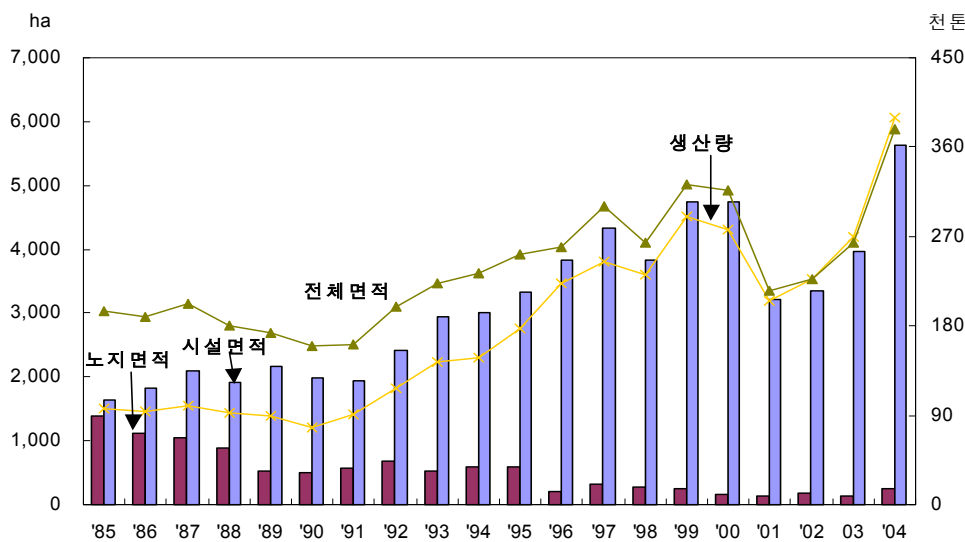
- 2004년 하반기 이후에도 토마토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이는 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평년에 비해서는 증대되었음을 뜻함.

3.3 생산 동향

□ 2002년 이후 토마토 생산량은 증가 추세

- 토마토 재배면적은 1990년대 초에는 3,021ha 이었으나 최근에는 2배 많은 5,883ha 수준이 됨. 재배면적은 1990년대 후반에 연평균 5%씩 증가, 2000년대에는 연평균 8%씩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증가 폭이 커짐.
 - 특히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에 비해 43% 증가하여 5,883ha 가 됨.
 - 토마토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오이 등 대체작물에 비해 가격이 유리하고 노동력도 절감되며 시설재배에 요구되는 유류비 부담도 적은 편이기 때문.

연도별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 토마토 단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증가하였으나 후반부터는 연평균 2%씩 완만하게 증가함.
 - 1990년 후반 평균 5,567kg → 2000년대 평균 6,381kg
- 토마토는 최근 수년간 재배면적과 단수 모두 증가하여 생산량은 연평균 12%씩 증가함. 특히 2002년 이후 토마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함.

3.4 수급 및 가격 전망

□ 5월 이후 토마토 공급량은 지난해대비 50%내외 증가할 전망

- 토마토 재배(정식)면적은 강원, 경기 등지에서 오이, 호박, 가지 농가들이 토마토로 전환한 면적이 많아 지난해보다 53~5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토마토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5월	6월
출하예정면적	55.8	53.2
단수	-3.3	-
출하예상량	50.6	53.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관측월보(과채)」, 2005년 5월호.

□ 토마토 수요는 평년보다는 많지만 지난해 수준 전망

-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대비 5%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토마토 수요는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토마토에 대한 대체수요는 5월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5월 이후 토마토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 5월 이후 토마토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겠으므로 토마토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향후 토마토 가격은 토마토 공급량뿐 아니라 참외, 수박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동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KREI

< 일반토마토 소비자 조사결과 >

- 일반토마토 구매행동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20~30대의 구입량 증가율이 40~50대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토마토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비자가 지난해에 비해 일반토마토를 선호하게 된 요인은 ‘영양가(건강)’ 48%, ‘맛(당도, 씹는맛)’ 22%, ‘적당한 크기’ 10%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남. 이는 토마토에 대한 수요는 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함.
- 토마토 1인당 구입량은 주부나이가 많고 가족수가 적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됨. 단 20대 연령층의 1인당 토마토 구입량은 30대나 40대의 연령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 · 가족수 · 소득별 1인당 토마토 월 구입량

단위: 개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3	11	12	19
가족수	2인이하	3인	4인	5인이상
	20	12	13	10
소득	200만원미만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
	13	11	14	17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관측월보(과채)」, 2004년 9월호.

미국과 호주의 2005년 농업전망⁶⁾

1. 미국의 농산물 무역전망⁷⁾

- 2005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590억달러로 전망되어 580억달러로 예상되는 수입액으로 인해 10억달러의 수출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2004년에 비해서는 세계 곡물, 대두, 면화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농산물 무역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50.7	52.7	53.3	56.2	62.3	59.0
수입	38.9	39.0	41.0	45.7	52.7	58.0
무역수지	11.9	13.7	12.3	10.5	9.6	1.0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Bureau of 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수출액이 증가한 원인은 세계시장에서의 주요 수출국들의 화폐가치에 비해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되었고 국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대두와 면화의 가격 증가도 수출액의 증가를 예상하게 함.
- 2005년의 농산물 수입액은 580억달러로 전망된다. 2003년 이후 빠른 수입 증가세는 수입가격이 낮아진 곡물류에 기인함. 인구증가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장재봉 연구원(jbchang@krei.re.kr)이 미국 농무부산하 ERS와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에서 개최한 농업전망대회(2005년 2-3월)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7) USDA,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February 24, 2005.

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입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원예작물이 50-60%를 차지하며, 생우 및 쇠고기 수입도 상당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1.1 세계 경제 전망

- 2005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다소 하락할 전망이나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3%, 세계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으로 전망된다. 2004년의 고성장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하여 공산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

가. 선진국

- 매우 낮은 수준이던 2004년의 미국의 장기금리는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국제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단기금리가 높음에 따라 2005년에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연방준비위원회(FRB)는 단기금리를 2005년에 계속하여 증가시킬 전망이다.
-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는 2005년에 GDP 증가율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전망이 밝아 캐나다 달러화는 1991년 이후 미국 달러화에 비해 강세를 유지해 왔으며, 캐나다 중앙은행이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 유지를 위해 미국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단기금리 기조를 지속함.
- 2004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4.2%였으나 2005년에는 2.4% 수준으로 전망됨. 일본의 경제성장은 주로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에 기인함.
- 유럽연합은 전년에 이어 계속해서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에 소폭 증가한 2.4%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유로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 탓임.

나. 2005년 세계 경제

-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임. 중국 경제성장으로 2003년 말부터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여 원유와 중간재 등의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함. 이러한 중국의 원자재 수입량 증가로 국제 운송료가 함께 상승함.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신용할당을 단행함. 그러나 중국의 수입량은 2004-05년의 미국 수입량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 증가로 인해 공산품 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세계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2004년 GDP 성장률은 9%를 초과하였으며, 2005년에도 8%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다. 개발도상국

- 2005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5%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아시아는 급속한 성장률을 계속하여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7%를 넘었으나 2005년에는 6%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보임. 2004년에 7%를 넘었던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05년에도 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5-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의 주요 5개 국가들 역시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4%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브라질은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5년에 3.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2004년에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던 아르헨티나는 2005년에는 4%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폐소화의 가치하락으로 2005년에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멕시코는 미국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2004년에 4% 수준의 성장률은 2005년에

도 유지할 전망이다. 강력한 수출정책을 표방하는 칠레 역시 2004년에 기록하였던 5%대의 GDP 성장률을 계속하여 달성할 전망이다.

라. 환 율

- 2002년 2월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달러화는 2004년 12월까지 약 18% 평가절하 됨. 동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과 비교하면 평가절하 비율이 36%를 넘어섬.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임.
- 2002년 2월 이후, 미국 달러화는 OECD 주요 회원국들의 화폐가치에 비교해서 그 가치가 하락함. 이러한 약달러 기조는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 감소가 예상됨.

1.2 품목별 수출 전망

- 곡물과 사료의 수출은 잡곡류의 수출 감소를 가공곡류의 수출증가가 상쇄하여 151억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5년의 소맥과 밀가루 수출은 소맥 수출이 200,000톤 감소한 2,6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4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단위당 가격은 2004년에 비해 조금 하락한 톤당 154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 미국의 잡곡류 수출은 5,300만톤에 5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출물량은 세계 잡곡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아르헨티나와의 치열한 경쟁 등의 이유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쌀 수출물량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수출액은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달러

품 목	2003	2004	2005
곡물 및 사료 ¹	14.839	17.940	15.1
소맥 및 밀가루	4.027	5.170	4.1
쌀	0.930	1.214	1.0
잡 곡 ²	5.147	6.469	5.2
옥수수	4.534	5.841	4.7
사료곡물	2.588	2.684	2.6
유지류 및 부산물	10.180	11.171	10.0
대 두	6.514	7.463	6.1
대두박	1.126	1.079	1.0
대두유	0.558	0.288	0.3
축산물	9.062	7.048	7.1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5.174	3.408	3.4
가축, 모피	1.785	1.767	1.7
가금육류	2.104	2.513	2.7
닭고기 ³	1.370	1.686	1.8
낙농품	0.979	1.272	1.7
담 배	1.001	1.050	1.1
면 화	2.854	4.537	3.4
종자류	0.812	1.020	0.8
원예작물	11.898	13.261	14.5
과일 및 조제품	3.554	3.820	4.1
채소 및 조제품	3.017	3.141	3.5
견과류 및 조제품	1.490	1.888	2.2
설탕 및 열대성 작물	2.452	2.486	2.6
주요 벌크 품목 ⁴	20.355	25.825	20.9
계	56.183	62.299	59.0

주: 1. 두류, 가공 곡물 포함

2.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포함

3. 연방 검역대상 품목만 포함

4. 소맥, 쌀, 잡곡류, 대두, 면화, 담배 포함

자료: USDA; U.S. Department of Commerce.

품목별 농산물 수출량 전망

단위: 백만톤

품 목	2003	2004	2005
밀	24.296	31.148	26.0
밀가루	0.448	0.276	0.3
쌀	4.478	3.722	3.7
잡 곡	46.055	52.634	53.0
옥수수	40.780	47.579	48.0
사료곡물	11.814	11.751	10.8
유지류 및 부산물	37.825	32.399	37.4
대 두	28.509	24.447	27.5
대두박	5.461	3.941	5.2
대두유	1.027	0.424	0.6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1.991	1.414	1.4
닭고기	2.158	2.115	2.4
동물성기름	1.329	1.188	1.2
담 배	0.150	0.163	0.2
면 화	2.514	3.022	2.9
원예농산물	7.981	8.039	8.1
설탕 및 열대성 작물	1.268	1.264	1.3
주요 벌크 품목	106.002	115.135	113.3

주: 1.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포함

2. 연방 검역대상 품목만 포함

3. 소맥, 쌀, 잡곡류, 대두, 면화, 담배 포함

자료: USDA; U.S. Department of Commerce.

- 유지류 및 그 부산물의 수출은 3,740만톤 수준에 대두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99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식물성 기름과 가공 유지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가격경쟁력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축산물 및 낙농품 수출액은 11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적색육과 낙농품이 수출의 상당량을 차지할 전망으로, 특히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적색육은 140만톤, 34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멕시코,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출 판매가 증가하여 돼지고기 수출량은 800,0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쇠고기는 대멕시코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단위당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일본과 한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다는 가정하에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 무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 미국 원예작물의 2005년 수출액은 수출수요가 증가하고 달러화 약세의 여파로 14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세계 경제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년대비 12억달러가 상승한 수치이다. 2004/05년 플로리다의 포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68% 감소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는 생산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토마토 등 신선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 지역별 수출 전망

- 2005년에도 서반구지역은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지역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캐나다를 위주로 한 북미지역이 102억달러로 동아시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에 이어서 멕시코가 85억달러, 일본이 77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역별 농산물 수출 전망

단위: 10억달러, %

국 가	2003	2004	비 중	2005
아시아	21.661	24.345	39.1	20.7
동아시아	18.075	20.566	33.0	17.0
일 본	8.811	8.531	13.7	7.7
중 국	3.484	6.096	9.8	4.6
홍 콩	1.060	0.991	1.6	0.8
대 만	1.946	2.141	3.4	1.7
한 국	2.761	2.778	4.5	2.2
동남아시아	2.943	3.117	5.0	3.1
인도네시아	0.918	0.978	1.6	1.0
필리핀	0.653	0.684	1.1	0.7
말레이시아	0.379	0.376	0.6	0.4
태 국	0.627	0.677	1.1	0.7
서반구	21.517	23.180	37.2	23.6
북 미	16.743	17.943	28.8	18.7
캐나다	9.133	9.540	15.3	10.2
멕시코	7.610	8.403	13.5	8.5
캐리비언	1.525	1.842	3.0	1.8
중 미	1.346	1.397	2.2	1.5
남 미	1.902	1.997	3.2	1.6
브라질	0.361	0.325	0.5	0.3
콜롬비아	0.523	0.599	1.0	0.6
베네주엘라	0.388	0.390	0.6	0.4
유럽/유라시아	7.396	8.246	13.2	8.7
유럽연합-25	6.310	6.816	10.9	7.0
기타	0.426	0.430	0.7	0.4
FSU-12	0.660	1.001	1.6	1.3
러시아	0.501	0.736	1.2	1.0
중 동	2.387	2.747	4.4	2.6
터 키	0.877	0.919	1.5	0.9
사우디아라비아	0.320	0.353	0.6	0.4
아프리카	2.256	2.991	4.8	2.6
북아프리카	1.204	1.636	2.6	1.3
이집트	0.832	0.979	1.6	0.8
사하라 아프리카	1.052	1.355	2.2	1.3
오세아니아	0.785	0.568	0.9	0.6
기 타	0.181	0.222	0.4	0.2
계	56.183	62.299	100.0	59.0

주: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포함

2. 발트 공화국을 제외한 15개 소련연방 공화국

자료: USDA; ERS.

- 미국 농산물의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은 2005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료용 곡물과 원예작물 수입에 기인한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대두와 면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의 61억달러에서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5대 수출시장이 될 것이다.
- 대일본 수출액은 77억달러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물량 기준으로는 16%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두 가격이 하락하였고 여전히 일본의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1.4 품목별 수입 전망

- 2005년의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58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수입 수요의 중요한 지표인 미국 경제성장률은 3.3%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식료품과 농산품 수입은 인구증가와 소득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로부터의 생우 수입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2005년 생우 수입은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의 최소위험정책하에 캐나다로부터 30개월령 이하의 생우들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미국의 원예작물 수입액은 25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 혹은 냉동채소류와, 견과류, 와인, 향유, 과일 및 채소 가공품 등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신선 및 냉동 과일류와 맥주의 수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수입 원예작물 가운데 단가가 높은 품목들로는 딸기류, 포도, 과일쥬스, 견과류, 채소 등으로 이들 품목은 대부분이 미국과 생산 일정이 반대되는 남반구로부터 수입되나, 최근 들어 운송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 농산물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톤

품 목	2003	2004	2005
와 인 ¹	6.187	6.339	7.0
맥 주 ¹	26.996	28.379	27.0
생 우 ²	2.207	1.477	2.5
쇠고기	1.353	1.164	1.2
돼지고기	0.533	0.483	0.5
낙농품 ³	0.320	0.378	0.3
곡 물	3.832	4.530	5.0
과 일		7.772	8.0
견과류		0.320	0.4
채 소	4.732	4.888	5.2
식물성기름	1.841	2.254	2.3
설탕 및 가공품	2.309	2.458	2.3
코코아 및 가공품	0.977	1.209	1.1
커피 및 가공품	1.332	1.305	1.1

주: 1. 100리터 기준

2. 백만두 기준

3. 치즈, 카세인, 버터

자료: USDA; U.S. Department of Commerce.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달러

품 목	2003	2004	2005
축산물 및 가공품	8.594	10.353	11.9
생축(가금류 제외)	1.673	1.320	2.0
적색육 및 가공품	4.020	5.527	6.0
쇠고기	2.392	3.506	3.9
돼지고기	1.150	1.330	1.5
낙농품	1.866	2.332	2.6
곡물 및 사료	3.892	4.199	4.4
곡 물	0.649	0.658	0.6
곡물가공품	2.706	2.994	3.3
원예농산물	20.203	22.918	25.6
과 일	1.164	3.971	4.1
바나나	2.523	1.090	1.2
과일(조제품 및 주스)	1.692	1.836	2.1
견과류	0.724	0.952	1.4
채 소	3.701	4.087	5.0
채소(조제품)	2.500	2.759	3.1
와 인	3.186	3.319	3.6
맥 주	2.591	2.805	2.7
절화류	1.216	1.362	1.5
향 유	0.906	1.825	2.2
담 배	0.670	0.761	0.6
유지류	2.009	2.933	3.3
식물성 기름	1.595	2.253	2.5
설탕 및 가공품	2.111	2.214	2.1
코코아 및 가공품	2.273	2.586	2.2
커피 및 가공품	1.949	2.163	2.
고무류	1.032	1.331	2.1
차, 양념류	1.457	1.621	1.4
기타 음료 및 종자류 등	1.494	1.714	2.1
계	45.686	52.701	58.0

자료: USDA; U.S. Department of Commerce.

1.5 지역별 수입 전망

지역별 농산물 수입 전망

단위: 10억달러, %

국 가	2003	2004	비 중	2005
서반구	23.976	26.855	51.0	29.5
캐나다	10.252	11.277	21.4	12.0
멕시코	5.995	7.023	13.3	8.0
남 미	5.247	5.940	11.3	6.8
브라질	1.465	1.637	3.1	1.7
콜롬비아	1.031	1.133	2.1	1.3
칠 레	1.200	1.317	2.5	1.5
기타 남미국	1.551	1.854	3.5	2.4
중 미	2.106	2.251	4.3	2.4
코스타리카	0.845	0.903	1.7	0.9
기타 중미국	1.261	1.348	2.6	1.5
캐리비안	0.377	0.364	0.7	0.4
유럽 및 유러시아	10.655	12.515	23.7	13.5
유럽연합-25	9.996	12.078	22.9	13.0
기타 유럽국	0.580	0.378	0.7	0.5
소련 연방	0.080	0.060	0.1	0.1
아시아	5.998	7.359	14.0	8.7
동아시아	1.951	2.481	4.7	2.7
중 국	1.184	1.579	3.0	1.8
기타 동아시아	0.767	0.903	1.7	1.0
동남아시아	3.282	3.993	7.6	4.8
인도네시아	1.158	1.445	2.7	1.7
태 국	0.889	1.027	1.9	1.3
기타 동남아	1.235	1.520	2.9	1.9
남아시아	0.765	0.885	1.7	1.2
인 도	0.692	0.810	1.5	1.0
오세아니아	3.318	4.035	7.7	4.6
호 주	1.976	2.387	4.5	2.8
뉴질랜드	1.287	1.573	3.0	1.7
아프리카	1.198	1.344	2.5	1.1
중 동	0.536	0.593	1.1	0.7
터 키	0.313	0.352	0.7	0.4
계	45.686	52.701	100.0	58.0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ensus Bureau; Department of Commerce.

- 2005년에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유례없는 수준인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생우와 육류이며 신선 채소와 같은 원예작물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부터의 원예작물이 4억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아보카도, 망고, 멜론, 딸기류, 파인애플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REI

2. 호주의 농업전망⁸⁾

2.1 농가생산 순수익

- 2005/06년의 호주 농가 생산의 순수익은 생산관련 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2% 감소한 51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로 축산물과 관련 부산물의 큰 폭의 가격 하락에 기인하는데, 이들 품목들의 가격 하락은 쇠고기, 양고기, 양모, 낙농품의 생산 증가에 의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2005/06년 경종 생산관련 지수는 곡물, 유지류, 설탕, 목화, 와인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09/10년까지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가 생산의 순수익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2.2 농가 판매가격

- 호주는 농업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호주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은 국제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음. 2005/06년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호주 농가들의 축산물에 대한 판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를 가정할 경우의 효과를 상쇄하는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농가 구입가격

8) ABARE, "Agricultural Outlook to 2009-10", March 2005.

- 2005/06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화학비료 및 연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1% 상승할 전망이다. 2009/10년까지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호주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경종 생산 투입재의 증가 등으로 인해 11% 증가할 전망이다.

2.4 농산물 수출

- 2005/06년의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2억 3,700만 호주달러 증가한 28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9/10년까지 수출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순수익은 큰 변화없이 280억 달러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경종 수출의 증가가 축산물 수출 가치의 하락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5 자원배분

- 경종 작물 재배와 축산업 사이의 의사결정으로 대변되는 자원배분의 문제는 여전히 호주 농가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임. 1990년대 초반 이후로 호주 농업에서는 양 사육에서 경종 재배로의 대이동이 이루어짐.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 효용성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효용성은 시장상황과 관련된 여건들과 환경,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됨. 선택 가능한 토지 사용에 대한 상대적 효용성은 생산량과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의 변화는 향후 자원배분과 토지이용의 집약도 등의 결정에 이용됨.
- 중장기적으로 호주 농가들은 축산업 보다는 경종작물의 재배를 선호할 것으로 보임.

호주 농가경제 전망

	Unit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2009 /10
총가치									
경 중	A\$m	15,049	19,113	17,306	17,664	18,795	19,391	20,272	20,335
축 산	A\$m	17,176	16,516	18,184	17,566	17,595	17,324	17,306	17,169
계	A\$m	32,225	35,629	35,490	35,230	36,390	36,715	37,578	37,504
수 출									
경 중	A\$m	12,919	13,329	14,261	14,402	15,245	16,070	17,092	18,000
축 산	A\$m	13,821	12,781	13,688	13,785	13,789	13,686	13,741	13,659
계	A\$m	26,740	26,110	27,949	28,186	29,034	29,756	30,833	31,660
비 용									
자재/서비스	A\$m	18,151	18,864	19,024	19,273	19,752	20,224	20,710	20,813
총현금비용 ¹	A\$m	24,220	25,225	25,576	25,955	26,576	27,193	27,828	28,084
감가상각	A\$m	3,810	4,011	4,171	4,205	4,236	4,261	4,286	4,312
계	A\$m	28,030	29,236	29,748	30,160	30,813	31,454	32,114	32,396
소 득									
순현금소득	A\$m	8,967	9,954	9,539	8,825	9,363	9,071	9,300	8,970
순생산가치	A\$m	4,398	6,546	5,742	4,956	5,318	4,894	4,959	4,523
가격지수									
농가판매가격	지수	100.0	98.4	96.5	92.9	93.3	92.5	93.1	92.3
농가구입가격	지수	100.0	101.2	103.5	105.0	107.2	109.4	111.8	114.5
교역조건	지수	100.0	97.2	93.3	88.5	87.0	84.6	83.3	80.6
생산량									
경 중	지수	100.0	142.3	133.8	137.9	142.6	146.5	150.5	154.7
축 산	지수	100.0	96.1	98.0	100.2	102.0	102.3	102.5	102.5
계	지수	100.0	117.2	114.5	117.5	120.6	122.5	124.4	126.2
재배면적 /사육두수									
곡 물	천ha	20,126	20,399	19,941	20,213	20,479	20,722	20,925	21,117
양	백만	99.3	94.5	101.5	106.5	111.8	114.4	114.0	112.9
소	백만	26.7	27.1	27.5	27.8	27.7	27.6	27.4	27.1

주: 1. 자재, 서비스, 임료금, 이자 및 임차료 포함

2002-04년은 ABARE 확정치, 2004/05년은 추정치, 2005-10년은 전망치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ARE

■ 대한민국 와인 수출 전망⁹⁾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판매되는 와인(약 1,400만리터)의 67%가 수입산 포도주임. 향후 5년동안 한국의 와인소비는 연간 평균 11%씩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됨. 다른 신흥 아시아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일인당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4,800만에 이르는 높은 인구수를 가진 시장임. 서구 문화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와인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은 잘 정비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대형 슈퍼마켓은 소매 판매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한국 와인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국가중에 하나인 프랑스는 여전히 가장 큰 수출국임. 2003년 한국의 와인 수입물량의 40%가 프랑스산이었음. 동기간에 호주는 미국, 이탈리아, 칠레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수출국이었으며 그 물량은 총 수입량의 6% 수준임.

2003/04년에는 호주산 와인의 수출은 67% 증가함. 이 가운데 병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75% 정도로, 이 가운데 적포도주가 77%를 차지함. 병에 담긴 적포도주의 판매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3/04년에 131% 증가한 285,000리터에 달함. 건백포도주는 총 수출물량의 27%를 차지하는데 병과 통에 담겨 수출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함. 병에 담긴 건백포도주 또한 약 60% 증가하여 178,000리터에 달하였음.

9) ABARE, "Wine Outlook to 2009-10", March 2005.

■ 대한민국 쇠고기 수출 전망¹⁰⁾

2004년에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호주산 쇠고기의 3번째 큰 수출 시장이 되었음.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2003년과 비교하여 거의 50% 가량 증가하였으며, 12월에는 월 최고 기록인 1만3천5백 톤이 수출됨. 2004-05년에는 2003-04년과 비교하여 12% 증가한 84천톤으로 추정됨. 최근 한국의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있어 계속해서 수입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물량은 소비량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고 2005년에 한국 국내공급이 증가한다면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2005-06년에 6%가량 하락한 79천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시장으로의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증가와 한국의 경제성장 조정기 등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10) ABARE, "Beef and Veal, Pigs and Poultry, meat outlook to 2009-10", March 2005.

부 록

1. 2004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
2.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

KREI

1. 2004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¹¹⁾

- 2004년산 논벼의 10a당 생산비는 587,748원으로 전년(592,728원)보다 0.8%(△4,980원) 감소함.
 - 농산물에 직접 투입된 직접생산비는 비료비, 농약비 등의 감소로 인해 2.3%(△7,165원) 감소함.
 - 간접생산비는 투입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인 자본용역비는 감소했으나, 농지사용료와 부담비율 등 토지용역비의 증가로 인하여 0.8%(2,185원) 증가함.
 - 외환위기(1998) 이후 회복추세를 나타낸 10a당 수익률은 2002년 이후 하락하였으나, 금년도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도 상승함.

10a당 생산비 증감률 및 수익률

	2000	2001	2002	2003	단위: % 2004
전체증감률	2.9	△0.4	△1.1	11.9	△0.8
직접생산비	0.1	0.6	△1.7	17.2	△2.3
간접생산비	5.8	△1.4	△0.6	6.7	0.8
10a당 수익률	48.3	48.8	45.3	35.4	43.0

- 쌀 80kg당 생산비는 91,189원으로 전년(105,021원)에 비해 13.2%(△13,832원) 감소함.
 - 10a당 생산비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였으나, 10a당 생산량이 504kg으로 전년(441kg)보다 14.3% 늘어났기 때문임.

11) 통계청, 『2004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 2005년 2월.

2. 2004년 농업 기본통계 조사 결과¹²⁾

- 2004. 12. 1일 현재 전국의 농가수는 1,240천가구, 농가인구는 3,415천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9%(△24천가구), 3.3%(△115천명) 감소함.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탈농, 전출 등으로 인해 농가수가 감소됨.
 - 최근 10년간(1994~2004)의 연평균 농가 감소율은 2.3%로 나타났다, 10년전에 비해 농가수는 20.4%(△318천가구) 감소됨.
 - 총가구 대비 농가는 8.0%,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는 7.1%로 매년 감소추세임.

농가 및 농가인구 변동 추세

	1994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가구(천가구)	-	14,312	14,834	15,064	15,298	15,539
농가(천가구)	1,558	1,383	1,354	1,280	1,264	1,240
농가 증감률(%)	△2.2	0.1	△2.2	△5.4	△1.3	△1.9
농가 비중(%)	-	9.7	9.1	8.5	8.3	8.0
총인구(천명)	44,642	47,008	47,354	47,615	47,849	48,082
농가인구(천명)	5,167	4,031	3,933	3,591	3,530	3,415
농가인구 증감률(%)	△4.4	△4.2	△2.4	△8.7	△1.7	△3.3
농가인구 비중(%)	11.6	8.6	8.3	7.5	7.4	7.1

- 경영주의 연령층은 60대가 36.2%(449천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70대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23.0%(285천명)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반면, 50대이하의 경영주 비중은 40.8%(506천명)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 통계청, 『2004년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 결과』, 2005년 2월.

경영주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

	합 계	40세미만	40~49	50~59	60~69	70세이상
2002	1,280 (100.0)	53 (4.1)	202 (15.8)	299 (23.3)	478 (37.4)	248 (19.4)
2003	1,264 (100.0)	44 (3.5)	198 (15.6)	293 (23.2)	461 (36.4)	269 (21.3)
2004	1,240 (100.0)	38 (3.0)	182 (14.7)	286 (23.1)	449 (36.2)	285 (23.0)
증감률(%)	△1.9	△13.6	△8.1	△2.4	△2.6	5.9

- 농가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15~64세는 2,06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1%(△111천명)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002천명으로 2.0%(20천명) 증가했음.
- 농촌의 65세이상 고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지수도 284.2로 전년보다 높게 나타남.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분포

단위 : 천명, %

	1994	구성 비	2000	구성 비	2001	구성 비	2002	구성 비	2003	구성 비	2004	구성 비
농가인구	5,167	100.0	4,031	100.0	3,933	100.0	3,591	100.0	3,530	100.0	3,415	100.0
0~14세	839	16.3	459	11.4	444	11.3	384	10.7	377	10.7	353	10.3
15~64세	3,502	67.7	2,696	66.9	2,530	64.3	2,266	63.1	2,171	61.5	2,060	60.3
65세이상	827	16.0	876	21.7	959	24.4	940	26.2	982	27.8	1,002	29.4
노령화지수	98.6		190.9		215.7		244.8		260.3		284.2	

※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는 논벼(51.5%), 채소(21.1%), 과수(11.0%) 순으로 나타남.
- 이중 논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는 전년대비 3.1%(△21천가구) 감소하였으며,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2001	2002	2003	2004
논벼농가수(천)	766	705	660	640
증감률(%)	△2.7	△8.0	△6.4	△3.1
비 중(%)	56.6	55.1	52.2	51.5

-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820천가구 (66.1%)로 전년에 비해 5.8% 감소한 반면, 5천만원 이상 판매한 농가는 46천가구로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판매금액별 농가수 및 증감률

단위: 천가구, (%)

	2001	2002	2003	2004
1,000만원 미만	882 (△8.0)	861 (△2.4)	871 (1.2)	820 (△5.8)
5,000만원 이상	25 (△17.6)	35 (35.8)	40 (14.8)	46 (16.4)